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일시 2024년10월7일(월)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문화정책, 예술, 종무, 문화산업, 저작권, 미디어, 체육, 관광 및 국정홍보 업무 등 다양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및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 규모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소 규모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는 등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종료 후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고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은 본인의 보충질의 시간 5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번에는 특별히 답변시간은 제외하고 질의시간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 주질의 7분을 하지 않으신 경우 중인 신문시간 5분에 더하여 12분을 질의하실 수도 있으며 주질의 7분을 오전에 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3분을 미리 써서 8분간 질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음성 송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동영상 활용 시 음성 송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제삼자를 통하여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이 음성에 포함되는 등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거나 중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람들의 간접 증언으로 활용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성 송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10월 17일 목요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녹화중계하고 10월 22일 화요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생중계하며,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에서는 모든 국정감사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는 기후위기 대응 동참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이 없는 국감의 일환으로 업무보고서, 요구 자료, 답변서 등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여 종이문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자료를 유인하지 않고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스물일곱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유인촌 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촌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용호성

제2차관 장미란

차관보 이진석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최보근

종무실장 정용욱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대변인 강수상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국제문화정책관 김재현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김도형

소통지원관 이준호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체육협력관 송윤석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운영지원과장 남찬우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기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님,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입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년 동안 문체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용호성 제1차관입니다.

장미란 제2차관입니다.

이진석 차관보입니다.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입니다.

정용욱 종무실장입니다.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강수상 대변인입니다.

최현준 감사관입니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해돈 문화정책관입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김도형 소통정책관입니다.

이준호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입니다.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이정우 체육국장입니다.

송윤석 체육협력관입니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남찬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8쪽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정책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문체부는 올 한 해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을 등 K-콘텐츠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한층 도약할 수 있

도록 선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을 수립한 것을 비롯하여 게임, 영상, 만화, 웹툰 등 분야별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는 작은 출전 규모에도 종합 8위, 메달 기준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78개국 2900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원 참가와 관람객 50만 명 흥행으로 스포츠 강국 입지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메가이벤트 개최, 여행가는 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출범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일상과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 자유로운 예술창작 환경 조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K-컬처 확산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첫째, 국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비롯하여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과 문체부 청년인턴 확대 등 청년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에 내년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K-컬처의 새로운 원동력인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표 작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와 연계한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 조성과 더불어 남산 자유센터를 공연예술 창·제작 공간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또 정동극장 등과 연계한 서울역·명동·남산 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의 창작, 유통,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미술·공예·문학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중심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콘텐츠기업이 기획·개발·수출 단계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게임, 영화, 웹툰 등 장르별 전략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4년 25개소까지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동 한류종합박람회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규범 마련을 위해 AI 업계, 권리자, 학계, 법조계 등과 논의하여 AI 저작권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뉴욕 코리아센터 개원을 비롯한 해외 거점을 확충하고 수교 기념 또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주요 계기별 코리아시즌 개최를 통해 한국문화를 종합 선보이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예비 승인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대표사업 컨설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째,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이라는 과감한 목표 아래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연계한 특색 있는 글로벌 축제와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9월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이어 10월에는 서울아트마켓, 웰컴대학로 등 주요 공연예술 행사를 연계한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를 개최합니다.

또한 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추가 추진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에 최대 20만 명, 숙박쿠폰 최대 95만 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로 K-관광 로드쇼를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비자, 교통, 쇼핑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째, 일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 지원과 지정 스포츠 클럽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과 분리를 계기로 학년별 맞춤형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7월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끌므로 주요 현안 과제로 체육계 감사·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리 축구인 사면 추진 경위, 국가 대표 감독 선임 절차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면밀히 살피고 10월 중 감사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도 후원계약, 국가대표 선발 등 관련 제도, 보조금 및 협회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여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사항 등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피감기관의 거짓 자료제출에 대해서 국회증·감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KTV가 작년 10월 31일 청와대 관저에서 실시한, 열린 8600만 원짜리 국악공연에 누가 관람했느냐라고 요청했을 때 KTV는 별도의 관중이 없이 진행했다고 공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무관중으로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JTBC하고 저희하고 같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아주 소수가 테이블에 앉아서 공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체부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KTV가 본 의원실에 허위 자료, 잘못된 가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능멸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KTV의 거짓 자료제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KTV의 이성구 방송기획관을 꼭 15일 날 KTV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성구 방송기획관은 의원실의 수차례 질의에 대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무관중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를 진행한, 연출한 조대익·최용석 PD도 15일 날 KTV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증인 신청 및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애초부터 무엇인가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이기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이미 기관이 허위의 답변을 해서 제출 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떤 의도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특권층의 유흥이 더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누구의 지시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KTV 이성구 방송기획관과 관련 PD 등 오는 15일 한국정책방송원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십시오.

또한 KTV는 평균 자료제출 시간도 대단히 늦을뿐더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국정감사 방해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라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증인 채택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 증인 신청을 했었고 전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라고 해서 제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말고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야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김대중 씨를 제외하고 최지우 변호사를 증인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불과 10여 분만에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야 합의가 마쳐지고 의결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에 대한 증인의 제외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에서 최지우를 양문석의 보복성 증인 채택이라고 계속해서 대변인발로 논평을 내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지우 변호사를 채택했던 건 사실상 국힘당이 동의해서 간 증인 채택이고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 양문석의 보복성 증인 채택이라고 공격하는 그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인 채택 과정에 있어서 최지우와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모두 끝나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 24일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차윤숙 이사께서 나와서 참고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김택규 회장의 문제나 협회의 부조리를 아주 용기 있게 증언을 해 주셨는데 근래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차윤숙 이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을 불신임하겠다는 총회 소집 공문이 왔거든요, 각 협회 지부에.

당시에 저희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10년 가까이 국회에 있으면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 풍경이다, 앞으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협회가 거기 참석했던, 그래서 증언을 했던 참고인을 지금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정말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꼭 위원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 자료를 꼭 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9월 초에 문체부 실국별 주최·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답변을 않고 계속 끊개다가 사흘 전에 한 장짜리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이 왔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거냐 그랬더니 문체부가 체육계 현안질의 등으로 바빠서 그랬대요.

저번 주에 요구한 자료도 제출했던 문체부가 요청한 지 한 달도 더 된 이 자료를…… 대통령 또는 영부인 참석,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 현황 이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주거든요. 저는 이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행사 자료, 대통령 부인 행사 자료가 무슨 기밀사항도 아닐 거고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것 제출해 주지 않는 것은 저는 국감 방해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기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KTV의 그런, 무관중 행사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서 황제관람이 있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료 제가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요 꼭 좀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과 김재원 위원님께서 KTV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의원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KTV 증인으로 반드시 이성구 방송기획관, 저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재단을 국정감사 정식 피감기관으로 의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는 여당 박정하 간사님의 요청으로 첫날인 오늘과 종감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증인으로 나오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피감 기관으로 부르자는 의견에 저 또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병세 이사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문체부가 비영리법인으로 만든 청와대재단은 올해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곳입니다. 문체부 산하기관들 중에는 예산이 300억이 되지 않는 기관들도 피감기관으로서 나와 정식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300억 원을 운용하는 청와대재단 이사장이 단순 건강의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관증인으로 의결했어도 이 자리에 안 나왔을까요, 위원장님?

불출석 사유 또한 윤병세 이사장은 9월 17일 코로나에 걸린 이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윤병세 이사장의 청와대재단 업무일정을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 확진 이후 9월 27일에는 청와대재단 행사 개막식에도 참석을 하였고 건강한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T를 띄우고 싶었지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PT를 띄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여 PT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건강 악화의 이유로 불출석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후 일반증인 출석 시 윤병세 이사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국회증·감법 제6조에 근거해 동행명령을 내려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윤병세 이사장이 오후에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도 청와대재단 예산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모든 국정감사 일정에 매번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문체위 차원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른……

○김윤덕 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본질의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계속 죽 나오고 있어서 몇 가지……

저는 야당 위원님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거나 굳이 그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 생각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TV 문제는 저도 방송을 오래 해 본 사람이어서 제 관점에서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KTV가 국정 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와 안면이 있는 신영희 씨가 온다고 그러니 잠시 가서 인사도 하고 그 기회에 공연을 잠시 지켜봤다 이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인데, KTV의 해명인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무관중 녹화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관중 없이 녹화를 하는 경우와 관객을 불러 놓고 녹화하는데 대개 이를테면 특정 방송국에서 관객 없는 녹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유명한 아티스트가 와서 잠시 내가 인사하러 가겠다, 그래서 녹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본다거나 이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저는 KTV가 거짓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KTV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큰 비중인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관람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수많은 PD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에 굉장히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하더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최지우 변호사에 관한 문제를 양문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김대중 전 주필을 부르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언론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김대중 전 주필은 전 주필이기도 하지만 현역 언론인입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언론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칼럼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국정감사장에 막 부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희와 반대되는 논조를 쓰는 언론사의 현직 언론인 또는 논설위원을 국정감사에 불러서 압박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문석 위원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증인 채택을 무작정 압박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님, 제가 저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만.....

○김윤덕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 신동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증인 요청에 관련해서 상대 위원의 발언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대변을 하는 식의 이런 의사진행발언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김윤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할 경우에 순방을 계기로 문화행사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순방국가별 순방 계기 문화행사 소요 예산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재단의 공문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의 임명 절차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꼭 하셔야 됩니까?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신동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집요하게 KTV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야당에서 집요하게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야당에서 자꾸 집요하게 했습니까, JTBC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기획했던 것들이 사실상 외교사절들이 못 오면 취소해야 되는 제작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전 주필 문제, 혼역 언론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 지금 법사위나 방통위,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 많은 기자들이 나와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선일보 관련된 사람은 부르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이 문제는 아리랑TV, 김태정이라는 사람이 아리랑TV 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김태정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전 주필의 사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태정이라는 사람이 아리랑TV 사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김대중 전 주필의 논조가, 가기 전과 간 이후의 칼럼 논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마 취업 청부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전 주필을 불러서, 논조가 바뀐 것 하지 마라면 나 안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청부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아리랑TV 사장으로 갔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칼럼을 이용해서 혹시 위력을 과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상의 범죄적 칼럼

들이 현실적으로 벼赖以生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신의 친인척, 사위의 취업 청탁과 관련된 문제가 직결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김건희의 변호사 최지우를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씨를 불러서 취업 청탁과 그다음에 칼럼의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더 이상의 의사.....

○ 신동욱 위원 10초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욱 위원 어떤 말씀이든 다 수용합니다.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이 있는데 방금 말씀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표현은, 저도 앞으로 그런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오늘 국정감사 주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 해서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부분을 뒤집어엎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24일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TV 관련해 가지고 이기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게 15일 날 KTV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중인 채택을 해야 되면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정감사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중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위원님, 최지우 변호사, 김대중 주필 중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형배 위원님, 참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배드민턴협회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리고 문체부에도 좀 의견을 구해서 참고인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챙겨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참고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불이익을 주게 된 배드민턴을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면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서 추후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윤병세 청와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중인 출석 말씀을 하셨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리시고 난 뒤에 아마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불출석사유서를 봤는데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코로나 걸리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4일 날 청와대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도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었는데 장관님 이것 가능하지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문체부 행사 참석 자료? 이것 국가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런 특별한 행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윤덕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형배 위원 저한테,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아니, 김윤덕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께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증인, 양문석 위원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증인 채택 과정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한 말씀 드린다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양문석 위원님께서 증인 요청을 하신 것에 있어서 저희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인해서, 국정감사의 원활한 절차를 위해서 양해를 구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문석 위원님께서 보복성으로 최지우 증인을 요청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님께서는 증인 요청에 있어서 김대중 증인과 최지우 증인이 그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고 보복성으로 최지우 증인을 양문석 위원님이 요청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양문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증인을 저희가 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양문석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 요구하신 이 부분은 보복성 증인 채택이 아니고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증인이 채택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보복성 증인 채택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위원장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먼저 영상과 함께 2024년 문체부 국감의 첫 문을 열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리고 이어서 지난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방금 보신 본 위원이 KBS 뉴스를 통해 국민들께 소개한 한국어 해방포고문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기관장님들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총 7개 4시간 분량인 이 오디오 자료는 미국 정부 산하 라디오방송인 미국의 소리(VOA)가 우리 시각으로 1945년 8월 15일 오전 8시께 조선으로 송출한 방송의 내용입니다. 방금 이 방송을 전한 앵커는 후에 대한민국 3대 국회부의장으로 역임했던 황성수 전 국회부의장이십니다. VOA는 지금도 송출되고 있지만 당시 국내 독립운동의 해외 소통 창구로 활용되면서 1942년에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단파방송 청취 사건으로 인해 일제 당국에 300여 명이 한꺼번에 검거됐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들을 같이 들려 드린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는 조선 땅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했던 이른바 광복의 신호가 일본왕인 히로히토의 일본왕 패전선언 방송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시간 전에 우리의 말로 조선 땅에 전해진 최초의 광복의 소리가 있었다는 아주 귀중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로히토는 쓰지 않았던 항복이라는, 일본의 항복이라는 단어가 총 4시간 분량의 이 오디오 파일에 영어와 우리말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고 황성수 앵커가 아주 감격적인, 당시 조선의 독립을 알리는 그 환희를 담아 고스란히 전해진 것을 저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목표한 청취층이 미국 현지에 사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아닌 일제 치하에 신음하던 조선의 민중들이었던 점이 이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소중한 자료를 사실은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성명을 확인하지 못한 우리 국민께서 미 기록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에 올리셨는데 우연히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에 발견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체부,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에 이 자료를 인지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알지 못하셨더라고요.

장관님, 장관께서도 과거에 ‘역사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4년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잠시 짧은 부분의 파일을 정리해서 들려 드렸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공감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실제 KBS 톱뉴스로 두 꼭지의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도 알지 못하는 전국에 계신 역사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역사선생님들께서 의원실로 역사교과서 개정이 되면 반드시 수정돼야 할 부분이다라며 제가 예상치도 못한

칭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매년 해외나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이러한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 직지심체요절이나 고종 옥보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 드린 이 자료 같은 귀중한 자료들이 정부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해, 정부를 통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우연히 발굴되는 사례만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과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들, 특히 VOA 방송 같은 경우는 광복 전에 광복의, 독립운동의 소통창구로 쓰인 만큼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같은 우리가 아팠던 소리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국가적으로 열심히 발굴하고 국민들께 자긍심 또 기쁨을 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게 되었고요.

내년은 특별히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기 전에 우리가 이런 소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뭘 띄워 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장관님,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공문 보셨습니까?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나중에.

○민형배 위원 나중에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저기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삼자의 영향력 그 다음에 제재 그다음에 추가 정보를 달라 이 세 가지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혹시 저 공문을 놓고 보면 월드컵 출전 금지나 몰수패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지요? 그런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민형배 위원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문체

부 감사는 프랑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협회의 독립성 침해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개입하신 적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희 국회가 현안질의를 한 거나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부당한 개입을 한 게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런 불이익은 없을 거고.

지난달 30일인데 그 감사 결과 대통령께 보고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10월 1일 날.

○민형배 위원 몇 시에 들어가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0월 1일 날, 9월……

○민형배 위원 9월 30일 맞습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 감사 발표하기 전날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대통령께 사전보고하셨겠지요.

30일 몇 시께 들어가셨냐고요, 대통령 보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날 오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오전에 문체부 체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3시.

○민형배 위원 오후 4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3시요, 3시.

○민형배 위원 3시.

문체부 체육정책과로 FIFA 공문이 접수됐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못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때 못 보고 들어가신 게 문체부가 이 공문을 정확하게 수령을 못 해요. 11시께 문체부의 체육정책과로 주무관한테 1차 구두보고를 하는데 말이 없어요. 4시께 또 하는데 그때는 사무관에게 하는데 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못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못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날 공정하게 하도록 지도 관리를 좀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

○민형배 위원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요. 하나는 축구협회가 FIFA에 일부러 흘려서 FIFA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타이밍이 묘하게 그래요. 문체부가 감사 들어가니까 흘리고 국회가 현안질의하니까 또 흘리고 그리고 감사 발표 직전에 또 흘리고, 이렇게 해서 FIFA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도록 한 것 아니냐.

혹시 FIFA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축구협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희들은 그냥……

○민형배 위원 거기까지는 없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사례 보면 제재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정부가 축구 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협회 인사권 또는 재정권을 통제하거나 관련 법을 만들거나, 저희 이런 것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나 국회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FIFA가 갑자기 KFA에 보냈느냐, 이 배경이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 좀 살피셔 가지고 보고를 국회에 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때 해 주셔도 되고 그 전에 해 주셔도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꼭 좀 살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문체부 감사 결과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정몽규·홍명보 사퇴 공감도라고 그림이 나오는데요. 저게 이미 보셨겠지만 10명 중에 8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문체부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보니까 답답해서 더 죽겠다 그러고 계시거든요.

첫째, 왜 외국인 감독들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느냐? 안 됐대요, 감사 결과에. 그러니까 면담조차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정해진 대본처럼 공정한 기회를 받기 전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다.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그너, 포옛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찌 보면 피해자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협회 말만 듣고 감사를 한다?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다 했는데, 중간 발표이기는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대통령마저도 공정하게 해라, 그런데 계약 무효는 아니다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축구판 채용비리예요. 채용비리의 내용은 이를테면 지금 이런 거예요. 구직자가 채용 서류도 안 내고 면접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데 진행했다, 회장이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타 부서 팀장에 인사권한을 위임했다, 면접에 불참한 면접 대상자를 집까지 찾아가서 면접한 후에 채용했다, 최종 결정이 안 됐는데 면접자에게 합격 발표했다. 이 정도면 어느 조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채용

비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적으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데도 감독 선임 문제는 알아서 해라? 이게 저는 감사 결과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이미 감사 전에도 발표한 걸로는 아마 감독 문제, 만약에 이게 불공정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감사 때는 그게 빠져서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여전히 유효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축구팬들이 이걸로 화가 더 많이 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날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건 그대로 하실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에 보면 이상한, 뭐 뒷거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로비가 있었어요, 정몽규 회장 3연임 할 때.

4연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장관님도 그냥 받아들이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민형배 위원 그러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것도 안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민형배 위원 그것은 확고한 방침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10월 최종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번 현안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축구협회장으로 보는 일은 없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그건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축구팬들이나 국민들이 답답하다니까요. 감사를 해서 과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할지는 축구협회에 맡기겠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회장을 바꾸라든지 이렇게 되면 FIFA하고의 문제가 되지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회장을 바꾸라는, 아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4연임 그게 적절치 않다고 보면 그건 승인하지 않을 생각이다 하셨으니까 그건 정리가 된 거고 감독 말씀입니다,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독은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해야지요.

○**민형배 위원** 감독이 지금 일종의 축구판 채용비리인데 이 채용비리가 있는데도 그냥 두고 볼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 결과로 확인이 됐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냐, 혹시 아까 FIFA 그 공문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FIFA가 공문 보낸 것은 저는 그냥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저촉되지 않게 할 거고요.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간 걱정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먼저 제 본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저희 배현진 위원님 질의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해방 전후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체부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아마 배현진 위원님의 저 자료를 발견을 하고도 혹시 이게 조작된 자료가 아닐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이런 걸 잘못했다가 방송사에서도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하는 이런 부서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가 관련이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자료도 AI 크리에이터 하일광 작가라는 분이 만든 자료인데 광복의 날에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웃으면서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실제로 저런 화면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 화면도 한번 보시지요.

이게 누구 같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배현진 위원** 신동욱 위원님 아닌가요?

○**신동욱 위원** 예, 저희 의원실에서 아주 쉽게 만든 겁니다. 20대 때 제가 만약에 저런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화면이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봤더니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저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제가 보여 드렸나 하면 이제는 현재의 가짜뉴스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이런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AI 시대에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거의 연초부터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에는 이런 문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작자와 배포자의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환호하는 모습이라든지 저의 귀여운 20대 모습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흥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한데, 문체부와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지금 방통위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여서 문체부에서는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방통위하고 저희들이 의논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이렇게 복제된 얼굴·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도록 또는 그것에 대한 보상권을 만들어 주도록 이런 준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문체부가 할 것이고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은 방통위에서 할 텐데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떤 규제면 규제고 또 통제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양쪽을 다 포함해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런 문제는 조금…… 왜냐하면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먼저 뭔가를 딱 결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 사례를 참고하면서 결과를 좀 만들어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연말에 발표하실 거라고 하는 데는 대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체적으로 지금……

○ 신동욱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저희들은 보상권 문제 그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의 보상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아마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 신동욱 위원 지금으로서는 콘텐츠저작권 문제 그리고 음악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고 또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향미 저작권국장님 잠시 좀……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된 화면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시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안무, 자세히 보시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 안무가 지금 K-컬쳐의 굉장히 핵심적인 콘텐츠의 하나로 등장했는데 안무저작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저희가 안무저작권 관련해서는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안무에 대한 성명표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획사가 안무저작권을 관리하는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포진해 있어서요……

○**신동욱 위원**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이제 11월 달 정도면 나올 건데요, 중간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11월 달 정도면 안무저작권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연구가 끝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내까지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무 창작자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동욱 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건 아니지요? 이를테면 음악저작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안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안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작권 해석적인 측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소프트하게 관리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안무 표준계약서 관련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서 표준계약 문제와 안무저작권, 성명표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저는 창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K-컬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창작저작권을 지키지 못하는 형태로 무방비하게 퍼질 경우에 우리 K-컬처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저작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명확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촌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안무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저작권 보호라는 건 아주 확실하게 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요율이나 아주 섬세한 그런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 안무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해 왔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 위원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를 발굴해서 국민에게 알려 주신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제가 지금 감사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웃음소리)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주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의를 먼저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장관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관중 엑스포 홍보 공연 관람 논란 이 문제에 대

해서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다 읽어 보면 전체 흐르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께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셨다, 그래서 단순 방문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JTBC를 여러 가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애초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오셨냐 중간에 오셨냐 이 문제 가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처음부터 기획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체부가 언론에 이런 강한 경고와 조치를 하면서 결과 보도자료 내용은 중간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실명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니 실명이 아닌 JTBC 보도보다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신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키려면 이런 것에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사 전에 이미 이것은 대통령内外가 참석하는 VIP 행사だ라고 하는 전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내빈용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고 꽃 장식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내부 공문 자료에 의하면 김 여사가 참석자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좌석 배치도까지 있었다, 그다음에 초대받은 인사들 일부가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참석하겠다고 했으나 행사 취소 연락을 받아 안 갔다 이런 것들을 함께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더 정확하게 국민께 설명을 드리려면 이 보도자료에 이런 언론의 내용까지 일일이 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체부 보도자료는 문체부가 유리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러므로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예산 8600만 원을 2000만 원 이하 쪼개기로 수의계약한 게 다수다라고 하는 것,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 저도 이 문제가 처음부터 황제관람을 위한 기획 공연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국민께 믿음을 주시려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언론이 주장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종합질의까지 한번 생각을 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왜 의심을 받냐면 부산엑스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이미지와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해야지 왜 이것을 청와대 관저 앞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저도 청와대에 2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관저 앞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녹지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청와대 관저 앞뜰이라는 곳에서 왜 이걸 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했으니까 저는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것 정말 기획 공연이 맞구나라는 의구심을 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관님, 지금 본 위원이 대신 질문해 준 언론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이것이 부산엑스포와 전혀 관련 없는 청

와대 관저 앞뜰, 청와대에 2년이나 근무했던 저도 잘 기억 안 나는 그곳에서 이것이 행사가 마련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포함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의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소통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KTV와 한 번도 제가 통화를 했다거나 간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KTV가 요즘에 콘텐츠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런 논란으로 유명해집니까?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관님, 여기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지간하면 그런 것 좀, 원본 영상 이런 것 좀 활용도 하게 하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다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튜버들이 조금 활용해서 뭐를 좀 고치고 바꿔서 이렇게 하면 즉각 고소고발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KTV가 첫 민간인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이것이 KTV 2007년 설립 이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최초 민간인을 고소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튜브 콘텐츠 47건을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최초로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단 1건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KTV가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래서 장관님 잘 좀 살펴보셔서, KTV 그냥 놔둬도 잘하거든요. 잘해서 또 국정홍보 잘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KTV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어떤 정치적 입장을 너무 반영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년 대통령후보 시절에 예능 프로그램 ‘SNL’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되면 자유롭게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권리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의 수준 높은 이런 철학을 잘 반영하셔서 살펴보시고 KTV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질의를 앞두고 KTV 문제를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제가 소비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장관님께서 또 설명하실 그런 말씀도 계시겠지만 여기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30초 남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KTV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KTV에 어떤 요구를 하거나 무슨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주로 KTV 자체가 기록 보존 또는 홍보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우리 콘텐츠를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마 저작권 문제는 요즘에 너무 많은 부분에 이슈가 되어 있고 특히 영상 문제는 찍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영상에 대한, 굉장히 아주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분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인식이 커진 것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KTV가 공공의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걸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의논 정도 하는 거지요. 사실은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지요, 왜냐하면 KTV 자체도 언론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원 위원 장관, 지난 3월 19일 남산 자유센터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 발표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김재원 위원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 업무협약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산하의 그 어떠한 사단법인도 이렇게 많은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3년 6월에 자총이 보수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날 자총 강석호 총재가 ‘자총은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이념단체다. 지난 5년간 마음에 안 드는 문재인 정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념이 맞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권 창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강석호 총재 및 그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보수 유튜버들이 총선 개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자총을 각별하게 챙깁니다. 자총 창립기념식 7월 4일 날 참석을 하셨고요. 지난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한 것도 자총 기념식입니다.

10월 7일 날 장관께서 임명되셨는데 문체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임명되기 전 9월에 내정자 신분으로 자유센터에 국립단체 등의 입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내정자 신분이에요?

○ 김재원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 김재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한 달 뒤인 10월 달에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요. 올해 2월 또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3월 19일 날 장관이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 발표하고 자총과 업무협약 체결하고요. 이때가 4월 10일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무엇이 특혜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자총에 땅을 공짜로 주었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에 자

총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면서 2013년에 시행하도록 했는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시설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그런 법안 내용이 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난 지금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50년 먹거리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업무협약 핵심이 리모델링 비용 58억을 주고요. 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만들고 자유센터에 입주시켜서 20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입료 640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50년 넘었는데 이 자유센터가 리모델링이 되면 부지 가치가 무지하게 상승하겠지요. 또 근처에 고급 아파트가 있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시면 공모 주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화면에서 B로 표시된 자유센터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A라고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주거시설, 전시장 등으로 개발하고 매년 30억 원가량의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50년 동안 소유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찾는 게 공모 내용입니다.

PPT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개발사업자가 주거시설을 짓는 무엇을 짓든 간에 연간 30억 원, 50년간 최소 15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나인원한남 같은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 개입해서 이 땅의 규제를 풀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속내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자유센터 리모델링 및 임차료 약 640억 원, 토지사용료, 개발 대가로 약 1500억 원 등 약 2140억 원이 자총에 주는 최소 금액인 특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 자체가 자총에 선물하는 막대한 특혜의 마중물이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보장해 주는 연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답변 기록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금액이 워낙 커서 추후 특검 수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명되기 전에 내정자 신분으로 국립단체의 자유센터 입주 검토를 급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내정자 신분으로 그렇게 입주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원 위원 아까 받은 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지역은 남산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고요. 또 자유총연맹의…… 저는 그렇게까지 돈 계산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위원님 말씀이 금방 와닿지는 않는데 그 공연……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 업무협약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김재원 위원 지난 2월 6일 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보고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특별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들의 의지가…… 사실은

이미 역대 정부마다 그 지역을 자유총연맹이 아닌 국립극장과 연계한 공연예술센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거예요.

○김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모자라니까요,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이제 시작인 거고요. 아직 정식적으로 돈 계약도 안 했고요. 이제 거기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서……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를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재원 위원 국민은 대통령이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정부가 보수단체, 이미 여러 번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그런 단체에 너무도 수상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이건 정치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오히려 공연예술 쪽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원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KTV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관중 녹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장관과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다 녹화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행사 식으로 되는 것은 제가 제일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8600만 원을 들여서 녹화 중간에 격려 방문을 했고 관람한 것 아니다, 무관중 공연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문서와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V가 10월 24일 업체하고 계약서를, 과업지시서를 업체에 보내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렌탈 장비 항목에 원탁 테이블 있고요. 운영인력 항목에 의전인력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무관중 공연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보름 넘게 지나서 계약하면서 의전물품하고 의전인력을 왜 넣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의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무관중으로 녹화할 때는 풀밭에서는 저렇게 플라스틱 의자를 많이 쓰지요. 그리고 스텝들이 관람을 합니다.

10월 31일 날 업체가 지급받기 위해서, 대금 지급을 위해서 내놓은 준공내역서에서도 계획 그대로 의전물품·인력 항목 청구가 됩니다. 의자, 테이블은 다 테이블보와 의자보가 씌워진 행사용이었습니다. 무관중인데 리플렛 50부도 제작이 됐습니다. 팀장급 2명, 의전 인력 8명 대금 지급 청구됐습니다. 허위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체가 거짓으로 이렇게 청구를 할 리는 없고, 만일에 허위로 청구를 한 거라면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업체는 즉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KTV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국제상황이 전쟁도 막 시작되고 어려우니까 외교사절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김재원 위원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에 보름이 넘게 지나서 계약을 하면서 그 사태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어쨌든 제가……

○김재원 위원 의전인력과 그다음에 행사용 테이블까지 다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그러니까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지 뭐 녹화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준비했다가……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은 향후 재추진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 사건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관련 출연자와 스텝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경기도 안산갑 양문석입니다.

일단 자료화면 좀 보고 시작을 하지요.

아니, 동영상 말고요 TV조선 보도부터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155만 회의 TV조선 보도입니다. 풍선에 날아온 USB에 들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북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처형됐다라는 보도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보도를 보면 출처는 정부 관계자, 정부당국 관계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변조나 얼굴변조 없이 일방적으로 자막으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동영상, 2024년 북한인권 영상보고서에서 청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화소 정도 갔는데 이렇게 사형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충격이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전형적인 조작이거든요.

첫 번째, 취재원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 단독보도인데 그 단독보도에 어떤 영상을 붙여 넣었냐면 2024년 북한인권 영상보고서에 나오는 영상을 붙여서 뭔가 이 학생, 이 청년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들이 만든 듯이 이렇게 영상 편집·조작을 TV조선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다, 저도 계속해서 북한…… 드라마를 보고 중학생들이 공개처형당했네, 북한 정말 심각하고 더 악랄해졌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상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가짜뉴스였단 말이에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 수업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만간 관계장관 때 안건을 발제하려 한다’, 유인촌. ‘가짜뉴스는 여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다시 재정비하겠다’, 유인촌.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게 장관께서도 하신 말이고 대통령도 한 말입니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문화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웹툰입니다.

다시 한번 만화 사진 띄워 주십시오.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대’, ‘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처가 정부당국 관계자 외에 일절 없고 이 뉴스에 붙어 있는 영상이 짜깁기, 편집당한 전형적인 조작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틀이요, 컷이요 ‘이뿐만이 아니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이 내용은요 북한인권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강하게 처벌되었는데 5명 중 주동자 2~3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교화소에 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이 조선일보로 탁 퉁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의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

그런데 문제는 문화부가 발간한 웹툰에 이 내용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북한인권보고서 2024년 판에 이 두 컷은 없어요, 내용이. 이 두 컷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부가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의 삶을 말합니다’하면서 이 두 컷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잖아, 이것 왜 넣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문화부 보도자료에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나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도입부로 활용하였고’, 이것 왜곡이지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문화부가 앞장서서 살포하고 있는 거지요?

북한인권보고서, 제목이 그거예요.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하는데 장관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가짜뉴스를 이렇게 제작·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세상에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웹툰에 이렇게 또 내보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는 ‘저희들의 의도된 기획입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든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다수 매체에 보도된 내용.

무슨 다수 매체입니까? TV조선의 사기뉴스, 가짜뉴스 그걸 갖다가 무비판적으로 따라한 TV조선 마니아들의 일방적인 대국민 사기 사건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 매체의 보도된 내용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 인권과 상관없는 내용을 도입부 설명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그 말씀처럼 다수 매체인지 TV조선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론에서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 작가는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고……

○**양문석 위원** TV조선 단독이었고요. 다른 언론사가 무비판적으로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사항이 사실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다수 언론에서 썼다 이렇게……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도,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의 삶을 알리는 웹툰인데 이 내용 자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런 설이 있었다라고 지금 써 놓은 거라, 이게 ‘처형했다’가 아니고 ‘했대’라고 남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얘기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로.

○**양문석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리고 인권보고서 나온 내용은 그 뒤부터 다 그대로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우리가 여기에서 말장난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아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컷이……

아니, 다른 사람은 주더만 왜 저는 안 줘요?

○**위원장 전재수** 1분 이미 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이미 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입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체육회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지금 아마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건립 문제는 뜨거운 현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설 지정 문제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고 대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뜨거운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지난 8월에, 정상적인 부지선정위원회나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 없이 부지선정위원회나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체육회 이사회와 의결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직접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봐도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 이사회 의결 자체는 적법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당시에 그 날짜도 다 공고를 했고 발표하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미루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렇게 국가대표 훈련시설을 짓는 문제를 왜 체육회가 결정하도록 해놨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것을 결정하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연욱 위원 지금 저희도 문체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부지선정위원회나 인원 구성이나 회의 자료, 회의록을 전혀 저희한테는,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깜깜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아마 10월 달까지 이 부분에,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조사? 그러면 다시 또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지금 밝힌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다 선거를 의식해서 연계한 거다……

○정연욱 위원 선거라는 게 내년 1월 달 체육회장선거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체육회장선거. 그러니까 여기 지자체 아홉 군데가 지금 경쟁이 과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마다의 시도 체육회장들이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면 조금, 이런 게 지금 추측으로 막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10월 달에 종료가 되면 체육회한테 위탁한 타당성 용역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회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체부가 중단을 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연욱 위원 재고를 한다는 것은 일단 체육회가 하는 것은 중단시킨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2000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단순하게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이유로 체육회가 결정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희가 아마 2000억 규모의 이 대체 시설 문제는 간단히 넘길 수 없고, 이게 또 부지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깜깜이로 방치를 해 왔다는 문제고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문체부가 나서지 않고 체육회가 빠진다면 대체적으로 이것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걸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안 했지만 따로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관

할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유네스코와 여러 가지 협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태릉을 비워 줘야 되는 사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내년 초에 유네스코가 실사단이 나옵니다. 조선왕릉 전반적인 것을 실사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왔을 때 저희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걸 잡아 달라고 제가 유산청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기 빙상장도 그렇지만 한예종 문제도 있고 저희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현 시점상 2027년에 정상적으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 시설 건립은 어렵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까지 좀, 왜냐하면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유네스코와 다시 새로운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유네스코와 직접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의견 개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도저히 개선이 안 될 사항 같으면 빨리 추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정연욱 위원 그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의 인사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적을 받는 것이고 국민적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국 모든 회장급, 지금 당장 이기홍 체육회장도 연임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문체부가 일단 배제된 상태입니다. 먼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정연욱 위원 그래서 아마 스포츠공정위……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전에 아마 연임 제한 문제에 대한 걸 불허하고 그래서 체육회가 거기서 아마 최근에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배제한 법조계, 학계, 스포츠계, 인권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장난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말장난입니다. 대한체육회를 배제했으니까 현직은 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직은 대개 보면 체육회와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김병철 위원장은 이기홍 회장의 특별보좌관이었고 그리고 오진학 위원은 대한체육회 사무차장으로 퇴직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김민정 위원은 41대 회장 선거운영 위원회로 활동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라는 이게 사실상 말장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일단 공정위원회에 대한 건 시정권고를 했는데

거부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승인 거부하고 거의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연욱 위원 대한체육회를 배제한다는 이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가 바로 임박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인원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원 인선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문체부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도 지금 현재 체육계에 쏠린 시선이나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 과정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면 또 다른 어려운 지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이건 단순히 여론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고 문체부가 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체육회 자체는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수사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아마 10월 말 안에 대충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시정명령을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건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연욱 위원 하여튼 좀 분명하게 딱 부러지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고양시 병 이기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JTBC와 저희 의원실에서 같이 취재한 2023년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황제관람 사건은 이 황제관람을 통해서 인사청탁 비리가 이루어진 비리 사건이다, 국고 8600만 원을 유용한 범죄 행위だ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동조 내지는 방조했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JTBC 보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이기현 위원 못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내용은 보고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KTV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기획했다라는 것이 애초 취지였고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저 띄워진 화면처럼 질의를 했을 때 모든 위원님들께 저렇게 보냈겠습니다만 참석자 없이, 별도 청중 없이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녹화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워낙에 본인들이 초청하고 싶었던 분들이 다 안 왔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중 없이……

○**이기현 위원** 사후에 이런 문서를 보내왔어요, 국감 앞에. 허위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중은 없이 한 거지요.

○**이기현 위원** 별도 청중 없이 했다고요? 여사가 관중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도 아마 나중에 온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기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여사가 오신다면 제가 영접을 했겠지요, 저희 일처럼.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이기현 위원**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저 화면에 표시된 네모 안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우리 기조실장입니다.

○**이기현 위원** 기조실장이지요?

기조실장 나와 주세요.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다음 페이지, 저 빨간 점 누구입니까? 청와대에서 파란 점 대통령, 영부인 빨간 점, 의전 행사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저희가 작성하는 양식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내용은 KTV가 해당 이벤트회사에 준 배치도입니다. 이미……

다음 공문 한번 띄워 보실래요.

이미 10월 11일 KTV 원장 내부보고 또 10월 26일 KTV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대통령은 항상 참석자였어요, 대통령 내외.

이 행사에 여사께서 갑자기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왜 갔지요? 부속실 실장입니까? 제2부속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V 측에서는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려고……

○**이기현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체육비서관은 왜 갔어요, 안 가시기로 했다는데? 두 분이 안 가시기로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왜 갔냐고요. 문체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왜 갔어요, 셋이나?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청와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관저……

○**이기현 위원** 청와대 관리를 하고 계셨다고요, 문화체육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제 업무 소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여사님이 오시는지 몰랐고 미리 가 있었는데 여사님이 갑자기 오셨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올지도 모른다는, KTV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고 안 간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리고 또 청와대 행사라서……

○**이기현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줘 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지요?

들어가세요.

유병채 국민소통실장님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날 행사장에 가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 이기현 위원 왜 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저는 문예실장이고 당시 청와대 관리·활용단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왜 갔냐고요, 행사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KTV에서 처음으로 관저에서 야간 녹화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청와대 관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 이기현 위원 청와대 관리·활용 점검이라고 해서 6만 3400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으시고 1급 유병채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전직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 이기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전직 문화체육비서관,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이 그 자리에, 여사님께서 우연히 온 행사에 두 분 다 와 계셨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문화체육비서관님 아까 말씀을 좀 벼벽거리셨는데 문화체육비서관은 부속실장이 아닙니다. 여사님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행사, KTV라고 하는 문화체육비서관이 쳐다도 안 보는 조그마한 기관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두 전직 비서관과 현직 비서관이 다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부에 같이 근무하신 두 분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저는 이것이 인사비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당시 KTV의 하종대 원장은 이 공연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다음 해 불과 두 달 후에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에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하종대 원장 동아일보 출신이지요.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MBC 출신인데 그다음 달에, 다음 해도 아닙니다. 그다음 달에 청와대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언론기관을 다루고 있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영전해서 갑니다. 이분 그 당시 KTV의 직책이 전문임기제 가급이예요. 3급과 4급 상당이었던 분이 1급, 그것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최근에 본인 후배인 신동호 아나운서실장, 김지은 전 홍보국장을 MBC 사장으로 밀고 있다, 내 후배들이라고 하는 설이 MBC 내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최재혁 방송기획관, 그 당시 행사를 기획한 분이 한 달 만에 영전해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선임행정관이었던 정용석은 그 뒤로 장관님께서 임명하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승진파티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이런 일을 저는 전혀 알

지도 못하고 있는 얘기고. 또 만약에 영부인께서 그날 거기로 오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저보고 나오라고. 그런데 그런 사실도 없고, 문화예술실장은 당시 청와대 관리 담당이었기 때문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기현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변명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기현 위원**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갔습니까 안 드리고 갔습니까, 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날 가는 거를요?

○**이기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여사님이 오셨다라는 보고는 들었어요. 뒤늦게 해서 국악인들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KTV가 왜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을 국민의 혈세 8600만 원, KTV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대규모의 공연입니다. KTV는 제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송출하고 취재하는 회사지. 그래서 국정을 홍보하는 회사지 독자적으로 이런 큰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8600만 원 적은 것 같지만 KTV가 쓴 가장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KTV가 왜 김건희 여사를 위증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보호하고 숨기려고 했는지 이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혈세 8600만 원을 들여서 KTV에 있던 임원들이 본인들의 향후에 있을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황제관람을 상납한 그런 비리 사건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국민의힘 진종오입니다.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국 문화 침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 전통문화가 중국 측에 강탈당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중에 한국 무형유산은 20건이고 그다음에 중국 성급 무형유산은 81건입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에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점점 더 우리 문화유산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요. 대외적으로 이게 지정받을 수…… 유네스코나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저 또한 약간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PPT입니다.

2017년부터 중국은 국영방송 CCTV를 동원해서 한국 문화유산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래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릴스 영

상까지 이용해서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 문화 침탈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 올해 열린 제14회, 15회 한일중 문화장관회의 때 혹시 중국 정부에 문화유산 침탈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항의하셨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때 국회 일정 때문에 중간에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화장관회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중국 문화 침탈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약간 미온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이번 회의에서 채택되고 발표된 교토 선언문은 미래 중심 문화교류 강화와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 문화를 자기네 문화라고 현 상황에서 하는데 잘될 것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리 그래도 결국 우리 거는 우리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지정을 해도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약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본의 우리 역사 왜곡 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더 위험한 것이, 중국이 우리 문화유산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또 다른 대응 마련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건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넓혀서 우리도 지정하고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중국이 우리나라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진종오 위원 돌솥비빔밥도 보시면 자국 음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부대찌개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의정부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입니다. 그때 당시 전쟁 후에 고기가 부족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한 부분인데 이런 음식까지도 다 중국이 자기네 음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우리나라 문화공정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저는 문체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마지막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해외 언론 그리고 정부 누리집 등에서 한국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 오류를 접수하고 시정하는 해외 한국 바로알림서비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진종오 위원 그 시정률이, 2016년에는 서비스 시정률이 31.6%,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류 사례가 독도 영유권 오류나 동해 미표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고려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시체로 만든 국이라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역사와 국가 이미지를 계속 손상시키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지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누군가 전담으로 맡아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처 현실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중국이 자꾸만 자기네 나라의,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자기네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그리고 내국인 도시민박제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진종오 위원 3월 4일 문체부에서 내국인 도시민박이, 이제 도시민박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관광 활성화 목표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불법 숙박업 문제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이 매년 1회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결과가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전달되고 있고 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의심업소 리스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1년에 한 번이라면 이 방식으로는 불법 업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횟수와 단속 방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하겠다고 현재 약속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고 제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현재 조금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에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짧게 끝내겠습니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 1년 기간 안에도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기보다 분기별 또는 여행객이 밀집되는 관광 시즌에는 조금 더 문체부가 특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불법, 탈세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원 위원 여수시을 출신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특정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그때 당시에 일단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제왕적인 운영 그리고 결국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이 이끄는 당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사실상 배제하고 선임한 절차가 확인이 됐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면접도 정몽규 회장이 직접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절차상 위반이 확실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도 불법 사실이, 불법적인 절차가, 불공정 절차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겠느냐? 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 들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지난번 TV에 출연하셨던가요, 거기에서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제왕적 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 의지는 지금도 확고한 것이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때 누가 발표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 우리 감사관이 발표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감사관이 발표하실 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불공정 절차를 통해서 감독에 선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감독의 사퇴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부나, 여기서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아마 FIFA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정하게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건 원칙인데 당장 문제부가 해임을 한다든지 감독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FIFA가 인사 문제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걸 지금 공문으로 보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조계원 위원 그 공문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공문 이전에도 결국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스로가 명예

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제가 그때 당시 현안질의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불공정 절차에 의해서 감독에 선임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공정 절차가 아니라고 끝까지 강변을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불공정 절차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사퇴 결단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인들과 국민들이, 대한축구협회가 다시 환골탈태하고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기가 다시 결집되기 위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제왕적인 운영을 해 왔던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아니면 본인의 사퇴 결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더군다나 팬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분명히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요, 지금은. 그래서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안질의나 감사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FIFA에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FIFA에서 공문이 오게 된 과정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난번에 프랑스 축구선수단에 선수단 내부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청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FIFA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항의해 가지고 FIFA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도 끝까지 처음에 얘기했던 소신을 잊지 않고 관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축구협회 감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 감사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해야지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정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대한민국의 축구가 거듭나는 계기,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은 우리 문체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말 중에 처분적 조치를 포함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 처분적 조치에는 정몽규 회장과 집행부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의견도 분명하게 포함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생각이니

까요 그때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장관님께서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을 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일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님, 방금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다시 봐도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다, 문체부에서. 이에 특혜로 확인이 마쳐 된다면 회장 연임 금지 및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 할 수는 없지요.

○**강유정 위원** 과정과 절차가 공정의 핵심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 제 PPT 세 번째 볼게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PPT 보여 주세요.

여기 보자면 이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뒤져 봤습니다.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장소 사용승인은 행사 2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행사가 2023년 10월 31일이니까 20일 전이면 10월 11일까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절차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신청 제출서류도 한번 봤어요. 장소사용계획서, 청와대시설물 보존준수서약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장소 사용승인은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이 5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회신해 줘야 됩니다. 이것 제가 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올려 놓은 거예요. 다른 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KTV가 문체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공문을 발송한 건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 보입니다.

○**강유정 위원** 문제는 이 공문의, 일단 이것 절차가 맞냐는 것에서 동의하세요? 절차 맞나요? 10월 1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 날 보냈어요, 5일 전에. 맞췄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저는 내규나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어서……

○**강유정 위원** 아니요, 이것 절차 위반입니다.

더 문제는 이 공문에 참석자로 대통령 내외 명기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이번에 장관께서 내신 문체부 보도 설명자료를 봤더니 방송 녹화현장 중간에 잠시 격려 차 방문해서 몰랐다라고, 아까 김재원 위원 질문에도 또 몰랐다라고 답하셨는데 이 서류만 봐도 대통령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명과 전면 배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KTV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이건.

○**강유정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대통령 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과거 서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 그렇게 초청을 하겠다고 자기들

이 만든 거지요.

○**강유정 위원** 이걸 승인해 줬다니까요. 승인해 준 게 바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심지어 신청은 10월 31일 날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10월 30일, 31일 이틀로 내 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신청은 하루 했는데 이틀 허가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신청하지도 않은 날짜까지 허락을 했다면 미신청된 사유를 허락한 사유서, 신청변경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신청 변경만 하려고 해도 신청변경서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 이틀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변경서 자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강유정 위원** 있다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있겠지요, 여기는 축구협회 아니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문체부에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자료 다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이게 왜 이틀이 됐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로 변경해 줬어요, 문체부가. 모른다는 말 위증 아니십니까? 문체부에서 왜 모릅니까, 아니면 허위 보도자료 내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강유정 위원** 아니,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철수하는 문제 때문에……

○**강유정 위원** 밑에 계신 분들 아까 그 현장에도 있던데 왜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사용승인을 냈냐고요. 문체부가 내 줬다고요.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을 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강유정 위원** 일단은 발송하신 보도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위이거나 잘못됐거나 무능하십니다.

여사님 이름만 들어가면 프리패스인데, 아까 신청서도 제가 내야 되는 것들 다 나열해 드렸지요. 그런데 간단 개요만 냈어요. 첫 번째, 서류 미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통령이든 여사든 대학생이든 서류 절차 과정이 있으면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 하나의 공문만 딱 내서…… 첫 번째, 서류 미비입니다.

이런 걸 두고 지금 우리가 특권층 유흥이다, 공공재를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프리패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 위반, 왕정 정치의 아주 귀환 같아요.

마지막 PPT 보여 주세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과, 그 부부가 남사당패를 불러서 혼자 독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같이 누려야 될 문화유산을 혼자 독단적으로 독점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문체부의 이틀 사용허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틀 사용허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유정 위원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없고요.

대통령 부부가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가 해야 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해명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참……

○ 강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청와대 재단 관련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 300억이에요. 개방 전에는 어느 정도였나고요? 기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7억~65억 사이니까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리비용이. 심지어 전년 대비해서는 46%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늘렸느냐라고 이유를 봤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46% 더 높여서 300억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관람객 수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재단 저희가 중인 요청했는데도 마지막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리모델링하고 낡은 부분 고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고요.

○ 강유정 위원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질문 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청와대 재단 관리에 있어서 정관을 또 봤어요. 저는 정관만 열심히 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번 청와대 관람을 위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2번 청와대 일원 정비 및 관리, 3번 편의시설 확충, 4번 문화예술사업, 5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청와대 재단이 직접 맡지 않고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전부 위탁 줬습니다. 재단 왜 세웠습니까? 전부 위탁 줬고요.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맡고 죄다 위탁을 줬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재단 이사장도 있는데 전부 위탁 맡길 정도면 이분이 이사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지금 재단은 아마 이사장하고 이사 몇 분밖에 없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거든요. 이건 아마……

○ 강유정 위원 그런데 전부, 그나마 용역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청업체에. 그러면 재단 왜 만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로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정리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FIFA가 우리 축구협회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나 또 국회 현안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협박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문체부 감사가 언제 시작을 했지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승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7월 말.....

○**김승수 위원** 7월 중순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중간결과 발표가 날 시점 즈음해서 뿐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FIFA에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외의 징계 사례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아예 축구협회를 해산시키거나 축구협회의 임원진들을 강제로 변경하는 말 그대로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완전히 없애는 정도의 그런 관여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이지 비리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청문회 출석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징계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FIFA의 이런 경고성 편지에 대해서 우리 축구팬들 또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PPT 좀 넘겨 주세요.

보세요. 보면 지금 월드컵이 문제냐, 이번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없다, 눈앞의 월드컵보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아예 월드컵 안 나가도 된다, 좀 바로잡아라 하는 것들이 축구팬과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냥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이 KTV의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한 국악공연에 대해서 황제관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하는 공연팀들 격려하려 간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황제의전의 끝판 대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언론에서 또 우리 당에서 지적을 하면 단독 외교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초청 과정이라든지 순방 내용들을 보면 말 그대로 황제의전의 끝판 대장입니다. 인도

방문에 있어서 진짜 불과 10여 일 남겨 놓고 갑자기 초청장을 받는 외교상의 굉장히 볼 수 없는 그런 관례가 발생을 했었고요.

인도의 허황후 공원 사업에 국내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사 방문에 무려 한 4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됐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따라갔던 그 수행단을 보면, 얼마 전에 올림픽 참관단을 보면 불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돼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거의 그것과 판박이일 정도로 전혀 순방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돼서 무려 한 40여 명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국립 부산국악원 공연팀의 한 20명 정도가 갑자기 또 급조가 돼 가지고 같이 따라갑니다. 무려 한 60여 명이 이런 사업에 여사가 방문하니까 급급 편성돼서 갔다는 겁니다.

일단 초청 과정을 한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이런 해외순방 같은 데는 한 두 달 이전부터 초청이 옵니다. 사실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장관급, 고위공무원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7월 달에 왔었고 외교부장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체부장관한테 좀 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체부장관이 가는 걸로 협의가 돼 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행사일을 한 10여 일 남겨 두고 인도 정부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해 주면 좋겠다는 초청장이 옵니다. 이게 애초에 고위급 인사를 요청하다 직급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도 갑자기 직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행사를 목전에 두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초청해 달라는 그런 내부적인 요청이 없었으면 인도 정부에서 갑자기 그렇게 격을 높여 가지고 요청이 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요청받고 나 가지고 중요 상황을 보더라도 사전에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비비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초청장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 신청을 하고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국무회의 의결해서 그다음 날 바로 배정 통보가 됩니다. 저도 예비비 신청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예비비가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 아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가 가지고 수행단들을 보면, PPT 빨리빨리 넘겨 주세요. 이 방문단들을 보더라도, 대한체육회 참관단 비단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 비서, 민물장어 양식장, 그런데 똑같습니다. 청와대의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이용하던 디자이너 딸,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요리사, 거기 가서 요리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요리사까지 갑니다. 춘추관장 이분은 김정숙 여사가 의상실 이런 데서 쇼핑할 때 바로바로 결제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갔고요.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경호원이 무려 14명이나 따라갑니다. 국회의장 의전서열이 2등인 두 번째인데 해외순방 갈 때 경호인력 몇 명 가는지 아십니까? 경찰인력 1명 정도 갑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이 가는데 경호인력이 14명씩 이렇게 왜 갑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또 부산국립국악원 공연팀한테 공연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내려옵니다. 전혀 준비가 없었는데 공연 요청이 오니까 부랴부랴 그냥 팀 꾸리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문체부에서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옵니다, 어떤 예산에서 집행됐는지. 갑자기 공연단이 편성돼서 가서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공연장비 이동, 그것 비행기로 이동해

서 거기서 버스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입 예산만 하더라도 벌써 한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성과라고 정말……

1분만 더 주십시오.

앞서 박수현 위원님께서 KTV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김정숙 여사의 뉴델리 방문 성과 홍보로 도배를 합니다. 7월 달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뭐 저리 가라 그러고 그냥 모든 것이 김정숙 여사가 단독 방문한 여기에 쓸려 있습니다. 이 행사가, 인도의 허황후 공원 공사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 한 15억 정도 지원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완공식 때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혼적도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완공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지금 김해에서 자체적으로 또 허황후 기념공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무려 국비, 시도비 해서 한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착공식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행사 같으면 최소한 장관급이라도 인도의 완공식 때 또 김해의 착공식 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절 김해, 인도의 허황후 공원이 이후에 완공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해시장 정도 아니면 문체부의 담당 국장이나 인도의 문화원 정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에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도 휘장을 대통령이 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휘장까지 사용하고 갑니다. 그리고 수행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명, 거기다 공연단 20명까지 다 합치면 무려 한 5억 정도 쓴 것 아니겠습니까? 15억 사업에 5억 정도를 쓰면서 일회성 행사에 간 겁니다.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가장 핵심인데 그것도 예비비 신청 이때는 쑥 감추고 있다가 현지에 가 가지고, 인도하고는 이미 다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인도 정부의 여러 가지 공식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갔다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황실, 황제의전이고 또 황제의전의 끝판 대장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문체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주질의시간인데 박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칫 몇 가지 사실관계를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김승수 위원님의 질의를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우선 초청 날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소위 셀프 초청 그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누차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하지요. 그 자리에서 4개월 후 11월에, 지금 말씀하신 허황후 기념공원 준공식입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꼭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상의 초청이 직접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그렇

게 직접 요청을 하셨고 그것은 논의 주제와 관계없는 것이었는데 직접 요청을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내용은 당시 주인도대사가 쓴 회고록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외교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부장관, 문체부장관이 가게 되는 이런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 것과 별도로 또 계속해서 최고위급을 초청하는 인도 측의 초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인도의 선의를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어려우니 인도의 그런 취지, 요청에 따라서 영부인이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도 측에 그렇게 통보를 했고 인도 측에서 급하게 이 절차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관광하기 위해서 셀프로 초청했다는 것 이런 오해가 시청자들께서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그냥 영부인이 간 것이 아니라 국빈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게 됐고 외교장관과도 면담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타지마할을 보기 위해서 셀프 초청을 해서 갔다면 어떻게 총리와 면담을 하고 장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외교장관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김정숙 여사께 ‘저희가 지난 7월에 환영만찬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부인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인도의 외교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지마할 방문 같은 경우는 어떤 정상이든지 그 나라에 정상회담이 있으면…… 1분만 쓰겠습니다.

초청국에서 당연히 가장 자기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안동 하회마을을 왜 가셨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경복궁을 왜 갑니까?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의 취지는 알겠지만 사실관계까지 그렇게 왜곡하면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의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만 이런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기현 위원** 아니, 간단한……

○**위원장 전재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청와대 5년 있어 봤는데 여사님 가셨을 때 10여 명의 경호원이 따라가고 국회의장은 단 한 명이 간다, 근무해 보시면 다 압니다. 여사님은,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따라갈 수 있고요. 국회의장은 민항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총기

를 소지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탈 수 없는, 항공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해외순방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대통령 해외순방이 매우 중요한 일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정부는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인재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미리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위탁사를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돌연 연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 때문에 5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그냥 허공에 날아갔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계약관계 때문에 아마 미리 지불된 돈들이 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했는지는 국민들께 설명이 제대로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관련 예산 위약금만 5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순방비 관련해서 위약금을 조사해 보면 아마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또 순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예비비로 19억 4000만 원을 신청해서 지난 달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비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순방에 따른 프레스센터 구축 운영 예산 7억을 수의계약으로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제안했고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 말처럼 예비비가 결정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집행한 것도 문제인데 예비비가 결정되기도 전에 수의계약부터 했다는 건 더 큰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순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비비 문제는 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프레스센터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좀 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윤덕 위원 아니, 순방 이유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수의계약을 의뢰한 건 8월 29일인데 예비비 신청하고 의결한 건 문체부가 한 건 9월 20일, 국무회의는 9월 30일에 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 순방 연기 문제로 대통령께 얘기한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없습니다.

○김윤덕 위원 제가 정말 아니길 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세간에 중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또 위약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도 못 하면서, 해외순방 연기 시점이 공천 문제로 명태군 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 김윤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김영선 컷오프하고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 기사 여사한테 여쭤봐요' 이런 얘기들이 논의된 게 18일이고요. 김영선 의원은 18일 날 김해갑으로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 총선 문제가 대통령 해외순방의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당히 심각한 국가 문란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도 그런 문제로 순방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덕 위원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거지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지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 부부께서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미국의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000억입니다. 그걸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 기억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넷플릭스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 김윤덕 위원 대통령 내외가 이끌어 낸 파격적인 투자 유치이고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 정말 대문짝만하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 여사도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 넷플릭스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이 큰 한국의 여러 배우와 감독·작가들을 더욱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 투자 발표 이후에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대통령 부부가 해낸 이 엄청난 성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문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넷플릭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확인이 필요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김윤덕 위원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서 현황 파악을 해 달라 했더니 넷플릭스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작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현재 넷플릭스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최소 80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난 시기에 비교해 보면 평균 8000억이고 4년간 투자하면 냅둬도 3조 2000억입니다. 냅둬도 3조 2000억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 부부가 미국 가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자랑은 다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문체부에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엇박자라고, 국민이 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런 부분은 약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올해만 해도 약 35편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작년에 한 30편 정도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넷플릭스가 냅둬도 자발적으로 하는 투자예요, 이 시장의 필요성, 한국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그걸 대통령 부부가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문체부에서는 이것과 결부돼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체부의 어떤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투자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자료를 가지고 OTT 시장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또 투자 이후에 한국에 가져올 수익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체크해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넷플릭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시간 좀 더 쓸 수 있나요? 마무리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재수 이석하셔야 되지요?

○김윤덕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하십시오.

○김윤덕 위원 장관님, 대통령인수위에서 문체부로 공문을 보내면 공식 문서가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겠지요.

○김윤덕 위원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특히 문체부에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시도별 정책과제 공약에 대해서 준비해서 진행하라라고 공문을 보냈고 이걸 문체부가 전체 과에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봤더니 문체부에서는 시도별 대통령 공약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공약이 관리되지 않지는 않을 텐데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 공약 이렇게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문체부의 공식 답변은 ‘시도별 대통령 공약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14개 시도에 모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진행하다 중단된 게 27건, 진행조차 안 되고 있는 게 17건, 그래서 총 55개 사업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11개, 22%입니다. 서울 1개, 강원 4개, 충북 하나, 충남 하나, 전북 하나, 전남 하나, 경남 2개, 경북 대구 부산 광주 경기도 세종 제주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공약을 임기 내에 반절이나 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공약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장관은 알고 있고요, 문체부는 안하고 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희들도 그것을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간 지금부터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장관님, 굉장히 그 공약 문제에 대해서 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균형에 관련된 건 내년부터 좀 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내년부터요? 임기가 반절이 지난 시점에서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요.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김윤덕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느 지역, 어느 날짜, 어디 지역 유세 때 어떻게 얘기했다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건 22%, 그리고 공약 자체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이미 공식 문서가 와 있고 공식 문서가 하달되어 있고, 이것 공약 별도로 분석해서 관리카드 만드시고요. 이것 집행하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장관님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담당 공무원은 징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참고로 보충질의시간까지, 오후에 이석을 하셔야 돼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장원도 원주 출신의 박정하입니다.

장관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체육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보면 5페이지에 소관 공공기관으로 체육회가 딱 명기 되어 있어요. 체육회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약 한 4000, 거의 4800억 정도……

○ 박정하 위원 4800억, 5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굉장히 거대한 기관이네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박정하 위원 그런데 과연, 장관님 부임해서부터는 아니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동

안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했는지 의문스러운 일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한번 여쭤볼 테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말씀 주세요.

그리고 앞서 정연욱 위원님 질문 주신 답변에 지금 체육회 감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감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령 회계감사, 행정감사 이 정도, 딱 그 정도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정하 위원 대한체육회장이 회장으로서 본인의 선거나 아니면 체육회 내에서의 본인의 영향력을 위해서 품행이 잘못됐다거나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나온 것처럼 도저히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행들도 있었고,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체육회장선거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정하 위원 선거를 위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정관을 자기 몇대로 막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감사 범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감사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내용도 이번 감사에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정하 위원 좀 철저히 쟁겨 봐 주세요.

이기홍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선거를 치른 게 2016년도, 2020년도 그리고 이제 4년이 되는 내년 초쯤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교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 공교로운 일들 생기는 것 이전에 대한체육회장선거가 대충 선거인단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장관님 아시나요? 제가 파악해 봤더니, 옛날에 우리 대통령도 간접선거로 뽑았었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인가 그런 것 있었는데 장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정하 위원 그런 식으로 뽑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관련된 게, 대한체육회장선거인단 구성이라는 게 전국 대학·초·중·고 교사, 국가대표, 일반 선수,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1744개 읍면동 체육회 등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동호인 수백만 명 중에서 선거 1개월 전에 무작위로 2만 3000명을 선정해요. 선정하는 거야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한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선거 일주일 전에 2300명으로 줄여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혹시 이렇게 선거 진행되고 있는 건 장관님은 알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300명 중에서, 여기 저희 문체위원회를 다 선거 거쳤을 텐데 지정선거인이라는 제도는 2022년도에, 선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인지 2022년 12월에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정연숙 위원님 답변 중에, 시도 체육회장은 당연히 투표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시도 체육회장보다 밑에 있는 읍면동·시군구 체육회장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려고 한 건지 어쨌든 이 시군구 체육 단위에서 1명씩,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1명씩 추천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투표권을 주게 돼요, 228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정선거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예, 선거인단. 그러니까 2300명 중에서 228명이 무조건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10%가량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여기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각 선거구에 유권자의 10%를 무조건, 무조건 10%를 내 사람으로 갖다 끊어서 선거한다 그러면 여기 안 되실 분이, 선거 걱정하실 분들 없을 거거든요.

체육회가 이렇게 선거하고 있는 것 문체부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번에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번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박정하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놔두거나 그냥 체육회가 알아서 하게끔 하셨던 건가 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이 문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하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다 고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정하 위원 정관을 문체부에서 관리감독, 인정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선거에 관련된 건 승인받지 않고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 박정하 위원 선거 관련한 것은 승인도 없이 그냥 진행된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참에 이것도 좀 제대로 고쳐 봐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래서 앞서 있었던 것,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유권자 선거인단의 10%가 넘는 비중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결정적인데 그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있었던 2016년도 선거에, 이때도 정관을 바꿨습니다. 후보 등록서류에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제출하는 거겠지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본인 서약서로 고쳐 버려요. 그래서 이기홍 현행 체육회장님이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전과 경력에 대해서 징수해 버리고 투표를 해요. 이런 일도 문체부에서는 모르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 박정하 위원 두 번째, 2020년에 또 정관을 바꿔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임기 만료일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또 똑딱해 가지고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회장은 또 공교롭게 비상임 임원으로

해 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비상임 임원이 어떤 회장선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 등록 의사만 사무처에 신고하면 된대요. 나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만 하면 그전에 있었던 정관처럼 회장직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연임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들도 선거에 저기 하면 직을 그만두거나 직무정지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 나간다고 신고만 하면 그냥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그 당시, 2020년 당시에만 해도, 이때는 아마 체육회하고 문체부하고 정관 관련해 가지고 좀 시비가 있었나 봅니다. 8개월 동안 총 6번이나 정관 변경요청서를 계속 제출하고 실랑이를 벌여요. 그렇게 해 오고는 결국에는 2020년도에 이 지정선거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의 선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감사를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회계감사, 행정감사 이런 데 그치지 마시고요. 과연 대한체육회장이 현재 대한민국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공적으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시고 1년이 되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있자 보니 화가 치밀고 개탄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짜 KTV 국악공연 모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는…… 제가 알았으면 갔지요, 그 자리에.

○임오경 위원 그러면 무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 10월 초에 취임하시고 10월 31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출속으로 신청하고 승인한 것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장관님, 이 청와대 관저에 관련돼서 장소 사용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허가 신청 기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까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이 20일 전이라고……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적으로 장소 허가 신청, 20일 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 **임오경 위원** 하루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운영계획은 1년 전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날짜와 장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행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황성운 기조실장이랑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KTV에서는 계속 무관중이었다, 문체부도 모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실제로는 관중이 없이 녹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요.

○ **임오경 위원**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날 여사님이 늦게 오셨다고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 **임오경 위원**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모르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못 들으셨어요? 못 봤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는 그때는 관심이 없을 때니까……

○ **임오경 위원** 장관님,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한다고 했던 방송을 못 봤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못 봤으니까……

○ **임오경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내조만 하라고 하십시오. 왜 이쪽저쪽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런 지적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냥 선의로 봐 주시면 좋겠어요. 국악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늦게 가서 격려를 하고 왔다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KTV 기관 질의할 때 또 하겠는데 여기서 오늘, 이번에 문체부가 이례적으로 사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장관님의 지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임오경 위원** 용산의 지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안 그래도 제가 이것 조금 얘기를 했어요, 왜 문체부 이름으로 해명자료를 냈는가. 그러니까 KTV가 해명자료를 내야지 이런 지적은 했습니다만……

○ **임오경 위원** 제가 이 해명자료를 보면서…… 거짓말이잖아요, 이것.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신영희 국악 명인에게 인사하러 들렸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어디 동네 아줌마입니까? 동네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가 길 가다가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신영희 국악 명인이 공연한대’ 그래서 들르는 동네 아줌마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두 분 관계가 친밀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친밀하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 마음대로 공연 유치하게 하고 무관중으로, 단독으로……. 이건 유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만의 파티를 즐긴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여기 국회의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체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해명자료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청와대 관저에서는 공식행사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서 질의에 있어서 JTBC, KTV 국악공연 보도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문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를 냈고요. 겁박도 이런 공개 겁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임오경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해명 낸 것 자체를……

○임오경 위원 해명 보도에 있어서 장관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체부 이름으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즉각적인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허위사실 보도에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입니까? 일어서세요. 이것 장관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해명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이것 문체부 감사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해명자료 누가 냈습니까? 누구 짓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KTV에서 작성은 해서, KTV는 출입기자가 없기 때문에 통상 소속기관에 그쪽에 해서……

○임오경 위원 아, 문체부가 KTV, 산하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보도를 해 줍니까? 이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본부 이름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국민소통실장님, 산하기관들의……

○김윤덕 위원 잠깐만요. 태도가 왜 그래요, 태도가?

○임오경 위원 산하기관들의 요청을 받아서 문체부가 그것을 언론에 보도해 준다, 해명 보도를 해 준다, 맞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지금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KTV에 따로 출입기자가 없어서 본부 출입기자에게 문체부 본부가……

○임오경 위원 KTV에서는 보도자료를 단독으로 못 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지금까지는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 모든, 한 70개가 넘는 산하기관에서 요청 오면 문체부가 모든 것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 줍니까? 지금까지 유병채 실장님은 그렇게 일해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저희 대변인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임오경 위원 앉으세요, 일단.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208건의 해명 보도자료를 냈었지만 법적 조치 운운한 적이 없었고요. 박근혜정부를 볼 때도 182건 중에 1건이 있었는데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문체부는 왜 허위사실임을 못 박아 두고 즉시 정정해라, 응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유병채 국민소통실장님에게 다시 질의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인정했네요, 문체부는. 그렇지요? 지금 KTV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임오경 위원 허위사실이라고, 이것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것을 받아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아까 제가 읽어 드렸는데 즉각적인 정보도에 응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허위사실 보도에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답변해 보세요. 무엇이 허위사실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참석하셨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오 일 안에 출속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 부분은 KTV가 준비를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준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 절차 과정에 있어서 하루 요청했는데 이를 승인해 준 게 누구입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다 답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글쎄,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논의를 하다가 당일 날 신청을 늦게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것 유병채 실장님의 지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어떤 것 말씀하시는……

○임오경 위원 승진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매번……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처음 말씀하는데 아니, 용산 갔다 문체부 왔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불 들어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거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석열 정부에 앞장서서 문체부에서 선거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이 질문 처음 합니다. 다 알면서 처음 합니다, 유병채 실장님한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아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임오경 위원 그리고 자리가 그렇게, 승진이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PT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앞장서서 일을, 행동대장을 하면 다 승진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용산 가셨다 또 문체부로 왜 오십니까? 그냥 계속 용산에 계시지. 거기서 다른 데로 승진하셔서 가셔야지 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자리 차지하고 또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장관한테 승인도 안 받고 보도자료를 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장관님, 장관님 혀락도 없이…… 역대 정부도 이런 법적 조치 취한다, 말만 했지 없었습니다. 운운만 했지요. 그런데 장관님 승인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실장 권한으로 보도자료를 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이 팩트는 KTV가 준비했고 초청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가지 않았고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서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갔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모르면, 실장 권한으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보도자료는……

○임오경 위원 이게 장관님 권한인 거지요. 모든 책임은 장관님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저한테……

○임오경 위원 어떻게 실장들이 장관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보도자료를 냅니까, 보고도 안 하고?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임오경 위원 그러면 장관님의 무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무능한 것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임오경 위원 지금 실장이 장관님한테 승인을 안 받고 보도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뭐 그런 보도자료는 꼭 일일이 다 결재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김윤덕 위원 제가 한마디……

○이기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기현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오?

○이기현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 유병채 실장 위증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TV가 보도자료를 낼 수 없어서 문체부가 그걸 받아서 냈다? KTV가 이미 이 사건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정리해 가지고 문체부가 다시 냈어요. 이렇게 앞에서…… 다른 사건 관련돼서 이미 KTV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KTV가 출입기자가 없어서 보도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 위증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민소통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제출, 본부 명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장 전재수 아니아니, 그러니까 KTV에 출입기자가 없어서 대신했다……

○이기현 위원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 말이 바뀌잖아요, 실장님. KTV에 출입기자가 없어서……

○김윤덕 위원 아니, 실장님.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윤덕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윤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실장님, KTV가 기자가 없어 가지고 그것 가져오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산하기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내가 보니까 용산에서 온 힘 있는 사람이? 어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감사장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통상적인 절차를 이번에 따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덕 위원 통상적인 절차가 산하기관에서 가져오면 그냥 내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요.

○김윤덕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절차를 그렇게 밟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덕 위원 여기 보세요, 실장님. 산하기관에서 의사를 가져오면……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 판단을 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이 판단하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러니까 JTBC의 2차 보도에서 영부인께서 처음부터 참석을 하셨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KTV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위원장 전재수 실장님,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오?

○양문석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국민소통실장 앉아 주세요.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위증이 즉각적으로 증명이 되면 바로 고발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전재수**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야가 똑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대변인 실과 협의된 내용만 문화부가 한다’ 그다음에 ‘KTV는 기자들이 없어서 문화부가 대신한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까지 KTV는 보도자료를 뿐만 아니라 구조예요, 단독으로. 그렇지요? 문화부가 다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KTV 보도자료를 핸드폰에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온통 보도자료야, KTV가.

그리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자료를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유병채 소통실장이 여야 위원들 앞에서, 위원장 앞에서,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프로토콜이라고 대놓고 전문용어로 사기 쳤다는 말이에요. 전문용어로 사기를 쳤어요.

그다음에 수없이 늘려져 있는 사건, 특히 이번 김건희 상납 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V가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KTV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V 자체가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관은 KTV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장관께서 KTV는 언론의 기능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죽을 맞춰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실무자가, 이에 한해서는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맞지요, 제 말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저희가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도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존중하면서 그 질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때 위원장님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가만 있어 봐요’라고 말씀하신 건 조금, 잠깐 실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저희가 위원장께 하는, 말 그대로 의사진행에 관한 것임을 저희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장관께서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신 실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민소통실장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가 전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고발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검토해 오라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오후에 KTV 관련한 질의들을 이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위증 사실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것은 통상

적으로 종합국감 때, 그 전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해서 종합국감 때 통상적으로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KTV 보도설명 자료가 지금 9월 11일 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1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1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KTV에서 보도자료를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병채 실장님, 잠시만 일어나 보세요.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실장님의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제가 그날 보도자료가 나갈 때 이 부분을 대변인실하고 같이 이것을 문체부 명의로 내야 되느냐 아니면 KTV가 내는 것이 맞느냐 그런 실무자들……

○**위원장 전재수** 실장님,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실무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화 관련 기자들에게 KTV가 잘 전파가 안 되니 본부 명의로 같이 해서, 이번에는 본부하고 KTV 담당자가 같이 포함이 돼서 배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뭐 이것을……

저도 지금 좀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KTV가 항상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본부가 대응을 했다 그 부분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실장님, 여기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오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금방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기회를 안 드렸으면 실장님 그냥 위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제가 처음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KTV에 출입기자가 없어서 문체부가 대신해 줬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국정감사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에 맞게끔 한 말씀 한 말씀의 무게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정리된 입장을 발언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

○**임오경 위원** 이건 공식적인 사과를 한번 받고 저희가 가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

희가 종감 때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위원장 전재수 조금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유병채 증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전재수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께서 좀 더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오후라도 본인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진솔되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 문제 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얘기, 너무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 정리를 하고 보충질의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전의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마지막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양문석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지요.

○양문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한 전문용어를 써 가면서 프로가 치는 사기에 가까운 발언이었던 말이에요. ‘출입기자가 없어서 본부가 대신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토콜이 있어서 대변인실과 협의된 내용을 KTV 대신 본부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KTV가 내는 게 맞냐 우리가 내는 게 맞냐, 이번에는 우리가 배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백 사람이면 백 사람 KTV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구나 그리고 KTV는 문화부가 대신 내는구나 이렇게 다들었잖아요. 나만 그렇게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KTV 홈페이지 가 보세요. KTV 소식 안에 공지사항, 보도자료, 언론기고, 채용정보, 보도자료가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렇게 슬쩍 넘어가는 상황 하나로 넘어간다고요?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여기 와 가지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전문용어로 사기 치는 저런 실장을 그대로 허용을 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

○위원장 전재수 유병채 국민소통실장,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선서를 한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출입기자가 없었다’ 그동안 그렇게 프로토콜상 절차와 과정이 그랬다’, 이것은 금방 드러난, 지금 실장님 말씀과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서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았고 국정감사 첫날에 위증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분명하게 사과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보도자료 배포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들은, 제가 보고받은 그런 정보들이 저에게

지금 입력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 그런 오해와 부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서 위증 논란까지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추후에,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마치 확신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통해서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시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매듭지어야 돼서 30초만 제가……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정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오후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등 총 네 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오경 위원님께서 오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9월 17일 이후 9월 말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윤병세 증인이 국정감사의 무게감과 염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윤병세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으나 10월 24일 종합감사 때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종합감사 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이민석 KOK 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진은자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총 네 분입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형배 위원께서 신청하신 양민석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양민석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철혁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장철혁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욱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욱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유정 위원께서 신청하신 최준원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최준원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은실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박은실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석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성석주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문석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민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이민석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은자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진은자 예.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민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민석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민석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증인 양민석

증인 장철혁

증인 정욱

증인 최준원

○ **위원장 전재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형배 위원** 양민석 증인님, 장철혁 증인님, 정욱 증인님, 대표님들 세 분 고맙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지요? 대한민국 K-컬처의 중심에서 이걸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양민석 대표님, 블랙핑크의 안무 영상이 9월 기준으로 해서 유튜브 조회가 17억 회를 넘어섰다던데 맞습니까?

○ **증인 양민석**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 정도 되면 대표님 회사에, YG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다?

○ **증인 양민석** 정확한 유튜브 회당 수익내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민형배 위원** 대략요.

○ **증인 양민석** 대략으로 그래도 수억 원 상당은 될 것 같습니다.

○ **민형배 위원** 1억~9억 원 정도?

○ **증인 양민석** 예.

○ **민형배 위원** 그중에 안무를 맡은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갑니까?

○ **증인 양민석** 안무를 맡은 분들에게 따로 저희가 배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안무는 케이팝에서 얼마나 중요한 흥행요소입니까?

○ **증인 양민석** 비주얼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민형배 위원** 매우 어느 정도?

○ **증인 양민석** 많이 중요합니다.

○ **민형배 위원** 흥행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지요?

○ **증인 양민석**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 **민형배 위원** 장철혁 대표님하고 정욱 대표님도 잠깐 마이크를 좀 받아 보시렵니까.

이렇게 안무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안무 때문에 얻은 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증인 장철혁** 안무 때문에……

○ **민형배 위원** 안무의 수익효과, 측정을 잘하기 어려운가요?

○ **증인 장철혁** 수익효과를, 사실은 그것만 빼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민형배 위원** 혹시 정욱 대표님 측정해 보셨어요?

○**증인 정욱** 위원님, 따로 측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케이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지요?

○**증인 정욱** 중요한 요소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 방송 화면 한번 봐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노래는 지적재산인데 춤은 아직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한 번 계약을 해서 안무저작권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계약관행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증인 정욱** 저희는 창작자인 안무가님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여쭌 건 한 번 계약으로 일괄적으로 그 권리를 그 계약 안에 다 담아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요?

○**증인 정욱**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세 회사의 실제 계약서를 개인정보 다 가리고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별도의 추가대금 지급 없이 본 건 안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러이런 경우 빼고는 다 해서 거의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의 문제가 안무가를 독립된 분야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욱** 그런 각도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신 말씀대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고 개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정욱 대표님네 계약서인데 여기 안무의 공급가액이 200만 원이에요, 이 계약서, 다른 계약서도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그 안무의 저작권을 온전히 다 대표님네가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계약서에 문제 없습니까? 공정하게 돼 있습니까?

○**증인 정욱** 제가 그 계약서를 직접 보고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민형배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증인 정욱** 실무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돌아가서 한번 잘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양민석 대표님, YG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지요?

○**증인 양민석** 예, 저희도 댄서들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대표님도 잘못 나오신 건가요? 직접 계약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세요?

○**증인 양민석** 세부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금액 등을 알지는 못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모르시냐고.

○**증인 양민석**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용허락계약을 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서요, 이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모르고 어떻게 기획사를 운영하시지요?

장철혁 대표님 혹시 아세요? 지금 이게 장철혁 대표님네 건데 아십니까, 이 계약서에 어떤 게 들어 있는지?

○**증인 장철혁** 계약의 세부 내용까지는 저도 완전히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맺거나 성명표시권을 제한하거나……

말씀하세요.

○**증인 장철혁** 그 부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좀, 여기 세부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을 텐데요. 세 분 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케이팝에서 안무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신동욱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서 안무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관돼 있는 다른 종사자들하고 계약 절차를 제대로 지키겠다, 독소조항들을 배제하겠다 이런……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양민석 대표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서요. 그러면 대답도 못 하실까요? 불공정 계약이 없도록 하겠다, 계약 절차를 지키겠다.

세 분 다, 세 대표님들 다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안무창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사자들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좀 해 주시라고.

○**위원장 전재수** 양민석 증인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발언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더 잘 들리고 발언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창작자가 저작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저작권료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안무창작자를 포함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양민석**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안무저작권에 관한 이슈가 지금 문화부 내의 저작권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 이슈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 제작자 단위에서도 안무 저작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 대표님.

○**위원장 전재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철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무가 케이팝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중요요소라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문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나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욱** 앞에 타사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요,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정비가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세 분.

장관님, 지금 이 영역의, 이 부문의 표준계약서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 나왔는데 준비를 좀 잘하셔서 불공정거래가 지금 까지 어떻게 있었고 표준계약서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 대안을 꼭 좀 마련하셔서 저희 국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행처럼 그동안에 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계약에 그냥 전체를 다 자기네들 책임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면 일단 안무자들이 신탁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쓰여질 때마다 음악처럼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를 다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연구는 다 돼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곧 발표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곧 될 거고요.

저작권 문제는 연초부터 사실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수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민형배 위원 지금 한 회사의 경우는 안무비 700, 시안비 200, 수정비 50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기획사에서는 지금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안무를 비롯해서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불공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다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창작자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 우선 그런 분들이 창작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입법은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희들이 그건 국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계의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동안 관행처럼 해 와서요 그런 게 고쳐져야 할 때가 된 거지요.

○민형배 위원 종인으로 나오신 세 분 대표님들도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국회에 오셔 가지고 다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종인 장철혁 예.

○민형배 위원 지금 위원장님, 시간을 어떻게 주신 겁니까?

○임오경 위원 3분 자기 것에 다음……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절반만 쓰고 끊을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계시네요.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시을 지역 조계원 위원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연극, 국악 등 8개 분야별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 예술감수성과 적성 개발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교육청이 협조하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돼 왔는데요. 최근 그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면서 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박은실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난 25년 동안 진행해 온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은실 나가서 발언……

지금 현재 저희 학교예술강사 예산이 지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고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2025년도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지금 수차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역 이관이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큼 지역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박은실 올해 2024년에 일부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2025년에는 조금 더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쪽에서는, 사실상 예술강사들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편성된 과정이 아니고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지역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정부가 강사료 50%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이관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실제로 부담이 된 것은 약 22억 원이 정도만 늘어서 수행이 됐습니다. 참담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유인촌 장관님께서 ‘예술강사 부분은 사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다 하게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예술교육진흥원으로 다 모아서 해 오고 있다.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이 지난 20년 동안 운영해 온 건데 그러면 장관님의 답변처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박은실 그동안은 사실상 고용 일원화 주체, 고용의 주체, 계약의 주체가 2021년부터 진흥원으로 됐고요. 그 전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실제 고용하는 것은 지역별 운영단체 혹은 저희가 광역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재단에 있는데 거기서 맡아 하기도 하고, 운영 과정이 조금씩 변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교육진흥원이 5000명 강사들을 직접 계약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21년부터라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참고인 박은실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또 유인총 장관은 ‘그 외 다른 예술교육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기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늘봄사업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진홍원의 지난해와 올해 사업을 비교해 보면 학교 관련 사업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진홍원 차원에서는 추가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은실 학교 관련 예산이 진홍원만 삭감된 건 아니고 정부재정 기조에 따라서 학교에 가던 국고 예산들이 전부 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남은 게 아마 진홍원 예술강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이러한 상황을 맞아서, 저희가 학교예술강사 사업 외에도 사회문화예술 사업이나 학교 밖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예술강사들을 우대하여서 예술 어울림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들에 최대한 예술강사들을 수용해서, 우대하여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학교예술강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방식과 학교 밖에서 하는 수업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이나 역량개발 사업을 저희가 60여 개 이상의 연수 체계를 마련하여서 이 연수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그런 역량 강화, 역량 전환, 우리 정책 안에서 수용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기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이관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고를 확보하라고 요구, 공식 의결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은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아마 국고를 좀 증액하라라는 그런 결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개별 교육청별로 필요하시다면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밝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해에도 4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22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이관이. 실제로는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추진 안 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박은실 사실상 올 초부터 문화부, 저희 정책국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 과정들을 거쳤고 저희도 개별 교육청들을 지금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추가로 더 이관이 될 수 있다 이겁니까, 금액적으로 지금 삭감된 금액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참고인 박은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조계원 위원 재량사항이 아니시겠지요?

○참고인 박은실 예, 국고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최대한 예술강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기관에서 정책사업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성석주 예.

○ 조계원 위원 거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됐지요?

○ 참고인 성석주 예, 맞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당시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면 문체부에서부터 시작됐나요?

○ 참고인 성석주 문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 참고인 성석주 2005년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담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 참고인 성석주 2008년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2009년 교육부와 MOU 체결로 지방교육재정 매칭이 시작되었습니다.

○ 조계원 위원 매칭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요?

○ 참고인 성석주 예.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학교나 학생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 참고인 성석주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 90점 이상이고요. 참고로 23년 같은 경우는 92.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부 예산이 50%나 삭감이 됐는데 올해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참고인 성석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고가 삭감됐습니다. 그 결과 예술강사 수업이 31% 줄어들었고요. 예술강사 소득은 연 930만 원에서 12개월 나누면, 월평균 따지면 78만 원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예술교육의 약 40%도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계원 위원 정리하자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술강사들도 최저임금의 30% 정도밖에 소득이 없는 상태네요?

○ 참고인 성석주 예, 맞습니다.

○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즉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이관이 안 되고 있지요?

○ 참고인 성석주 예, 저는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관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예산만 줄어들고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 고용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임의로 사업을 이관받을 수 없습니다. 말만 이관이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정부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서 살아갈 토대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조계원 위원 앞서 지적했듯이 올해 예산 삭감 후에 일부 시·도교육청만 2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년 예산안이 알려지자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

부가 예산을 책임지라고 촉구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노조에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참고인 성석주 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현재 책정된 예산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원 위원 증액할 의지가 없다 이거지요?

○참고인 성석주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은 없어지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동안에 문화예술교육이 사교육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성석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5년 동안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표방하면서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대폭 확장해 왔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몰리겠지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예술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BTS 같은 한류 스타들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아까 예술강사들 사업 관련해서 교육사업을 늘봄사업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성석주 예술강사 수업은 교과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늘봄은 방과 후에 진행됩니다. 교과수업을 없애거나 부실하게 만들고 방과 후를 강화하겠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수업은 교과수업대로 늘봄은 늘봄대로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봄 이야기를 하는 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술대학 학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술강사 사업을 대학에 맡길 것처럼 하는데 정부가 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불만을 막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계원 위원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예술강사 수업은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만 방과 후 수업은, 늘봄학교는 거기에 신청한 학생들만 혜택을 보게 되지요?

○참고인 성석주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물론 늘봄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저도 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전체 학생들이 받는 문화예술교육에 들어가는 게 먼저 원칙적으로, 그게 정립이 기본으로 돼야 되겠지요?

○참고인 성석주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정부는 현장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아이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증대시키고 전국 방방곡곡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역량 확장을 위해 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참고인 성석주** 예술강사 제도가 시작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정도 되었으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청년이고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강사는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25년이 되었는데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교육의 수혜자인 우리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내년에 오시는 거지요? 내년에 또 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물음에 우리 예술강사들은 차마 대답을 못 하고 그냥 학교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술강사들은 예산 삭감이 되기 전에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 깎으면 이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살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교육청으로 이 사업을 넘기겠다는 것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되어야지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우리가 먹기 싫으니까 너희들이 먹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순리에 맞게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장관님께서 지난 2008년 10월 15일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말씀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당시 장관님께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5000명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장관님의 말씀이신데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사실상 이 문화예술교육을 폐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좀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예술강사 초창기부터 제가 관여했던 사람이고요 체육강사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체육강사는 지금 전부 교육청 소관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는 그동안에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여태까지 왔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뭐 어떠한 정부도 계속 이런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국고에서 항상 20.7%인가 고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예산 얘기하면 기재부의 입장은 교육재정이 충분하다, 지금 돈이 너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맡아야 한다가 일관된 주장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필을 했었고 올해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학교 예술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사실 이번에도 경기도교육감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변화가 올 것 같다, 책임을 좀 졌 줘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경기도 예술강사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안타깝고, 물론 중앙정부가 다 관리하면 좋을데 어려운 지점은 뭐냐 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술교육진흥원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느 학교에 몇 사람이 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약은 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자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예술교육을 특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늘봄 얘기한 것은 혹시 이런 경우로 피해를 받는 예술강사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늘봄 교육에서라도 전부 다 충원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예술강사를 돋자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전국의 교육감님들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예산 문제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재부 입장은 내년부터 예술강사 예산은 0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해 저희한테도 또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물론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교육부가 맡는 것도 어찌면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넘기기식으로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삭감해 버리고, 대책은 세우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뭐,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시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계원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장관님께서 해 오신 무려 50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교육강사가 줄지에 지금 생계 위협부터 교육 본연의 일까지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대책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교육부 소관으로 일을 하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책임을 쳐 주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과정상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볼 거고요. 물론 예산에 관련돼서 더 협의할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겠지만 작년에 깎였고 올해 또 깎였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원상회복이나 이 예산 늘린다는 건 지금 현재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재부의 입장인지, 저는 사실 유인촌 장관님의 생각도 기재부의 입장과 같은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했지요. 이번에 80억인가 얼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말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없애는 것도 정말 열심히 협의를 통해서, 이것 다 갑자기 올해 정말 0원을 만들면 현장에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라도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재정으로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생기면, 지금 그 외에 예술강사의 수요는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늘어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기존에 하던 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사실은.

좀 길게 얘기하면 강사라는 것도 떼고 정규 교사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교과목에서, 제가 교육부하고도 늘 얘기해서 예술과목을 정규 교과과목으로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해도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직 교사들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강사라는 타이틀도 떼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제도 유지된다면 저는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을 거쳐서 예술강사 자격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까지 저는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장관님의 말씀과 달리, 문체부에서는 5년 주기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처우개선 및 학교 협조 제고를 통해 예술강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위원회를, 오히려 장관님이 부임하고 나서 관련 위원회 자체가 꾸려지지 않고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위원회를 소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강사 문제는 끊임없이 교육부하고도 많이 회의를 하고 저희 부처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하여간 좀 답답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교육청을 좀 많이 설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교육재정에서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문화영토를 넓혀 가고 있는 건 K-콘텐츠, 한류 덕분이고 그 한류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교육이 바로 문화예술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생계를 갑자기 위협하고 이분들의 삶의 보람과 궁지를 없애 버리는 이런 조치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육부와 협의 그다음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련 예산을 잘 복원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고 그 사이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만약 예산 확보가 되면 교육청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 나눠서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증인을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합시다.

○임오경 위원 먼저 엔터사 3사 대표님들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터사 대표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음반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첫 주 판매량인 초동 판매량인데 최근에 엔터사들이 초동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혹시 음반 밀어내기라고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자사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발매되면 회사 차원에서 앨범을 대량 사재기해 허위로 초동 판매량을 늘리고 이후 팬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음반 밀어내기를 한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것에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나가서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 그런 일이 나오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임오경 위원 SM 장철혁 증인님, 이것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철혁 음반 밀어내기……

○임오경 위원 예.

○증인 장철혁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저희는 회사와 유통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음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저도 회사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은 잘 검토해 주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팬 사인회 랜덤 포토카드 판매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마케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의 앨범을 구매하기도 하고 한 팬은 1500만 원의 빚을 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은 아이돌대로 팬 사인회 출연을 강요받아 피로가 누적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위버스 최준원 증인도 나와 계시지요?

○증인 최준원 예.

○임오경 위원 오늘 하이브 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십시오.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증인 최준원 시장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임오경 위원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증인 최준원 위버스는 레이블과 팬분들 사이의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각 레이블의 판매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임오경 위원 제가 이게 정상적이나고만 물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증인 최준원 그 부분이 정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추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부분은 팬들을 우롱하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토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어서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앨범을 구매하기도 하고 한 팬은 1500만 원 빚을 진 사례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런 피로 누적도 있다, 저는 3사 대표님들 오늘 잘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랜덤 포토카드 판매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음반 하나에 100종이 넘는 포토카드가 출시되고 이런 포토카드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음반은 한 장에 2만 원인데 동봉된 포토카드는 비쌀 경우 한 장에 10만 원, 팬 사인회의 한정판 포토카드는 5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해요.

앉아 주셔도 됩니다.

이런 팬 사인회의 랜덤 포토카드 이벤트는 밀어내기한 음반 물량을 다 판매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음반을 구입한 소비자는 팬 사인회에 한 번 가려고, 포토카드 한 장 얻으려고 똑같은 음반을 반복 구매하기도 하고 또 포토카드를 제외한 음반은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3사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욱 대표님부터 답변……

○증인 정욱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팬 사인회 등의 이벤트는 사실 도소매처가 주관하고 관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자세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한 문제들도 위원님 지적 잘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판매입니다. 첫 주 판매량인 초동 판매로 인해서, 엔터사들이 초동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유통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3사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엔터 3사에서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대표님들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증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화면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쓸데없는 소비 조장이자 자원 낭비, 탄소 배출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을 지금 올린 이유는 하이브는 지난 4월 당사는 ESG 경영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면서 친환경 앨범 제작을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배출이 ESG 경영의 실체일까요? 하이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ESG 경영?

○증인 최준원 예, 하이브가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엄청난 쓰레기 배출이 ESG 경영의 실체인데 이렇게 합니까, ESG 경영 사업을?

○**증인 최준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업계에서 앨범의 유통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CD들이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플랫폼 업체에서는 어떤 CD를 제거한, 저희 같은 경우는 위버스 앨범이라고 부르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음원을 바로 휴대폰 앱에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의 관계된 분들도 그쪽 방향에서 좀 더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포토카드를 제외한 음반은 다 버려지게 되면서 하이브에서 ESG 경영을 실천한다고 해 놓고 현장에서는 엄청난 쓰레기 배출로 지금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 팬 사인회 등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자 당첨자들만 음반을 결제하고 탈락자는 음반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팬 사인회에 가지 못해도 음반을 무조건 사야 하는 우리 현실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3사 엔터 대표님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음반시장의 불공정 유통행위로 인해 팬들이 입는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음반시장 거래질서에 대해 문체부의 실태조사 및 개선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콘진원에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음반 판매 회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수사 의뢰까지 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의지할 곳이 결국 문화예술, 스포츠였습니다. 그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준 것은 우리 케이팝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앞에는 케이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엔터 3사 대표님들에게 국회에 그래도 이러한 기회로 인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들 그 현장에 계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 또 국회에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욱**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사실 저희 업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바뀌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장철혁** 정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엔터사들의 수입이 아마도 절대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데요. 국내외에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 포함해서 케이팝 팬들한테 건전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개선점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양민석**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두 대표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저희 음악산업이 지금껏 우리 아티스트들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나 성장세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음악산업도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주신 지적, 좋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들의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버스컴퍼니, 아이돌 굿즈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증인 최준원** 예, 아이돌……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머치(merch)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강유정 위원** 굿즈 판매하시는 것 맞지요?

○**증인 최준원** 예, 굿즈, 머치를 판매하는 것도 저희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강유정 위원** 상당 부분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대 청소년들의 구매 비중이 매우 높지요?

○**증인 최준원** 저희가 플랫폼사로서 고객의 연령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는 않아서 연령대에 따른 정확한 비율은 모릅니다만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강유정 위원** 그런데 지난 8월에 10대 청소년 구매자들을 비롯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공정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연령대에 대해서 좀 소팅(sorting)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과태료를 포함해서 제재도 받았지 않습니까?

○**증인 최준원**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지요? 왜 받으셨습니까?

○**증인 최준원** 저희가 작년에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첫 번째,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품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강유정 위원** 제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위버스가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점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조금 억울하실 수 있는 건 위버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인데요. 위버스, SM이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 안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수많은 분들 중에 상품 개봉해 보고 반품 안 해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당연히 열어 봐야 반품할 만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사유더라고요.

또 상품을 개봉하는 걸 내가 촬영해야 돼요. 내가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가 있습니다를 보내는 사람이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낸 사람이 촬영해서 보낸 건 받아 본 적 있거든요. 제가 반품을 하기 위해서, 혹은 물건을 받는 소비자인데 그걸 제가 촬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요소들로 과태료 받은 겁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작년 한 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입니다. 맞습니까? 하이브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이에요.

○증인 최준원 예, 저……

○강유정 위원 21년부터 24년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총 1조 2000억 벌었습니다.

○증인 최준원 위버스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다르고요. 위버스는……

○강유정 위원 제가 확인한 숫자는 1조 2000억인데요. 과태료 얼마 내셨습니까?

○증인 최준원 300만 원 좀 넘게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조금 이것 수학을 해 봤더니 0.000025%, 0이 4개나 들어가요. 0.000025%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하루 배송도 많은데 이것을 주문하고 나서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더라고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혹시 제가 뭔가 문제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10대 청소년처럼 오해받을까 봐 전부 다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오죽하면 이걸 다 영상을 촬영해 놨어요. 개봉, 언박싱이라고 하지요. 이걸 이렇게 해야만 반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렇게 열었는데 제가……

(의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제가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자마자 이 염 자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평범한 소비자가 이걸 사서 저처럼 촬영을 해서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반품이 요즘 안 되는 겁니다, 위버스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고.

이게 의류 쇼핑뿐만 아니라 요즘에 반품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란이 뭐인지 아시지요, 단순 변심도 가능해요. 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단순 변심도 청약철회에 있어서 아무런 저항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게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덤에 대한 갑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반품하도록 만들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죄라고 읊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 이 갑질이 여전한데…… 2019년에도 공정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컴팩트디, 그리고 와이지플러스 등에 또 3100만 원 부과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왜 개선이 안 되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위버스 속을 열면서 아이돌이, 아이돌 굿즈 갑질이 이제 더 심해졌다라고 오히려 팬들은 더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밀어내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토카드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것 사고 나니까 이 포토카드 정국 것 하나 오더라고요. 법안을 제가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팬심이 어떤지 아세요? 이것 만약에 너무 인기 많은 포토카드에만 사람이 몰리면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이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라는 마음까지 가진 게 팬덤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사행성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앨범깡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앨범깡 뭐니까, 대표님?

○**증인 최준원** 죄송합니다. 앨범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왜 모르십니까? 이 포토카드 원하는 것 나올 때까지 계속 사야 하는 것들.....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사행성, 거의 도박하고 비슷해졌어요. 10대, 20대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10대들이 문제겠지요. 확률형 아이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팬덤 부분만큼은 되게, 오히려 팬들의 사랑에 기대서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했던, 다른 위원님 질문에 나온 것처럼 밀어내기 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닌가. 민희진 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더라고요, ‘랜덤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최준원**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구매까지 하신 물건이 하필이면 그렇게 하자가 생긴 물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매우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은 있을 텐데 위버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다 수용하고 특히 공정위에서 지적해 주신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다 썼는데 그 질문답변 공간에 쓴 것도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작성할 여유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선반영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현재 반영이 되어 있나요? 주문, 제작, 상품 공급 시기에 대한 제공이 되어 있나요?

○**증인 최준원** 예,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예약 판매인 경우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경우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예약 판매의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 부분에도 다른, 지금 이건 물론 정무위 소속에서 공정거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지

금 케이팝에서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엔터 사업 세 분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굿즈 문제는 팬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케이팝 산업 발전의 어두운 뒷 그림자라고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에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최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강유정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이민석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민석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양문석 위원 KOK 재단, KOK PLAY, K STADIUM,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민석 한마디로,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양문석 위원 간단하게.

○참고인 이민석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KOK PLAY, KOK 재단은 소위 다단계 사기 집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문석 위원 다단계 사기 집단?

○참고인 이민석 예.

○양문석 위원 K STADIUM은?

○참고인 이민석 K STADIUM은 다단계 사기 집단인 KOK PLAY의 메인넷입니다.

○양문석 위원 적계는 90만 명 많게는 해외까지 180만 명의 피해자 그다음에 총액 4조 원 사기, 지금 피해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4조 원의 피해액과 그다음에 국내에 90만 명, 해외까지 합하면 18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슈가 안 됐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기에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참고인 이민석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지요.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가 홍보했지요?

○참고인 이민석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잠시 들어가 주십시오.

조선일보, K STADIUM 타임라인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년 9월 30일에 KOK가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 21년 12월에 조선비즈가 KOK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 기사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K STADIUM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IT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2월부터 4월 사이에 187 원을 하던 코인이 9373원, 7달러까지 올라갑니다. 0.12달러 하던 게 7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5월 달에 KBS가 ‘시사멘터리 추적’하고 ‘추적 60분’ 등에서 KOK 토큰 추적기를 방송하면서 ‘대웅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100% 사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2주 뒤에 KOK 최상위 모집책, 이 모집책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

럼 다단계 모집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3~12%까지 이자를 준다 그리고 또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던 이런 전형적인 푼지사기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방송은 의도를 갖고서 좀 악의적으로 하고……’,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만족대상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면서 투자를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런 방송을 하면서 물타기를 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소비자만족대상을 주겠다고 했던 언론사가 디지털조선입니다. 6월 30일 날 디지털조선이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날 조선일보가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들을 전면적으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맞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아, 이게 사기구나’ 인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의 저 보도가…… 저 대상 수상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지요?

○참고인 이민석 KBS 보도를 보고 많은 피해자들이 모집책들을 고발하려고 그랬고 또 심지어 민형사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런 작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는 사기 다단계 코인업체의 공범이네요?

○참고인 이민석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요?

○참고인 이민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1등 언론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진짜 많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많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K STADIUM의 소비자가 뽑은 품질만족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참고인 이민석 K STADIUM이 2022년 6월 30일 날 품질만족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 STADIUM은 2022년 4월 19일 날 그때 오픈되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개월 만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지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2개월 만에 K STADIUM이 품질만족대상을 받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요 조선일보가, 후보 선정 과정과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2월 19일 이전에 끝나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리서치 기간이 4월 15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K STADIUM이 오픈한 건 4월 19일이지요. 이것은 타임머신 타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양문석 위원** 조선일보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모양이지요?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의 방조, 공범이 아니고 함께 사기를 쳐저지른 놈들이 바로 조선일보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참고인 이민석**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KBS 보도를 보고 많은 피해자들이 KOK 모집책들을 고소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광고를 보고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조선일보 광고가 없었다 그러면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했을 것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모집책들이 감방에 있을 겁니다. 즉 조선일보는 피해자한테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조선일보 광고가 아니지요.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이 소비자 선정 품질만족대상을 K STADIUM에게 수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선일보 지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 결과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 모든 걸 지금 변호사님은 광고라고 표현했던 거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홍보지요.

○**양문석 위원** 홍보지요?

○**참고인 이민석** 어떻게 보면 사기꾼 홍보지요.

○**양문석 위원** 사기꾼을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기꾼을 홍보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도 석연치 않지요. 먼저 조선일보가 찾아간 거지요? 5월 28일 KOK 최상위 모집책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만족대상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언론사도 있어요’ 하면 소비자만족대상을 줄게 뭘 달라라고 틀림없이 대가를 가지고 흥정을 했을 것이고 그 흥정의 대가가 세상에 등장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상품에, 정확하게 말하면 디지털 플랫폼이지요. 여기에 품질만족대상을 쳤단 말이지요.

○**참고인 이민석**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KOK 최상위 모집책 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은 2022년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K STADIUM, 실제로는 KOK지요. KOK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은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 KOK 최상위 모집책은 한 달 전에 어떻게 상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KOK와 조선일보 측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KOK가 먼저 접근했건 조선일보가 먼저 접근했건 엄청난 커넥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검찰 수사 하고 있나요?

○**참고인 이민석** 검찰 수사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소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KOK는 피해자만 90만 명 그리고 피해액만 4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어떻게 울산지검에서 조사할 수 있지요? 이 정도 사건 같으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아니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을

울산지검 거기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장합니다. KOK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와 KOK 그 간의 커넥션도 조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조선일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북한의 중학생들 30여 명을 공개처형했다’가 편집·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피해자 90만 명, 피해액 4조 원에 이르는 이 내용을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들이 이미 문제가 있다고 썼어요, 조선비즈에서. 그리고 KBS도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KBS가 다루고 한 달 조금 지난 뒤에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여하면서 그 피해액을 더 부풀리고 그 피해자들을 더 수령에 빠트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짓 아닙니까? 이런 언론사에 문화부가 계속해서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법과 정부광고법에 대해서 충분히 손을 봐야 되겠다고 장관께서 직접 공개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수정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정부광고는 어차피 조선일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언론사에 거의 다, 물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광고가 되는 거라……

○양문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조선일보사의 보도 행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는 쓰리아웃제나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언론중재위에서 계속 지적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중재조정안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에 있어서 쓰리아웃제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해에는 정부광고를 완전히 삭제하는 이러한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방법은 한번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언론중재위가 아니고……

○양문석 위원 신문윤리위원회든, 언론중재위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된 기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인공노할 조선일보사의 만행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가짜뉴스의 가짜 편집을 통해서 국민들, 155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속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만 명의 피해자와 4조 원의 피해액을 입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그 수상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폐지하라고 해도 끄떡도 안하고 있는 조선일보사를 고발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제가 아까 쓰지 못한 나머지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렇습니다. 중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보충 질의 5분 플러스 3분을 더 드렸는데 민형배 위원님은 그 3분 질의에서 한 2분가량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2분가량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냥 3분 주시지 꼭 그걸 또 2분을 주시네.

지금부터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양문석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저도 준비를 했었고, 저희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제보를 해 왔는데 그걸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는데 양문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뤄 주셔서.

보겠습니다.

저게 KOK 코인 사기 홍보 타임라인입니다. 즉 보시면 보도가 있었고, 이게 사기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광고형 기사, 그러니까 기사처럼 생겼는데 광고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실제 광고가 나옵니다, 저렇게. 저것 다 보신 거지요?

○참고인 이민석 예, 다 봤지요.

○민형배 위원 저것 다 사실이지요?

○참고인 이민석 다 사실이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게 다 조선일보, 조선비즈, IT조선, 디지털조선인데 전부 대표가 한 사람이에요, 대표가.

알고 계셨습니까, 저게 다 한 사람이라는 걸?

○참고인 이민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열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이민석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형사적으로는 사기 방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참고인 이민석 그래서 저희가 먼저 민사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소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KOK의 피해자들이 디지털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KOK의 사건은 절대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90만 그리고 피해액이 4조입니다. KOK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KOK 간의 커넥션도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민형배 위원 고소를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률가시니까.

○참고인 이민석 물론 만만치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피해자들은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사기꾼에 방조한 사기방조범도 분명히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같은 계열사에 같은 대표가 저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조직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까?

○ **참고인 이민석** 그렇지요. 2022년 5월 14일 날 공영방송 KBS에서 KOK를 고발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투자금 회수하고 고소고발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면 KOK 입장에서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막을 수는 없지요. KBS 정도의 위력이 되는 언론사를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KBS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사는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S의 사기 고발 보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지금 진은자 대표님 같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저런 광고나 기사를 보고, 기사형 광고를 보고 피해를 키운 측면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 **참고인 이민석** 실제로 존재합니다.

○ **민형배 위원**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 **참고인 이민석** 제가 고발장을 한번 써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2022년 7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KOK에 돈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집어 넣겠습니까? KBS 방송만 있고 그 후에 조선일보 광고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투자할 생각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고 언제라도 저희가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장관님, 저 기사처럼 쓰여진 광고요 저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아마 다……

○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나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기사형 광고라는.

○ **민형배 위원** 물론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사처럼 보여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요. 그게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라는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 **민형배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사인 줄 아니까 문제지요.

변호사님, 그것 보고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반응이?

○ **참고인 이민석** 이것이 단순하게 기사형 광고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디지털조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을 얻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KOK가 품질 만족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광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책들도 KOK가 너무 홀륭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광고형 기사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지요. 여기에 대해서……

○ **민형배 위원** 장관님, 이 관련한 조사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아마 이 부분은 벌써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런 기사형 광고 게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도 꽤 논란이 많이 됐기 때

문에 아마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기 참고인으로 오신 진은자 대표가 아무 말씀 못 하셨는데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까? 됩니까?

○위원장대리 임오경 야당 박정하 간사님께서 또 수락을 해 주셨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진은자 대표님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마음의 상처가 크시지요?

○참고인 진은자 예.

○민형배 위원 물질적인 피해도 심하실 거고요.

지금 상황을 아시는 대로 죽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왜 문제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진은자 저는 KOK 피해자 대표로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KOK 문제점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전 궁궁 쳤면서 누가 알까 봐 두려워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들킬까 막 전전궁궁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내라고, 우리들 사기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분명히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가 조직적으로 너무 큰 언론사에서도 공조를 했고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투쟁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눈이 왔을 때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올 여름 정말 더웠는데 땀을 뺄 뻘 흘려 가면서 저희 투쟁으로 여기 이렇게 보듯이 싸워 왔는데 정부는 저희에게 아무 답이 없습니다. 탄원서도 내 봤고요 진정서도 내 봤고 윤석열 대통령께 만나자는 제의, 면담 요청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도 했고. 그런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조선일보 때문이다라고는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조선일보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선일보는 우리가 사기라고 인지하고 KBS 방송을 보고서 약간 들끓게 일어났을 때 이 기사가 딱 나옴으로써 위의 상부 조직들, 윗사람들이 ‘봐라.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신문도 아닌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왔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 상황에는 너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기가 아니겠지, 사기가 아니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니까요. 일반 인터넷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서 조금 기다려 보고 따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날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1년도 4월에 시작해서 2022년도 4월 11일인가 그때 론칭한, 2019년이지요. 그때 론칭한…… 조선일보가 어떻게 저희에게, K STADIUM에게 상을 줍니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을 품고 의문 제기를 하고 메일도 보냈는데 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호소를 해야 되는지…… 정말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님과 피해자 연대를 해서 우리 한번 밝혀 내 보자, 싸워 보자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해 주셔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진 대표님, 지금 몇 분이나 같이 함께 활동하세요?

○참고인 진은자 저희 방은 1156명이 있고 법적 대응을 하는 팀들이 한 190명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참고인 진은자 조치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또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지만 비호세력이 혹시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기꾼들 옆에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님을 선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소 피고인들은, 사기꾼들은 벌써 전관예우 변호사님을 쓰셨더라고요. 선임계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피해자의 돈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못 주는 변호사비를 거기는 전관예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출신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셨더라고요.

○민형배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진은자 무섭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참고인 진은자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여 가지고 말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진은자 반응이, 저희가 7월 달에 매일도 보냈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밝혀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선정이 되고, 우리 그냥 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인가, 솔직히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조선일보 앞에서 약 70명가량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어느 팀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날 억수같이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때 미디어팀장님이 내려오셔서 분명히 저희에게 ‘사기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녹취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해 주겠냐? 사과방송 내고 사과문 내시고 또 대상을 준 것을 취소하시라고……

○민형배 위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참고인 진은자 분명히 ‘내일 바로 전화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조선일보 입장과 본인 팀의 입장은 지금 현저하게 다르다, 좀 더 의논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가 또 하소연을 하고 어디다가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서 밝혀 내야 되는 겁니까?

○민형배 위원 혹시 지금 조선일보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평소에 죽 생각해 둔 걸 간결하게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요청사항, 요구사항.

○참고인 진은자 요구사항요? 밝혀 주십시오.

저희 최상위 모집책이 미국에서도 잡혔습니다. 적색수배를 내려서 잡혔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버려 가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많고 제보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색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잡혔는데 미국에 보석금을 내고 지금 나와서 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정말 몇 푼 없어서 피해자들 모으는 자체도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피의자도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 중에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마지막 7월 12일 날 재판을 받았는데 내년 5월 27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 피해자한테 받은 피해금으로 계속 카지노를 즐기고 있을 것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사기 당하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 못 하시는 분들 옆에도, 부모님도, 자식도, 자녀가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입니다. 조직적 사기는 저희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윤 대통령께서도 민생을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 저희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행으로 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표현과 표정을 하지 마시고 왜 당했는지, 그 당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알아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조선일보는 제발 사과문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대상 준 것 취소하십시오. 저희는 그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민형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민형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KOK 피해자분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참고인 진은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중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중인 신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중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오늘 참석하신 중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 중에서 꼭 이 한마디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중인 및 참고인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중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저는 이후 보충질의까지 해서 8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제가 시간을 붙여서 지금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문체부에 드리려는 질문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문체부의 감사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매번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그냥 연말에 한 번 때우고 지나가는 맹탕감사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께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2021년에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들, 먼저 도종환 전 장관이 9월 말에 인도 측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외교부에게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통해 영부인이 가고자 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같은 해 10월 14일 외교부가 그 해당 사항을 인도대사관 측에 전달을 했고 같은 달 10월 26일 인도 모디 총리의 성명으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고 싶다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본 위원이 다시 상기시켜 드렸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문체부 예산을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외교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국가예산법상에 국가정상 및 총리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 총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영부인 단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문체부를 통해서 마치 문화행사 시찰인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갔다 왔다, 그러나 그 형식은 도종환 장관이 단장이고 영부인인 김정숙씨가 특별수행원이라는 이상한 자격으로, 보통 대통령의 아내 자격으로 특별수행원이라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모사한 방법으로 다녀왔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전용의 그리고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본 위원이 다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 직원들이 예비비가 편성되기 직전에 마치 예비비를 선불처럼 당겨쓰듯이 비행기 경비 등을 미리 당겨서 결제를 하고 다녀와서 예산법을 위반한 사항 그리고 현지 타지마할에서 우리 문체부 직원들이 전혀 장관과 여사와 동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추궁하니 청와대 쪽에서 영부인의 타지마할 방문, 그것도 관광객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입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했던 타지마할 방문에 동행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항까지 모두 저희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검찰에 제공을 했고 이 사항은 검찰 조사를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까지 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난번에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 배현진 위원 사실은 이 내용은 2022년에 제가 감사를 했을 때 문체부에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드린 내용이었는데 그때 유야무야 감사를 진행하다가 말았습니다. 만약에 당시 제대로 감사가 진행됐다고 하면 문체부 내부에서, 본 위원과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추후에 이렇게 예산내역을 문서로 꼼꼼히 따지고 문체부 직원들을 소환해서 관련 당시—여기도 앉아 계시는데요—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당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부인의 단독 프레스센터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인도 방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문체부가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체부 직제를 위반한 사항이에요.

직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직무와 직위에 대한 제도, 조직 운영의 구조, 조직법, 그러니까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체부 직제상에는 제35조 7항 8호, 정상 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을 위해 프레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방문 단장은 도종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를 위반한 상태에서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물론 이해합니다. 그때 문체부가 당시 저희에게 진술하기로 바지사장, 들러리로 간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청와대 요청에 따라 설치했다라는 그 문서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당시 인도 방문을 하는데 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구색을 갖춰서 가신 거예요. 장관님, 이것 되게 이상하지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갔는데 프레스센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치는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 자료, 사진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어느 한 장도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체부 예산 34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상한 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장관님, 이 부분 문체부 내에서 추가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이것……

○배현진 위원 확인하셔서 감사를 검토하시고 종감 전까지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종감 전까지,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2023년, 역시 본 위원이 감사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위가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총련 산하단체에 남북교류협력법 등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체부가 자세히 감사를 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올해 1월 해당 사항을 모두 감사를 마치고 문예위에 보조금을 환수시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 보조금 단체가 특별한 법 위반이 없는 한 환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조금 잘못 알고 있으신데 문예위가 나름대로 보조금을 환수 안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문예위 조직이.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본인들이 보조사업자인, 그 보조금을 타 간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보조금, 우리가 공고를 잘못하고 우리 내부의 불법적인 규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우리의 귀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겠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 점을 문체부에 통보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한테는 좀……

○ 배현진 위원 그게 1월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문체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역시 타지마할 건처럼 뭉개고 있다가 제가 8월 27일경 이것 어떻게 진행됐습니까라고 갑자기 확인을 하니까 황급히 이 결정을 변복하고 보조금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문예위 또 한 환수조치를 따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문체부가 보조금 환수하겠다라는 문예위의 입장을 지난주에 처음 듣고 오히려 더 놀란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1월 문체부 환수 통보받기 전 한 번 그다음에 받은 후에 두 번 이렇게 총 세 번을 문예위가 보조금 환수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을 문체부가 말하자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명석을 깔고 앉아 있어 준 겁니다, 장관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뭐……

○ 배현진 위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의 감사, 저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나라, 행정부에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일이지요.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하고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면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문체부에 들어갔다 하면 깜깜이예요. 이 두 가지 사안들을 확실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감사를 진행하시든 고발조치를 하시든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 순서에 의해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욱 위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먼저 미디어정책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출판 문제는 문체부 관할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 신동욱 위원 혹시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받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따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출판사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은 어떻게 감시를 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출판사 세금을 저희가 따로 감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출판사 지원사업 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처음 들어 봅니다.

○ 신동욱 위원 더 휴먼요?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 신동욱 위원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난 출판사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판한 그 출판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건 기사를 봤습니다.

○ 신동욱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출판사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이 출판사가 접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더휴먼이라는 출판사가 낸 책이 2022년도 이 책입니다. 이게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문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의 디자인값을 지불했다는 그 책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17년도에 나온 책을 보면, 이 책입니다. 저희가 보건대 이게 2억 5000만 원어치의 디자인값 또는 편집값이 있는 책인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17년도에 나온 이 책,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나온 책입니다. 저도 사실 이 책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 인세로 얼마나 지급됐는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전혀 모르시니까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산공개 때 보면 1억 5000만 원 인세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책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많이 팔렸을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급된 인세가 1억 5000만 원인데 지난 2022년도에 팔린 책의 디자인값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속 문제라는 것이, 또는 증여나 상속, 자녀에게 누구나 내 재산을 좀 주고 싶지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책 하나 적당히 써서 저희 아들에게 디자인 너가 하라 그리고 2억 5000만 원을 출판사에서 지불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전문디자이너를 썼다면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격 책정을 하겠지만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신동욱 위원 아무리 전문디자이너를 썼어도 전작의 인세가 1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장관님의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딸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디자인료를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신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출판계의 문제니까 이 출판사, 저는 미디어 국장님도 전혀 들어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 그동안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디자인값이 얼마나 책정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주는 것이 과연 불법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에서 당연히 따져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실제로 전문디자이너들의 디자인료는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 **신동욱 위원**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에 그렇고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휴면이라는 출판사가 주로 내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아까 아이돌 그룹의 굿즈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은 전혀 없고요 ‘문재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4년’, ‘대통령 문재인 탁상 달력’, ‘대통령 문재인 벽걸이 달력’, ‘대통령 문재인의 3년 화보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이런 질문까지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행적이 낱낱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체 이분들이 공적인 생각이 과연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분들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직 대통령의 가족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 논란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소관 부처에서 명확히 좀 조사를 하셔서, 이게 만약에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국세청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왜냐하면 출판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출판에 관련돼서 일일이 아마 이렇게 하기에는, 왜냐하면 특히 또 출판 자유나 내지는 그쪽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규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신동욱 위원** 자료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살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이렇게 여론화된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전 정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의 소중한 발언이기는 합니다만 이 발언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몇 가지를 좀 바로잡고 속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종환 장관이 먼저 확정되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끼어들기 순방을 갔다라고 하는 질

문, 이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왜 최고위급 사절단을 요청했으며 김정숙 여사가 가기로 한 배경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 자서전 ‘어쩌다 외교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등 민감한 사안들이 협의되었는데 모디 총리는 11월 개최되는 인도 디왈리 축제에 한국에서 최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최고위 사절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교활동이 아니라 베켓리스트 관광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한·인도 간에 이 방문으로 상당한 외교 성과를 거두었음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 고교 역사교과서 최초로 한국역사 과목이 포함됐고, 그동안은 약 6페이지 분량으로 중국과 일본만 있었는데 우리가 이 방문으로 같은 6페이지 분량으로 우리 한국역사 과목이 포함되었다, 이전까지 인도 도착비자 허용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도착비자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추천되었다,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가 건립되었고, 이전까지는 한국전 참전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비가 없었던 인도였던 건데 참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등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 이것을 베켓리스트 관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왕복 유류비와 맞먹는 기내식 비용, 식도락 여행을 즐겼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청와대 예산이 아닌 문체부 예산으로 순방 비용을 지출했는가? 이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더 거론할 여지가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왜 문체부 예산으로 순방 비용을 지출했는가? 국가정상의 해외순방 경비는 통상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예산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세부 편성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부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으며 해당 사업은 문체부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디왈리 축제 및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등 순방의 핵심 일정이 문체부 관련 협력사업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문체부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 김정숙 여사가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나? 이전 정부부터 대통령의 특사, 총리 등이 전용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특사단 방북,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 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대통령경호처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국익을 위한, 인도의 요청에 의한 그런 외교활동을,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감사도 하고 해서 밝히

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투성이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의 해외순방에 대해 비판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순방, 해외순방의 목적이나 활동 전체가 다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국익을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선의와 당연한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가셨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설사 한두 가지 지적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해외순방을 그렇게 끙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그 두 분의 헌신과 애국심도 믿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설명을 드렸고 이 자리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번 새롭게 새롭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잘 들어 보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해가 된다라고 서로 의견을 좁혀 가는 것이 저는 관건이 아니겠냐, 당연한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관님께 준비한 질문은 다음 질의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의 또 전 정부 일원이셨기 때문에 그 충정은 제가 능히 짐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가 안타깝게도 지난 7월이었나요, 도종환 전 장관께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 당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오해하시게끔 만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 외교부,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전용기 사용은요 국가정상과 총리면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부인 혼자서 대통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타고 가서 문체부의 예산, 청와대 부속실의 예산도 아닌 문체부의 예산으로 썼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지점을 지적해 드리고 이미 이곳에서, 저희가 상임위원장에서 말다툼을 할 필요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 질의에 바로 반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역시 신동욱 위원님의 질의에도 곧장 반박을 해 주신 것, 물론 질의시간을 소모하면서 하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단한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모두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KOK 피해자들의 눈물을 들으면서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다만 그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과는 별개로 진행에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증인·참고인 답변시간은 좀 제한을 두지 말자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저분들은 소송을 하고 있는 일방의 법률대리인이고 또 피해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들 말씀도 물론 저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분들의 주장은 조선일보가 이 문제의 책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시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시간을 무제한으로 하기로 한 취지가 어떤 소송대리인을 불러서 저렇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문체위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원만한 진행이 되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모든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민원을 해서 나도 나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누구는 들어 주고 누구는 들어 주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KOK 피해자들의 눈물은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회의 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위원장께 간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증인·참고인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던 이유는 사실 KOK 사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해 보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고 마치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취지로 오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답변하시는 분들의 답변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는 것이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그리고 배현진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판단의 끝은 이 회의를 지켜보는,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대한민국 GDP가 지금 세계 몇 위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대한민국 1인당 GDP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몇 위냐고요?

○김재원 위원 예,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지금 한 칠팔 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 김재원 위원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한국 1인당 저작권 사용료가 4.94유로입니다. 세계 29위, GDP 대비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0.016%, 그래서 세계 31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인당 저작권 사용료가 한국의 1.95배, 일본은 1.37배, 스페인은 1.42배 더 높습니다.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우리 창작자들이 정말 정당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따져 봤더니 연간 대중음악인들 예술활동 수입이 평균 445.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 445.4만 원 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창작자 주 수입원에 해당하는 저작권료 단가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2009년에 4000원이었는데 2024년에 9860원 까지 2.5배가량 증가를 했어요. 음원저작권 단가요율은 처음에, 아마 제가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였을 것 같은데요, MP3로 서비스가 된 지가 그때쯤이니까요. 처음 책정한 이후에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책정한 지 10년 넘는 그런 단가요율들도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우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보면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후 14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문체부로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단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 기간, 최대 소요 가능 기간은 그냥 무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가 재량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규정과 관련해서 문체부에 승인 신청한 내역이 총 28건 중 미승인 상태가 20건입니다. 미승인되거나 수년째 회신이 없어요. 71.4%가 함홍차사입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4871일이 지나도 처리되지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다면 사유를 적어서 불승인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탁업체하고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누락, 미승인, 회신 없음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것은 창작자 저작권 권리 보호를 등한시하는 것이지요.

문체부가 권한만 가지고 업무를 나태하게 하는 동안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이용을 하고 그 저작료는 내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인들 월수입이 4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요율을 이용자와 신탁단체의 협의라는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징수규정 승인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승인제 폐지 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그러면 저작권법 시행령 49조도 개정해서 법정 처리기한 당장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폐지를 하는 것에 무게를 두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제가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자가 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교과서·참고서 저작권 문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 콘텐츠 쪽에도 다 저작권이 있는 건 아시겠지요. 그중에 문학작품, 영어 지문,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 등등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PPT를 보시면 현재 대입이 내신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국어 영어 과학 등 보충학습, 학교 시험 대비 목적으로 교과서 위주로 응용한 교재를 쓰게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업계에서 교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작권료 제대로 내고 사용하는 기업이 12개밖에 안 됨답니다. 학원 한 곳에서 제대로 교과서 저작권료 낸다면, 검정교과서 142종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통상 교과서 1권당, IP 평균 가격이 한 종당 1050만 원, 단순 계산해도 14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교과서 저작권만 따져 보면 이렇게 참고서까지 하면 피해 권리가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에듀테크 기업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스캔 PDF 본을 무단 공유하거나 또 다수의 회사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무단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게시물이 39만 885건입니다.

출판시장 규모가 4조 9000억 원인데 교과서·학습참고서 관련 기업이 14개에 1조 3000억 규모, 그런데 한국 사교육시장은 27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학습참고서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지요. 그래서 문체부가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과서·참고서 저작권 침해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관련 업계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고 제대로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인데 장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좋은 말씀 다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저작권법은 이미 정비가 많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제도적인 것은 오히려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리가 저작권법은 완벽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는 출판사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법적으로는 정비가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복사해서

쓰는 바람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단속하고 계속 교육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실태조사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사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4000억 정도의 저작권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음저협에서. 그런데 내년도는 음저협 추산으로 약 5000억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분을 음저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지만 상당한 부분의 요율로 지금 배분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김재원 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혹은 문저협에서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출판사 국어과목 한정이고요, 교과서나 참고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저협 같은 문제는 오히려 너무 방만한 경영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요, 지금 문저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요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을 다 생각해서 국가가 지금 이 요율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사실 다 풀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개인으로 힘이 센 사람은 요율을 많이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건 요율 부분이고 지금 교과서·참고서 실태조사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그건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부산 수영구의 정연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오경·강유정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대형 기획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거들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 여야 위원들 모두 문체위원들한테 팩스 폭탄이 떨어진 건 아실 겁니다. 이게 특정 아이돌 그룹을 이끄는 대형 기획사의 문제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미성년자들의, 연습생 시절에 미성년자 시절에 했던 훈련 연습 영상이 배포가 되고 의료기록까지 좀 유출이 되는 사태였습니다.

물론 보도를 누가 했느냐, 이게 책임이 누구냐, 여러 의혹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

들이 논란이 되고 이게 일정 팬덤이, 팬클럽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느냐, 여러 가지 기획사 내부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정 팬을 들 견 아니지만 이런 유의 사안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그나마 케이팝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케이팝의 한류나 세계적인 명성에 먹칠하게 하는 사태가 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 영화산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의 위기냐, 영화관의 위기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충무로 대한극장이 폐업을 해 버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58년도부터 문을 열어서 66년 동안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모든 추억을 선사했던 곳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충무로가 영화의 본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것인데 실제로 장관님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옛날 추억으로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 때문에, 영화관으로서 폐업은 했지만 아마 오히려 그쪽이 한류 쪽의 새로운 공연장으로 다시 탈바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영화관이라는 하나의 큰 고정관념으로 보면 분명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2019년 영화 관객수는 2억 2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 2000만 정도입니다. 1억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벌써 9월까지, 아직 1억도 채 안 됩니다, 극장 자체가.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하나의 건물이나 공간을 보자면, 지금 프로야구 구장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10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번 유독 더웠던 올해 여름에도 온열환자가 몇십 명 났는데 야구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직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TV나 OTT로 보는 걸로 감동이 안 돼서 직접 가는 관람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야구장에는 유독 관중이 몰리고 영화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결국 영화는 물론 환경 변화도 있지만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지금 여기에 붙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콘텐츠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특정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의 문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영화 분야 예산은 829억 원이 현재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리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아직 폐지 논란이 있지만, 폐지가 되면 영화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여러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 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2%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오는 입장객 숫자만을 가지고, 부과금 문제를 가지고 진짜 영화산업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프로야구장 직관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중계하는 방송을 OTT로 돌린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야구장에서는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영화관에서는 영화 외에는 어떤 장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정연욱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작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것들을 많이 실험하고 그것이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력이 양성되는 거고, 좋은 창작자가 나와야 결국은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 감독들은 이미 한국 시장을 떠나서 할리우드 시장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허리를 좀 받쳐 줄 수 있는 영화 인력과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게 현재로서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많은 창작자들의 노력 그리고 그 동기 부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의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도 과거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버리고 너무 하나에 매몰돼 버리면, 변화하지 않으면 고인 물은 다 썩기 마련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하나의 프로야구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관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정부당국에서 신경을 꼭 쓰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민간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지금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극장들이.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그때의 이벤트성으로는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계속 관객을 불들어두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내년에 영화 예산을 좀 늘리도록 애를 썼고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다 나름대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부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영상은 확실하게 부산이 영상도시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쪽에서 기획·제작, 말하자면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부의 분발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였다가 17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숨 쉬고 해도 되지요?

문체부 해명 내용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애초에 이 행사가 기획된 이유를 문체부에서는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국악진흥법 통과, 부산엑스포 유치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86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긴급한 행사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KTV가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은 5월이었고요. 국악진흥법 통과는 6월이었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오래전,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그 후, 방송이 나간 11월 11일 이후 바로 16일 만에 29대 119로 참패를 했지요. 어디를 봐도 긴급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를 수의 계약한 것 대단히 문제가 있고 행사가 급조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일정표 좀 띄워 주시지요.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표 있는 사람 불러야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앞에는 표 있는 사람, 방송은 국민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국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을 만드는 것이 엑스포 유치의 기본 정신에 맞는 행사였겠지요. 그런데 이 행사는 자체가 그렇게 기획되지 않았어요.

하마스 전쟁이 7일 날 발발하고요. 그다음에 하종대 KTV 원장에게 11일 날 보고가 됩니다, 18일 날 공연하겠다고. 대통령 내외, 각국 주한대사, 기업 관계자 이렇게 썼고요. 그 이후에, 하마스 이게 7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11일 날 작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각국 주한대사들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취소됐지요.

날짜하고 참석자만 바뀐 채 10월 20일 날—KTV 내부 문건입니다—대통령 내외, 각국 주한대사의 부인 그리고 문화계 저명인사 이렇게 바뀝니다.

또 다음, 10월 26일 KTV가 문체부에 낸 공문입니다. 이 문서의 수신자는 유병채 실장입니다.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장이지요? 맞지요, 유병채 증인님?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이기현 위원 맞지요?

참석자는 대통령 내외, 문화계 저명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였는데 문화계 인사들에게 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한 대중공연이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지요. 이 공연은 죽일 수 없는 공연이다, 날짜를 바꾸든 대상을 바꾸든 목표가 달라지든 관계없이 이 행사는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KTV의, 내부

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월 11일 날 1회 방영하고 11월 12일 날 1회 방영합니다. 한 40분짜리 방송인데요. 그리고 내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약 50회 방영이 되지요. 50회 정도의 뷰가 나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뒤에 보면 문화·예술계 인사라고 해서 한 10명이 초대가 됐는데 한 분만 소개하면 제일 앞의 분이 반기문 총장과 그 부인입니다. 그 뒤로 문화계·예술계 인사라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일부는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있고 일부는 안 왔고, 일부는 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오지 마시라, 행사가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띄워 주시지요.

좀 기시감이 듭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지요.

다 아시는 사진입니다만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여사께서 명품숍을 다섯 군데나 돌면서 나중에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는 길에 매장 측의 권유,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호객행위에 들어가서 다섯 군데 편집숍을 들렀다라고 하는 해명을 했고, 해명은 그냥 호객행위에 끌려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 행사를 참석하고 나서 문제가 된 이후에 문체부에서 냈던 설명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국악인께서 초청해서 그냥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격려차. 이 문화계·예술계 인사는 본인이 부른 바 없다라고 JT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봐도 이 행사는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특정한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 KTV의 일부 인사들이 기획해서 끌고 간 행사는 아닙니다. 엑스포 유치도, 청와대 개방 1주년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KTV의 돈 8600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것의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장에는 문체부의 당시 실장님이 가 계셨지요. 전직 문체비서관이 가 있었지요. 맞지요? 문체비서관 전직도 있었고 현직도 있었고.

또 이 자리에 제가 한 분을 더 띄웠는데 저분이 신수진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문화체육비서관입니다. 이분은 외부 인사지요. 문체부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승진한 분 중에 이분을 뺀는데 이분이 9월 달에 선임행정관으로…… 그러니까 문화계 인사라고 하시는데 민간에서 들어오시지요? 한 달 후에 행사가 있었고 이분이 이번에 황성운 실장님과 교대로 문화체육비서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한 번 하신 거지요. 이 한 분이 와 있고, 이분을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계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사님을 위한 행사였고 여사를 위한 혈세 낭비였습니다. 문체부는 이 2명의 실장님들이 장관님을 농락하고 엑스포 유치라는 행사를 빌미로 여사님 황제관람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님, 저 뒤에 계시는 1급 두 분이…… 장관님이 10월에 오셨지요,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오시자마자 첫 행사를 장관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저 두 분이 자기들끼리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장관님 오전 질의에서 보면 나중에 저녁에 여사

님이 왔다 갔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중간에.

○이기현 위원 어떻게 2명의 전현직 비서관이, 부속실장도 아니고 여사가 갑자기 들른, 어느 예술인의 전화를 받고 들른 행사에 2명의 비서관이 와 있을 수가 있지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유병채 실장에게 묻습니다. 장관님 보고했습니까, 이 행사 가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 부분은 출장 결재는 차관까지가 결정이여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청와대 관리·운영, 관리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와대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그날도 특별한 건은 아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 계세요.

문체부가 이번에 보도자료 냈지요? JTBC의 법적 책임까지 물겠다는 아주 강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사전에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장관님과 상의했습니까? 장관님 오전 답변을 보면 장관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내용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그 부분은 KTV가……

○이기현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주도적으로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이기현 위원 신수진 문화체육비서관,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강훈 정책홍보비서관하고 이 일 전후로 해서 통화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앉으세요.

기획조정비서관님, 황성운 비서관님.

신수진 비서관, 최재혁 비서관, 강훈 비서관하고 이 일 전후로 해서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최근에 통화한 적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통화기록 다 나옵니다. 두 분, 위증의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화한 것도 다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저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통화한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특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시간을 좀 특정할게요. 시간을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9월, 10월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런데 신수진 비서관하고는 제가 업무 협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번 통화는 합니다. 그런데……

○이기현 위원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이 삼 주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 삼 주 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KTV의 이번 공연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적정성도 문제가 있고요. 계약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행사의 취지와 전혀 다른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저는 사실은 여사께서 정말 처음부터 참관을 하기로 했다면 분명히 보고가 제대로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하니까 그 이후에 여사님이 다녀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전화 통화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국악인들 격려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KTV가 아마 모시고 싶어서, 그 외의 관련 인사들을 거기에 모셔서 자기네들이 뭘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녹화는 그냥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계약 문제라든지 돈 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치를, 저희들이 우선 부 감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대한체육회에 관련해서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기홍 회장이 지난 20년 9월 23일에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에 따라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된 자에 대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당시 보면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영달 후보는 반이기홍 연대를 외치면서 단일화를 주도했고요.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12월 26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장영달 후보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고요. 그 상황에서 출마를 해서 이기홍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기홍 회장은 또 41대 회장 당선된 이후 3월 21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당시 41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는 총 4명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이 중

에 이종걸, 유준상 2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역임한 후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쟁한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아마 이 부분, 여기 연수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어떤 공직을 수행하고 3년 내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진종오 위원 여기 5년이라고 피선거권 제한된 자라고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뒤의 부분 거요.

○진종오 위원 예, 뒤의 부분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이 선거에 출마할까 봐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추후에 또 후보가 나올까 봐 미리 그런 법률을 만든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게 해서 이 규약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올해 3월 4일에는 3선 연임을 위해서 관련 법률자문도 받은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기홍 회장이 대한체육회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약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국회의원직을 했다고 해서 대한체육회장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막으려고 한 이기홍 회장의 반현법적인 가치관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서 계속 이런 걸 바꿔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바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또 이처럼 법률자문 토대로 작년에 정관 개정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최종 불허 통보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문체부에서는 불허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히나 두 번만, 연임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건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정했던 것을 또 스스로 깨 버리니까 그래서 불허했고요. 이 앞의 피선거권 문제도 저희가 그때 아마 승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23년도에만 두 번으로 네 번의 허가 요청을 했었고요. 우리 문체부에서는 다 거절을 했지요. 이런 걸 보면 대한체육회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기홍 회장의 3선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고 또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황도 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공직자로서 이기홍 회장은 과연 자질이 있을까,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대한체육회의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홍 회장의 사퇴만이 정말로 대한체육회의 개혁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체육인들이 아마 그런 의견을 많이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체육정책 자체가 많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종오 위원 장관님, 그리고 짧게 또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고……

조금만……

문화관광 축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축제들이 각종 바가지 논란 그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빈구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바가지 논란이 역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축제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차원이지 제가 지적한 부분을 볼 때는 바가지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또 ‘축제 먹거리 알리오’라고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압니다.

○진종오 위원 먹거리 알리오 가격 공시 바가지 논란이, 해결하려고 내놓은 정책인데 대부분 먹거리 사진은 없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특산물이나 문제가 되는 지역 음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냥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전통적인 디테일한 사진은 없고요. 심지어 이 축제 같은 경우 게 2마리에 37만 원 논란 등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정보는 당연히 없을뿐더러 일회성 업체, 푸드트럭, 팝업 형식의 업체 가격만 올려놓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공개한다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런 문제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잘 인지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 먹거리 알리오는 그 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먹거리만 여기에 올려서 바가지요금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지역 특산 음식이나 지역 특산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홈페이지에 그 부분은 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오 자체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정확한 가격과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어쨌거나 전국을 다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문체부에서 우리는 이만큼 열

심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조금 개선되는 방안을 장관님께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전국에 축제가 약 1100개 이상 되는데요. 저희들이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한 건 4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45개 정도는 우리가 보증수표를 찍은 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고맙습니다.

○진종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그 당시에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아요디아에서 열린 디왈리 축제에 주宾으로 참석을 요청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디왈리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디왈리 축제는 힌두교의 최대 축제로 기독교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아마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정도의 축제인데 중앙정부 차원의 축제도 아니고 아요디아, 지방정부에서 열린 축제에 대통령 영부인이 공연단까지 합치면 무려 한 60여 명의 인력을 대거 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축제이냐, 그것도 보면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한 인도에. 이런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국빈 방문한 대통령한테 4개월 뒤에 이런 지방행사에 대통령을 참석하라고, 이게 좀 저는 의례적으로 말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례적인 게 아니고 진짜 대통령 참석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런 지방 축제에 한 60여 명을 이끌고 수억을 쓰면서 전용기까지 타고 가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과 4개월 전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문화와 관련된 역사교과서 등재라든가 이런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4개월 뒤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해 가지고 그런 성과들을 갑자기 그냥 다 달성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고정비용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공공기관의……

○김승수 위원 인건비는 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런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당연히 어디서 재원을 조달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크게 변화가 없고 일관성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집행 내역이 한 50%씩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기관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기홍 체육회장 2017년 취임 이후에, 그 전까지는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전체 인건비의 한 26억 정도 내외를 조달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심지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에서 10억도 지금 이쪽에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무려 한 62% 정도 자체 예산의 부담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줄잡아 계산해 봐도 인건비에 쓰여야 될 자체 예산이 그동안 한 66억 정도가 엉뚱한 데 쓰여진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이걸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도 그러면 인건비에 쓰여져야 될 돈, 안 쓴 66억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제대로 그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르고 있습니다. 문체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홍 회장 취임 이후에 기타직·비정규직 보수는 무려 6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왜 갑자기 비정규직·기타직 보수가 증가했느냐? 또 다른 정규직 보수들도 많이 증가했었는데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취임 이후 몇 가지 직책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늘어납니다. 사진사, 변호사, 거기다가 부총장에 사무차장, 정책연구센터장…… 이 부총장, 사무차장, 연구센터장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봤더니 죄다 이기홍 총장과 관계있는 측근들이에요, 보면.

이기홍 회장이 조계종 신도회장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첫 부총장, 선수촌 부총장했던 이호식 부총장은 돌아가신 자승 총무원장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총장이 된 정성숙 부총장은 또 체육인불자연합회의 부회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어서 하고 있는 그분도 보면 이기홍 체육회장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이 또 지금도 그대로 후임 부총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홍 회장이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당시에 사무처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정책연구센터장은 평창동계훈련센터 건립 자문관을 맡았던, 여기도 사실은 이기홍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김승곤 씨가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기 측근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고 연봉 1억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제대로 채용을 했느냐. 채용 절차도 보면 그냥 굉장히 이상합니다. 보통은 이런 개방형직위를 채용할 때 14일씩 채용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4일 공고를 하지 않고 단 3일, 8일 동안 공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생긴 직제에 또 이기홍 회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들입니다.

이렇게 인건비에 쓰여져야 될 자체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도,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사람들을 그냥 추가로 임명을 하고, 지난 현안질의 때 이야기했던 자문단 또 정책보좌관 이런 데 돈을 쓴 것만 하더라도 약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올림픽 조직위로부터 평창올림픽 후속 사업에 쓰라고 받은 돈 가운데 무려 200억이 넘는, 40% 가까운 돈을 또 인건비에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돈을 끌어다가 인건비에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을 또 차입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인건비로 씁니다. 이게 어디 공공기관의 회계입니까?

기본적인 인건비조차도 이렇게 엉터리고 엉망인데 한 5000억 가까이 체육진흥기금에서 대한체육회에 지원된 돈이 그런 종목별 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이번 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기존에 썼던 돈들이 그냥 엉뚱한 예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써야 될 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것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체부에서도.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한체육회의 회계입니까, 조기축구회 회계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부분 정부보조금은 이런 걸로 전용을 안 하고요. 자체 예산 또는 후원금 이런 쪽에서 아마 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수나 지도자를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인데 그게 다른 데로 좀 전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거의 한 10억 이상씩 매년 자체 예산으로 쓰던 돈을 안 쓰고 엉뚱한 돈을 끌어다가 인건비로 쓰고 있고 또 다른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이쪽에는 보면 평평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과장치나 또 사후·사전적인 승인이나 규제장치가 없이 이게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체육행정에 자율성을 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외부 관리시스템은 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또 이게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면 처벌 또 혁신적인 시스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런 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은 다 승인받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잘, 승인을 대충 다 해줘서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인건비 지급 직원 수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보더라도 이기홍 회장 취임 이후에는 보면 무려 한 20명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원에 없는 사람한테 20명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준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원주갑 출신의 박정하입니다.

앞서 배현진 위원님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장관님 유난히 우리 문체부가 관리감독에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잘 꼼꼼히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진석 차관보님, 잠깐 상식선에서 간단한 거만 여쭐게요.

배현진 위원님 질의 당시 보니까 아까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당시에 3400만 원 프레스센터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장관님, 이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관보님, 현직에 계실 때 청와대에 잠깐 출입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이진석 예.

○ 박정하 위원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한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 전부터 우리 청와대, 지금으로 표현하면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출장을 갈 때, 순방을 같이 수행을 할 때 프레스센터 비용도 회사에서 자체 부담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요금도 자체 부담하고, 그게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이진석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체부 내에서도 3400만 원이 쓰여졌다면, 수립이 됐다면 그 쓰인 기록이 있을 거고 그게 없다면 당시에 있었던 출입기자들 각 회사별로도 다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서 3400만 원이 진짜 쓰여진 건지 아니면 이게 어정쩡하게 어디로, 하늘로 날아갔는지 한번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됐고요.

체육공단이면 체육국장님 담당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우리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 따서 병역특례받는 선수분들 체육공단에서 병역특례 관련해서 관리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것 국장님 소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 박정하 위원 여기서도 아쉬운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축구 관련해서 김 모 선수가 실적 부풀리려고 허위사진 제출했다가 적발된 것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있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관련해서 우리 선수들이 보니까 메달을 획득하면 군 복무 대신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돼서 540여 시간 정도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

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박정하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수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요트 관련한 메달리스트 선수인데 밑에 보는 것처럼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는데도 이게 다 그냥 실적으로 인정이 되어요.

아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스포츠 열심히 해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이, 그러면 아예 규정상 이런 것 없이 그냥 깔끔하게 병역특례를 주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어느 쪽이든 정리해 주는 건 상관없다고 봅니다마는 규정된 걸 저렇게 관리가 소홀하게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그다음 볼까요.

이것은 통상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날짜와 시간을 화면에 병기하게 돼 있는데 날짜, 시간 중 빙 없어도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도 이것도 인정해 주대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관리 소홀이에요, 변명의 여지 없이.

다음 것 볼까요.

이것은 9시까지 복무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찍힌 사진은 8시 8분이에요. 1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9시까지 다 활동한 걸로 인정해 줘요, 이것도.

그리고 다음 볼까요.

일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운전 중에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건 안전에도 좀 문제 가 있는 것 같고, 과연 저런 식의 공익복무활동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창 한번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초인데요 한 6시쯤 됐잖아요. 밖이 지금 저렇게 어둑어둑합니다. 여기 앞서 신고된 2021년 12월 3일 17시 51분 사진의 창을 한번 볼까요. 대낮이에요. 이건 잘못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문체부에서 그냥 허리지 말고, 그냥 위임해서 어디선가 관리한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차곡차곡 잘 좀 관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면에 대해서 부당하게, 성실하게 공익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손해 보는 그런 선수들이 없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대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격려방문 장관이 몰랐다, 끝나고 알았다, 처음 오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방금 전에는 중간에 보고받았다, 오락가락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녁에요, 저녁에.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녁에 받았다, 끝나고 받았다, 방금 전에는 중간에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락가락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임오경 위원 답변이 오락가락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열 영순위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실장 두 분은 참석하셨는데 아무리,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장관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 끝나 간 다음에 보고를 했다, 이것 조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중요행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중요행사가……

장관님, 장관님, 잠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술실장은 담당이니까 갔을 거고.

○임오경 위원 장관님, 그 말씀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서열 영순위가 격려방문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안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자체 행사라고 생각한 거겠지요, 저한테 얘기 안 한 것은.

○임오경 위원 장관님, 내용을 다 보고받았을 거예요. 방송 녹화로 인해서 용역업체에 의전 지원 요청까지 해서 8명의 의전 요청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행사 테이블보부터 시작해서 꽃집까지 다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장관님, 자꾸 이 말 가지고 제가 실랑이를 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체부의 조직 기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오전 질의에 있어서 KTV의 보도자료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 서열 영순위 김 여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장관에게 보고 없이 실장님 선 안에서 다 해결 합니까? 이것 장관님이 무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장관님은 유능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오전 오후 질의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문체부의 조직 기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관님 오늘 상당히 무능해 보이십니다. 일부러 답변을 돌리시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저는 확실하게 다 말씀드렸는데요.

○임오경 위원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싶지만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문체부가 하시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2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출생 극복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 목적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저출생까지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 어디에 지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용산 미군 부지에 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용산어린이정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현재 어린이 정원 조성돼 있는 데는 아니고요 바로 그 옆입니다.

○**임오경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KTV가 내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방송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 어디에 개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임오경 위원** 이것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면 이런 것을 아마 이쪽에 다시 의논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임오경 위원** KTV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억 원어치 드라마를, 과거의 오래된, 장관님이 출연하셨던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를 사서 계속해서 틀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는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공연을 하지를 않나 또 내년에는 KTV가 10억 원을 들여서 용산어린이정원에 방송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장관님, 진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실장님들 선 안에서 다 패싱당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장관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문체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산하기관의, 과방위부터 시작해서 국토부까지 다 들어가는, 복지 예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관련 사업에 전 부처 예산이 730억 원 이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체부도 숟가락 얹고 있는 거고요.

이것 국민 혈세를 가지고, 용산시대 1호 약속 지켜 준다고 256억 원 또 우리 문체부에서 국민 혈세를 그냥 막 갖다 쓰고 있고요. 또 저출생 문제와 어린이들 진로체험시설 부족의 해답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건물 지어 주는 걸로 해결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회운영위 국감에서, 작년 7월에 시민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언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네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SNS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미군 부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한 용산 주민들도 대학생들도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작년 지난 7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장관님이 모른다고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용산시대 1호 약속 장소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원에 대통령에 비판적인 국민은 출입을 금지당했는데 문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금 무엇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문체부도 관여를 하고 예산을 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은 KTV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다고 하는데도 모르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받으시고, 우리 문체부 또 한도 작년 7월에 시민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검토하셔서 문체부가 왜 여기다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그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졸속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 잡아먹는 하마가 되었는데 문체부 예산까지 용산에 퍼붓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지금 장관님 답변 들어 보면 장관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장관님이 이 결정을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참 저 또 한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장관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입니까, 아니면 유능한 황성운 실장님하고 유병체 실장님입니까? 누구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린이아트콤플렉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기로 한 거고요.

거기 건물이 8개, 미군들이 안 쓰던 것 리모델링하고 돈을 좀 최소한도로 줄여서 거기 에 어린이극장,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이런 게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것과 연계해서 어린이아트 콤플렉스를 만들고, 시범으로 만들어 봐서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그 모델을 계속 지역마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렇게 지금 문체부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설명을 하시는데 KTV는 문체부 산하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산하인데 산하가 사업하는 것을 일일이 제가 다 체크는 안 하니까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오늘 오전부터 장관님의 답장을 듣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의 산하기관은 대한체육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의 산하기관은 대한체육회밖에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 어린이정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는 전망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은 마무리할게요.

국토부 중기재정계획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 경과를 보면 26년 638억 12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27년에 720억 18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28년 720억 5400만 원 예상되어 있고요. 여러 정부부처의 예산을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

측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린이아트콤플렉스에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임오경 위원 예, 어린이정원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린이정원 그건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임오경 위원 그 한 부분에 지금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다른 부처에서 쓰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가장 적은 돈으로 아트콤플렉스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는 미군 부지 환경오염 문제도 아직 소송 중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출입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 부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용산 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 출입 금지당했고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시민이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 어린이아트콤플렉스하고 그건 뭐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오경 위원 그 내부가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오경 위원 그것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예산이 어디 쪽에서 정부 어느 기관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지금 장관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저한테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사업은 저희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다른 부처가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용산어린이정원은 우리 관계부처들이 지금 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국무위원 회의에서 장관님은 이걸 다 꿰뚫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그런 사업까지 제가……

○임오경 위원 어떻게 문체부 예산만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무회의에서는 주로 그런 사업 얘기는 안 하니까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소통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문학적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앞으로 28년, 30년까지의 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임오경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질문 많이 받네요.

대답할까요?

○**민형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리 땅이지요.

○**민형배 위원** 혹시 ‘독도.com’이라고 쳐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안 쳐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부에 그런 조직이 있지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이런 것 있지요? 그런 것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것 꼭 가셔서 한번 쳐 보십시오, ‘독도.com’. ‘독도.com’을 치면 딱 저렇게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한국어로 표시돼 있고 12개 언어로 위에 죽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관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제가 물어봤어요. 해외홍보기획과랑 해 가지고 답이 이렇게 왔어요, ‘특별히 동해, 독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오류 시정 가능성이 없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요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정 가능성이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 전의 게 우리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처음의 것은 일본 정부고 두 번째 보여 드린 건……

왜 자꾸 내리세요? 올려 줘 보세요.

두 번째 보여 드린 건 제가 문체부로부터 받은 답변.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일본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가 보면……

두 번째 장으로 가 보세요. 좀 잘 올려 주세요.

대한민국 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본 쪽에다는 해 봐야 안 됩니다, 안 고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청 안 합니다 하고 요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리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 게, 요청한 것이 137건인데 그중에 24건만 시정이 됐어요. 정부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이런 문제는 사실은 외교부 창구로 일원화돼 있는

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부 차원에서도 만약……

○민형배 위원 아니, 문화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응이 필요하면 부처 간에 한번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항상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니까 그냥 시비를 걸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민형배 위원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얘기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자꾸 시비를 걸면 오히려 논쟁거리를 국제무대로 끌고 간다……

○민형배 위원 바로알림서비스를 개통해서 수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그래 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된다 이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제가 기상청, 외무성, 국토청에 다 봤더니……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답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요청은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 시정 가능성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시정이 안 될 것이니까 시정요청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정이 되든 안 되든……

○민형배 위원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안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제가 이것 뭐 그렇게, 바로알리기시스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체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민형배 위원 40초밖에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있지요? 그중에 국정목표 6번이 뭔 줄 아시지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여기에 3개의 약속과 10대 과제가 담겨 있는데요.

보니까 문화예술, 문체부 예산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지역 간 편차가 엄청 크고, 특히 압도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문화예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부 자체가, 사실은 서울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항의하거든요.

○민형배 위원 최근 5년간의 공연을 봤더니, 문체부에 소속돼 있는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분석해 봤더니요 서울 공연이 86.3%, 경기 3.7, 대구 1.3, 경남 1.2, 이것 좀 심하지 않

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취임한 이후로 아마 올해는 국립단체들의 지방 순회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여전히 5년 치를 보니까 86.3%,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의무적으로 지금 국립단체는 주문하기는 지역에 가서 먼저 오픈을 하고 서울로 오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86.3%가 서울이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좀 세게 해야 돼요. 그냥 보통 해 가지고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내년부터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맞습니다. 아주 래디컬(radical)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짤막하게 지난 질의 마무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다혜 씨 디자인비 관련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간행물의 발행·인쇄 내역, 납품·출고 내역, 거래·판매 내역 등 출판·유통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조금 전 미디어정책국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우리 사회 불법 증여의 아주 모범사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부가 분명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자료를 조사하셔서 종감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오늘 대한체육회 얘기도 나옵니다만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지난 번에 내놓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신동욱 위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5개 분야의 하자가 발견이 됐고 또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4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FIFA가 지금 끼어들었고.

지금 FIFA의 개입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냥 의례적으로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또 2차, 3차로 아마 레터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올림픽 출전을 못 하게 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만약에 저희들이 회장을 독단적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감

독을 해임시킨다든지 그러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FIFA에 혹시 통보는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안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할 겁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FIFA와 의견 교환을 하게 되면,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우리 국민 4명 중에 3명 정도가 정몽규 회장 또는 홍명보 감독의 교체를 요구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지요. 저는 이 문제는 축구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분명히 올바르고 공정하게 만들어 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그냥 한 사안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과정에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과정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조금 전 대한체육회 문제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제 감사 결과 나오면 그런 수단을 다 취할 겁니다.

○**신동욱 위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항목에 맞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본인들 수입예산으로 아무렇게나 인건비 주고 측근들 기용하고 월급 주고 이렇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거의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동안에 체육회가 자율 우선 얘기를 하고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 전관으로 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은 체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전국적인 조직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많은 부분이 갔지만 결국 그게 잘못 이용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승인받도록 하고 그런 부분 다 고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사도 광산에 관해서 여러 차례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도 광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가시지도 않고 있는데 제2, 제3의 사도 광산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나머지의 그런 자신들의 유산을 또 등록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 아시오 광산 그다음에 구로베 댐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게 2014년부터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1단계로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등재를 하는 거고 2단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는 것이고 그걸 거쳐서 3단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두 곳이 현재 첫 번째 단계인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일본이 이 두 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산청이나 문체부나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일본에 한중일 장관회의에 다녀오실 때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유산청이 2022년 11월에 낸 연구보고서에 보면,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장관님,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스스로도 제안하고 있어요. ‘향후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메이지유신, 사도 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유산 등재 추진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근대산업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산청의 스스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유산청과 문체부에 관련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자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일본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일본 아시오 광산과 일본 구로베 댐이 들어가게 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왔느냐면 관련 정보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이게 자료 요구의 불성실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유산 등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유산청과 문체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한국의 무형 유산 101건이 중국의 국가급이나 성급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온 답변이 뭐냐면 중국이 그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도하게 되면 그 때 가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 종합질의 때 다시 한번 좀 여쭤볼 될 테데 그때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문체부 소관 법률 중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의 이름처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장관님 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점,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3·1운동……

○박수현 위원 아니요, 독립운동의 기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일본에게 침탈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권이 침탈될 위기에서 그걸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공적으로 그것을 독립운동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훈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는데도, 동학농민혁명 2차 혁명이 거기에는 분명하게 경복궁 점령 사건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항거해서 농민혁명이 일어났고 마지막 1894년 우금티에서 3만~5만가량의 농민군이 전멸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일본의 국권 침탈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문체부 소관 법률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기념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보훈부만큼만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인정은 1895년 국모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을미의병부터가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우리 소관 법률인 만큼 이 문제를 국가보훈부하고 협의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이것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유공자를 반드시 서훈이 되도록 하는 일에 문체부가 앞장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도 종합질의 때 다시 한번 좀 여쭤볼 테니까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국가보훈부가 오히려 저희보다는 훨씬 더 유공자 대우나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박수현 위원 아니, 그건 사실인데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명예회복이나 나름대로…… 제가 동학기념일 날 참석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잤기 때문에.

○박수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보훈부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잘 보시면 왜 문체부가 이 문제에 좀 함께 나서 줘야 되는지가 분명히 법조문에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합질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오는 12월 8일 드디어 도서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얼마나 등록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총 1271개 중 156개라고 합니다.

도서관 등록제 목적이 도서관 서비스 질을 높이자라는 취지이고요.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히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공공도서관 수가 감소하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뽑으라는 사서는 안 뽑고 기준에 있는 사서를 빼서 등록 가능한 도서관에 돌려막기 하는 게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에 기준에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2개로 줄었습니다, 공공은. 그리고 지난 7월 2일 날 원래 사서가 1명이었던 2곳을 제외하고는 솔샘, 미아, 삼각산 등 3개 도서관을 강북·강북청소년도서관 이렇게 2개 도서관으로 사서 한두 명을 전환 배치를 해요.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7개에서 2개로 줄고 작은 도서관으로 5곳이 전환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서 수만 감소했지 그 크기와 도서의 수는,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된 곳은 사서가 모자라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또 업무 과부하 또 서비스는 질적 하락을 반드시 불러 오겠지요,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려되고 있어서 도서관 이용하는 국민 편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 엄격해진 기준 때문에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선택을 이제 구에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문체부도 개정에 찬성했던 그런 법안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문체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공공도서관 등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문체부가 배포한 등록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관별로 실행을 하므로 별도의 추진계획은 부존재한다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등록요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면 인구감소지역 특성 고려해서 사서 기준을 1명으로 낮추겠다, 특례를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사서 돌려막기 이것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수조사 필요가 있으니까 실태조사 계획을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리랑TV, 국제방송교류재단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달랑 이거 한 장 보냈어요. 자료 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 사장 공모 공고 및 지원자 모집 과정에 대한 문서, 김태정 사장의 지원서 및 관련 경력 증명자료, 아리랑TV 사장 임명 관련 내부 심사 및 평가 보고서, 아리랑TV 사장후보 선정 관련 회의록 및 결정 문서, 김태정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 및 결정 문서, 전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 시절의 주요 성과와 관련 자료, 김태정 사장이 아리랑TV 재직 시절 수상한 표창 관련 자료, 김태정 사장의 주요 공적 및 경력 관련 자료, 아리랑TV 사장 임명과 관련된 배경 설명 문서, 김태정 사장 임명과 관련된 외부 자문 또는 추천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이거 한 장 보냈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학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도 2개밖에 없어, 국제방송교류재단 센터장 및 팀장, 주식회사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 상훈 4개.

이것 가지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권력형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청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장관님, 양문석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가 듣기에는 제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아리랑TV에 대해서, 문체부 담당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위원장 전재수** 해 가지고 자료를, 아리랑TV 국정감사가 15일인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양문석 위원님이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국감 전에는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김태정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 경력, 유나이티드미디어 대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런 경력보다는 아리랑TV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아리랑TV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유나이티드미디어 김태정 대표 2007년부터로 물결표 하고 아리랑TV 들어갈 때까지 사장으로 아마 표현을 했나 보지요?

담당 공무원 누가 빨리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맞습니다. 07년부터……

○**양문석 위원** 07년부터 언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아리랑TV 임명되기 전까지……

○**양문석 위원** 아리랑TV 올해 임명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허위 경력이지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대표자는 김영아고요, 그리고 김태정은 배급 담당입니다.

허위 경력이지요? 경력 사기 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확인한 바가 아니라 2022년 1월 7일 8시 30분 자료예요. 허위 경력으로……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허위 경력입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이 사람? 이미 허위 경력으로 대표 경력 속여서 아리랑TV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의 사위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취업 청탁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석 차관보, 조선일보 출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예.

○양문석 위원 강훈 홍보기획비서관 잘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예.

○양문석 위원 최근에 통화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예.

○양문석 위원 인사 관련해서 통화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아니요.

○양문석 위원 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예.

○양문석 위원 통신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이 시기에.

강훈, 현재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언론인의 내정설이 돌고 있는 강훈 홍보비서관.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이 뭐 하는 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홍보수석 밑에서, 지금 저 강훈 비서관은 정책홍보비서관으로 정책실장 밑에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역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KBS 사장과 이사, MBC 사장과 이사, EBS 사장과 이사 그다음에 KTV 사장 그다음에 아리랑TV 사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강훈이라는 사람,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가 수족처럼 부리는 대통령비서실의 호위무사들, 그들이 용산 쥐락펴락’ 이런 기사가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과 강훈 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강훈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 내용을 재가받아 다시 강훈이 유인촌 장관에게 이 내용을 넣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제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차관보 이진석 제가 아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앉으세요.

장관님, 정말 장관님을 바지저고리, 핫바지로 만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분들하고 별로 통화해 본 적도 없는데요. 이 아리랑TV는 지금 자본잠식 다 당하고요. 사실은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아리랑TV를 잘 아는 사람을 보내자 해서 정말 나름대로 간신히 어렵게 고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료도 안 오고 달랑 이것 한 장 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리랑TV 감사 때 좀……

○**양문석 위원** 왜 강훈을 의심하고 김건희 여사를 의심하는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제보했던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강훈은 조선일보 사회부장, 사회부 법조팀장,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차장, 사회부 기획취재부 기자,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전 주필의 사위가 김태정 아리랑TV 사장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공식적인 경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경력이 없어요. 약 12년 동안 공직과 관련된 어떤 공식적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슨 표창을 하나 달랑 받습니다. 표창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왜, 문화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료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을 자꾸 증폭시키는 게 문화부 담당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김건희가 임명한 아리랑TV 사장하고 유인촌 장관이 임명한 아리랑TV 사장하고, 장관이 임명해야 되는데 김건희가 임명했다고 하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고 이것들을 검증하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맨날 위원장한테 고자질해 가지고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되고 김건희 비선실세, 의전서열 영순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양문석 위원** 누가 반성을 해야 됩니까? 제가 반성을 해야 됩니까, 장관님이 반성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반성이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화내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양문석 위원** 아니요, 열정적으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사실 누구 청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제가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아리랑방송 자체가 위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다가 정말 어렵게 거기도 찾은 사람이거든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4년을 한 사람입니다. 아리랑TV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공식 경력이 12년이나 끊긴, 그러면서 조선일보 전 주필 김대중 씨의 사위 그리고 경력 허위 이런 부분들이 튀어 나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자료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자료 15일 날 전에 드려서 15일 날 국감 하실 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때는 제가 열정적으로 토론 안 할게요, 열정적으로 토론 안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김대중 조선일보 전 주필 증인 채택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예,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현 위원 짧은 시간인데 좀 아까운 시간 하나 쓰겠습니다.

방송 하나 틀어 주실래요, 30초짜리인데.

(영상자료 상영)

오늘 국감 첫날인데요. KTV가 국감 중, 오늘 자정경에 자기들이 만들어 둔 방송입니다. KTV가 이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관리를 못하고 계신 문체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문체부가 엊그제 발표했던 보도자료가 KTV라는 허술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큰 사명감을 가지고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아서 급하게, 사실관계도 확인도 하지 않고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왈가왈부도 없이 여사가 단순히 선의를 가지고 지나가다 어떤 여성분의 연락을 받고 와서 격려 방문을 했다 이 사실 자체만 보도자료에 넣고 해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이건 용산의 사주다, 그런 측면에서 문체부에 책임이 있고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에게 제가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 그다음에 정책홍보비서관 그다음에 문체비서관과 통화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두 차례 재의 끝에 폐기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리고 야 4당은 끝까지 이 문제 관련해서 다시 낼 겁니다. 다음 특검에는 이 사항,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련 건을 특검안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병채 실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아까 9월, 10월 경에 3명의 비서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10월 경에 대통령비서실의 어느 누구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작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기현 위원 아니, 올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올해요?

○ 이기현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올해는 따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 이기현 위원 이 건 말고는 무슨 건으로 통화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소통실에서 문체부의 정책들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신수진 비서관한테요.

○이기현 위원 신수진 비서관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이기현 위원 언제 통화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한 9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행정관들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어떤 행정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현 위원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통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한두 번.

○이기현 위원 아, 신수진 비서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신수진 비서관은 저한테 문체부, 그러니까 다른 국정 홍보만 말고 문체부 정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달라는 당부를 저한테……

○이기현 위원 문체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

○문화체육관광부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예.

○이기현 위원 황성운 기조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3명의, 저한테는 보름 상간에 몇 번 통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닙니다. 신수진 비서관하고만 문체부 정책 관련해서 한 이삼 주 전에 통화……

○이기현 위원 저희 방에서 이 건을 가지고 KTV와 대통령실 그리고 문체부에 질의를 넣기 시작한 때가 이 시점입니다. 두 분이 이 건으로 통화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본인이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올지도 모른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KTV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청와대 행사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오전에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그렇게 본인이 대답하셨어요, 속기록에.

오전에 왜 이 공연에 갔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KTV에서 누가 계속 참석해 달라고 비서관님께 요청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아니, 저한테……

○이기현 위원 실장님께,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그 당시에 KTV 사장님이 의욕적으로 행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때도 아마 그렇게……

○이기현 위원 하종대 원장이 계속 연락 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예.

○이기현 위원 최재혁 방송기획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같이, 그러니까 하종대 사장님이 열심히 했고 그 밑에 같이……

○이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를 하셨냐고요. 누가 오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어디요?

○이기현 위원 공연장에 실장님 오라고 해서 가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행사 당시에는,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종대 원장하고도 아마 통화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최 방송기획관과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 이기현 위원 하종대 원장하고 통화했고요?

○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황성운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사실 제가 계속 묻지 않을 수 없는 건 그날 31일 그리고 11월 1일 이를 연속 서울 출장을 끊으셨어요, 서울에 와 계셨어요. 장관 된 지 며칠 안 되셨는데 그날은 대통령의 예산 관련 시정연설이 있어서 국회에 오셨고 오후에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 계신 그 당시 비서관 그다음에 전직 문체비서관 두 분께서 장관님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여사가 온 행사였는데 장관님께 보고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폐심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는 걸로 생각을 안 했겠지요.

○ 이기현 위원 아니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여사님이 참석하는 행사라면……

○ 이기현 위원 그런데 두 분의 관료들이 우연치 않게 가서, 한 분은 하종대 원장이 와 달라고 해서 갔고 또 한 분은 우연치 않게 청와대 출장을 끊었는데 공연을 하고 있어서 가서 봤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사가 우연치 않게 왔고, 그런데 하종대 원장은 계속 와 달라고 얘기했고,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여사님이 오는 행사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영접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이기현 위원 하종대 원장, 최재혁 방송기획관 본인들이 돋보여야 할 행사였어요. 장관님이 오시는 걸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KTV가……

○ 이기현 위원 저 뒤에 계신 두 분이 그 내용을 알고도 장관님께 연락도 안 드린 거예요. 현장에서 봐서, 만약 여사가 왔다는 걸 알면 현장에서 바로 전화했어야지요, 장관님 서울에 계신데, 국회 끝나고 그냥 대기할 수도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늦었던 밤이라서요.

○ 이기현 위원 5시 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늦게 오셨다는 게 아마 그 행사가 시작되고 나중에 중간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 이기현 위원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해서 왔다 가셨다라고만 얘기가 됐지요.

○ 이기현 위원 장관님께서는 자꾸 선의로 해석하시는 데 선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저는……

○ 이기현 위원 자꾸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선의나 미화로 표현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게 특검의 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문체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문체부의 전현직 비서관이 이 사건에 관여돼 계시고 문체부 예산 8600만 원이 사용된 내용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국악인을 단순히 격려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국악인들을 고발한 사건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속보로 봤습니다. 모 국민의힘 시의원께서 현장에 오신 국악인들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잘못했다,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돼서, 특히 참여했던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장관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는 고소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는데요.

○이기현 위원 속보로 떴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께 물겠습니다.

9월 5일 날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하면서 K-콘텐츠 복합단지 계획을 밝히신 적이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떤 거요?

○조계원 위원 K-콘텐츠 복합단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공개하면서 복합단지 조성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내용을 보니까, 10대 핵심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글로벌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콘텐츠 체험학교, 창업 제작센터, 글로벌 영상제작 생산거점, 신기술 인프라, IP세이프리지구,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K-콘텐츠 박물관, K-콘텐츠로 공간 디자인 등 복합단지로서 상당히 대단한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하남시의 K-스타월드 사업 관련해서 문체부가 조달청을 통해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요?

○조계원 위원 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게 진행 중인데, 진행 했다가 경기도하고 최근에 사업 협약은 해제됐지만 경기도에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건 뉴스를 통해서……

○조계원 위원 하남시, 고양시 둘 다 수도권이네요. 그런데 또 수도권으로 K-컬처 복합 문화단지를 만들겠다, 10억 정도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수도권에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예산이 안 돼서요 지금 사실 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큰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하여튼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 입지를 고려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에서 K-컬처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로 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못 합니다.

○조계원 위원 이번에는, 지금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을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질의에서 공연예술박물관 위법 이전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건 위원님 지적…… 원래는 아마 그것 처음에, 그것 예전에 제가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자료실로 시작했던 건데 나중에 이게 박물관 타이틀이 붙으면서 국립극장 내의, 국립극장에서 했던 것들이 전시된 것이라 아마 그런 개념이 없이 지금까지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계원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 심의 안건이, 이전방안 그건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심의 안건 두 번째, 공연예술박물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추진 이것도 토의하셨더라고요. 이 말은 결국 박물관을 신축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졸속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립극장이 지금 파주에 공개하는 수장고를 다 지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거기가 박물관 집적단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곳보다는 아마 훨씬 관람객 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과정은 좀 그런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사실을 인정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것들이 중복 투자를 통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장래적으로는 공연예술박물관을 새롭게 건립할 생각입니다.

○조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 펀드 운용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 펀드에서 지금 조성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번에 전략펀드를 과기부하고 같이 그 외의 금융권이라든지 통신 이렇게 해서 2000억 펀드 조성을 모펀드를 했고요. 여기에 자펀드로 민간에서 4000억 정도 올 연말까지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모펀드로 2000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닌데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2006년부터 2024년 5월까지 한국벤처투자에 1조 6416억 원을 출자했고 민간에서도 1조 7716억 원을 투자해서 총 3조 4132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가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틀린 자료를 받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운용되어 오던 거고요. 또 모태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한 6300억짜리의 모태펀드가 있고요.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그 펀드에서 실제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아마, 지금 벤처투자 쪽에서 모태펀드는 하고 있고요. 전략펀드는 아직,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될 텐데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아마 운용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지금 그동안에……

잘은 하고 있을 텐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 만큼 영화나 드라마가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투자를 시킬 예정입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에 결성된 펀드 금액만 해도 4286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8월 말까지 107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율이 25.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투자 분야가, 지금 영화를 얘기하셨잖아요. 영화나 방송 콘텐츠 분야, 게임 이런 부분들에는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분야나 출판, 만화, 음원 이런 분야는 거의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래도 대개 펀드 조성된 경우에는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대개 그게 생산성 있는 그런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보이는 것은 주로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이런 쪽에는 투자가 활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좀……

○조계원 위원 그래도 펀드라는 게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전시, 공연, 음원, 출판 이런 분야는 민간에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이번에 모태펀드에서 공연 쪽에, 그러니까 연극, 무용, 음악 이런 쪽에도 좀 투융자를 할 수 있는, 적은 액수지만 따로 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도 다음번에 말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투자보다는 사실은 지원 금액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조계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청와대재단에 대해서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용역을 다 준다라는 것 이제 아셨지요? 몰라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재단은 아직 그렇게 일할 만한 그런 재원은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얼마인 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00억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 다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 예산인데……

그러면 제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화물차 중개업체나 조선소 사내하청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청을, 말하자면 용역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맡겼으면 이 용역된 사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잘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재단이? 청와대 유지보수 상태를 보면, 여기 청와대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직접 청와대 가서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사랑채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고 상춘재 지붕 보이세요? 식물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 보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 다 떠나서, 아까 말했던 문화예술사업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보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까지 마련이 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런 사진 안 찍히도록 다시 잘 지시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청와대가 경내가 상당히 넓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그리고 화장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보에 따르니까, 제가 이것은 스티커까지 붙여 놨습니다. 관람로에 용변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직원들이 치우는 사례가 꽤 많고, 제가 간 날 마침 저렇게 용변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4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느리게 걷는 숲길,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와대 숲길에서. 청와대 숲길 트레킹하다가 아주 민망한 장면을 볼 확률이 꽤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런 일이……

○강유정 위원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놀랍습니다.

○강유정 위원 청와대재단이 있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제대로 된 강연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청소와 미화 정도도 되어 있지 않고, 청와대재단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장관님이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좀 이건 방치가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이 들 정도인데요.

또 있습니다. 용역에 맡겼어요. 그런데 작성된 산출내역서에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지요.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일수당 등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 용역 맡았던 주식회사 휴롭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 다 정리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강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앞으로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겠다라는 게 문체부 공식답변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과소 지급된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유정 위원 35명에, 많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뒤에서 얼른 답을 주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44만 원, 예.

○강유정 위원 2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고, 또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허점이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체부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대답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출받겠다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 보존 관리도 안 되지요, 그리고 주요 일들은 다 용역을 맡겼지요,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과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청와대재단 왜 만들었고 이사장 뭐하시는 분입니까, 임명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사장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고요.

○강유정 위원 얼마 안 됐다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리고 또 이사장도 하실 분이 너무 없어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청와대 왜 거기 굉장히 큰 청사진을 세우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앞으로 지금 이제 리모델링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시 들어가면 재편성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해서 제가 받아 봤을 때도 공연, 전시, 강연,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예산 쓰려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제가 일일이 읽지 않더라도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산책, 7월 콘텐츠 전통 공연 그다음에 갑자기 장애인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청와대 설맞이 문화행사. 그냥,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아무거나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그런데 벌써 2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있었던 걸 보니까 청와대 개방한 지 2주년이 되도록 이토록 해매고 있다라는 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 고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잘못을 계속 인정하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아니라 정말 무계획적으로 청와대 버리고 나왔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활용이라도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얼마나 잘 리스트 업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황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지금 용역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프로그램만 만들고 있는 건 매우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장관님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세계스카우트 챔버리 케이팝 수퍼 라이브, 상암에서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거기서 문체부가 여기에 얼마나 대관료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임영웅 콘서트 대관료가 10억 원 내외고요 세븐틴 9억 7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잘……

○강유정 위원 0원입니다. 대관료 0원이었고요.

그래서 잔디가 크게 손상돼서 그때 굉장히 회자됐던 것 아시지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와서 잔디 때문에 장관님한테 읍소도 한 번 했는데 그때 책임지겠다 그런 대답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잔디에 대한 손상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비용 2억 3000만 원 지출해서 올해 5월까지 보수공사 마쳤다고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9월에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할 때 잔디 품질이 너무 좋지 않다, 그때 이임생 이사가 한 잔디 얘기가 그 잔디 얘기인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문화계하고 체육계의 싸움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여름에 6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 지금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랑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딱 이 2개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문체부에서 케이팝 전용 공연장 관련해서 실시한 연구용역 있지요? 몇 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4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건도 전부 CJ라이브시티 관련된 용역이니까 이를테면 공연장과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축구협회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도 축구협회 당당한 감사를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 수요 충족할 야외 대체 공연장 준비를 해야 될 텐데……

- 공연업계와 토의 가지셨지요? 몇 차례 가지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여러 차례 했습니다.
- 강유정 위원** 두 차례 가지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여러 차례 했습니다.
- 강유정 위원** 두 차례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들이 꼭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 강유정 위원** 문체부가 공연업계와 대형 공연장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에 관해 두 차례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기도 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 관계자가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 강유정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2023년 11월, 그때는 부임하신 이후예요. 공연이 가능한 유휴 공간 목록 만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떤 거요?
- 강유정 위원** 이렇게 공연 가능한 유휴 공간 목록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유휴 공간?
- 강유정 위원** 예, 만들어야지 공연할 수 있게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연구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목록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일단 저희들은 올림픽공원의 체조경기장이나, 우선은 건축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 강유정 위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은 아직도 취합 중이라고 왔어요. 아직 목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아마 공식적인 아레나를 건립하는 얘기일 겁니다.
- 강유정 위원** 무슨 말이냐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 문화계와 체육계가 지금, 기사 검색만 해 보세요. 누가 공연을 해서 잔디를 망쳤는데 잔디를 망친 게 누구 탓인가를 서로 싸움을 붙이면 안 되고 대형 실내공연장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시고,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문체부인데 지금 너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종감 때까지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건지 좀 구체적인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앞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이렇게 보면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공시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하도록 돼 있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1개 기관 중에 대부분은, 징계사유 이런 것들을 즉시 자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한 6년이 지나 가지고 징계사유 공시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보면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기본적인 법령상의 규정조차 안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앞서 증인·참고인에서 예술강사를 대표해서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성격상 문체부보다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예술강사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중단 없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장관님 말씀처럼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처럼 적극적으로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교육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아직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불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강사들이 그런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이관 과정에 있어서 문체부가 좀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한글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578돌 한글날인데 작년에 광화문 현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건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한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한글로 바꾸는 걸 떠나서 지금 현재 글자가 누가 쓴 글자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바꾼 현판 글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훈련대장.

○김승수 위원 이 훈련대장, 당시의 훈련대장 임태영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글자를 우리 진짜 역사 문화 유적의 간판적인 경복궁의 현판에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진짜 우리나라의 수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이분이 보면 여러 번 진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고 파직되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길주목사 시절에는 암행어사한테 적발이 돼 가지고 탄핵을 받고 삭직을 당했었고, 철종 때는 또 이분이 보면 철종 당시 경신박해의 원흉입니다. 조정의 재가도 없이 아주 자의적으로 천주교도들을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재물과 관련된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경신박해를 일으켜서 또 삭탈됐던, 파직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참 무슨 재주가 있는지 오똑이처럼 계속 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 때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 가지고 총책임자, 훈련대장을 하면서 영건도감제조라고, 영건도감이라는 게 경복궁 중건의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광화문 현판을 쓰게 된 것이 당대 천하의 명필이라서 쓰게 된 것이 아니고 경복궁 중건의 책임자라는 지위를 어떻게 보

면 아주 악용해 가지고 자기 글자를 남긴 겁니다.

이렇게 공직 생활의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리로 얼룩진 사람 그리고 또 실제 광화문 현판을 썼을 때 자기 지위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 가지고 글을 남긴 사람, 이런 글자를 떡 그냥 그때 중간 당시의 글자라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쓰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글을 가지고 경복궁 광화문을 계속 본다는 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저것 누가 쓴 글자냐, 그 사람 어떤 사람이나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로 교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장관님, 2025년도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된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액됩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지금 차입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국회 의결 때 이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잘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작년에 제가 이를 악물고 호랑이처럼,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다른 것 운영비 건드려도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라고, 만약에 그 인건비 건드리게 되면 문체부 인건비 다 삭감시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TV 인건비 50%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인건비를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이것 완전 언론 길들이기예요. 전문가가 오게 되면 인건비 50% 삭감된 것 다시 증액해 줘요? 이것 정확하게 문체부의 입장 표명하지 않으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아리랑TV가 모든 피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서 청와대재단 윤병세 이사장님이, 청와대재단 이사장으로 올 사람이 없어서 전 장관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전 장관들 예우해 주기 위해서 탈바꿈한 자리입니까? 그 청와대재단 이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오시려고 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 임오경 위원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으면 장관님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일 잘합니다. 공무원들 보내세요. 그러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분 유능한 분들 많으세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체부의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문체부는 작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227건, 총 706억 원어치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문체부는 무슨 근거로 700억 원이 넘는 계약들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유찰됐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거나 기타 긴급행사거나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임오경 위원 227건이 다 기타 등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다음에 2000만 원 초과되는 건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 수의계약 중에서 제가 결산심사 때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문제 삼았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도 있고요. 장관께서 올해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인정하신 28건의 정책 연구용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들 내년에는 중단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중단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두 번째로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관님. 문체부의 하는 행동을 보면 꼭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문체부는 몇 대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난달 산하기관인 대한체육회 수의계약은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서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관련 답변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 문체부 체육국장님 거친 분들 다 뒤에 앉아 계시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수의계약에 관련된 문체부의 오락가락 태도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불과 작년만 해도 문체부는 후원사 수의계약 전용이용권 설정 관련 저와 이채익 전 문체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이었고 당시 차관도 법안소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1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장차관 바뀔 때마다 입장이 짹 바뀌어 버리는 참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시고 계시고……

공식 후원사 피복 구매 등 예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의 문제가 지적된 거는요 원래는 스포츠산업을 키우자는 의미와 체육회의 자율성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응낙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기타 다른 악의적인 여러 가지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수의모델을 창출하여 자립도를 높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렇게 매번 지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단체들 다 재정자립도 낮은데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원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지요.

○임오경 위원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렇다면 후원사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식 후원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해서 공식 후원사를 선정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국가대표 피복 같은 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문체부하고도 다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문체부는 하고 싶은 대로 핑계를 대 가면서 227건이나 수의계약 마음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산하기관들은 안 된다…… 한 6건이 나왔었지요? 그게 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저는 문체부가 먼저 하지 말고 산하기관에 못하게 말을 해야지 문체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하기관은 안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체육단체들 후원 못 반계 하시려면 다 방법 있어요. 내년에 예산 더 편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원받지 말라고 하세요. 피복 하나 받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 2억 내고 12억씩 가져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것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까요, 체육회?

○임오경 위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문체부에서는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산하기관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애초에 스포츠산업을 키우자고 그런 부분이 많이 허용됐었는데……

○임오경 위원 문화예술·스포츠에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하지만 공식 후원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후원사에 관련돼서는 피복 같은 거랑 받을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랑 연관 지으시지 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 입장을 전 21대 국회에서도 문체부에서도 다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 말 바꾸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와서 보고 불합리한 지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저도 문체부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없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24년도, 23년도 문체부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대개 거기에 맞는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걸, 본부 공무원이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의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해서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시정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시정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대한체육회도 시정하라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체육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체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227건 건별로, 지금 장애인·여성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명자료 다 만들어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수의계약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예, 227건 건별로.

지금 장관님은 당당하게 장애인·여성 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별로 이 부분 다 소명자료 만들어서 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골프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골프하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전에는 했는데……

○**민형배 위원** 요즘은 못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주말에는 종종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요금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모르겠습니다, 간 지가 오래돼서요. 그래도 대충 말씀주시면……

○**민형배 위원** 2022년에 문체부에서 골프장, 그러니까 코스 이용료, 흔히 그린피라고 얘기하지요. 코스 이용료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낮추겠다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게 대중형 골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용료 상한을 만들었어요, 주중에는 18만 8000원 주말에는 24만 7000원.

그런데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클럽72 같은 곳은요 주말에 35만 원 주중에 31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너무 많이 비싸네요.

○**민형배 위원** 대중형 골프장 이걸 누가 가서 치겠습니까, 이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요즘 그래서 사람이 많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젊은 친구들이.

○**민형배 위원** 아니, 떠났더라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요금제가 잘못돼서 골프산업이 점점 더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무슨 통계를 보니까 골프를 하는 분들이 624만 명이래요. 그러면 엄청 많은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대중 골프장이 그런 가격을 받는다는 건지요?

○민형배 위원 예, 대중형 골프장이. 그런데 클럽72는요 더더구나 공공기관 소유예요. 아시겠지만 인천공항공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주말 24만 7000원 그랬는데 35만 원 받아요.

이게 지금 점점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이 상한 이상 받지 말아라 그랬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을 요금 상한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는데요, 회의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28일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코스 이용료 상한 적용을 문체부는 상한을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체부의 의견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별 평균치를 하자고 해 버려요. 그러니까 3·4·5월하고 9·10·11월 해서 평균치를 내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수기 때는 40만 원 받아 버리고 비수기 때는 15만 원 받아서 평균치를 다운시킬 수 있게 했잖아요. 이런 일 이.....

대중형은 아시는 것처럼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중은 사실 이렇게 높으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수도권은 엄청 높다니까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해요, 이런 데는 35만 원이 나오고.

이것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잡으려면 원래 문체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기준을 계절별 평균을 적용하지 말고 원래 해 놨던 상한제를 둬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상한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18만 8000원하고 24만 7000원이면 수도권은 어쩐지 모르지만 지역은 지나치게 비싸고요. 수도권도 저는 비싸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바꾸면 평균 한 2만 원 안팎씩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좀 특별난 데가 그렇지 않나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표로 보셨지만 대개 29만 원, 30만 원, 거기만 35만 원이고 특별히 많은데요. 대중형입니다. 비회원제도 아니고 회원제도 아니고 대중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원제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 회원제야 자기들이 100만 원을 내고 치든 10만 원을 내고 치든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그건 그야말로 시장 논리에 맡겨 놓으면 될 일인데 대중형이라고 해서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 곳에서 이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가능하면 다시 기준을 바꿔 보도록.....

○민형배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기준도 상한선도 높다, 좀 더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대중형 골프장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기준치 이상으로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요금 얘기를 해요. 업자 편 들지 말고 이용자를 편을 들어 주시라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오전에 업무보고 또 인사말씀 하실 때 문화로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죽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문체위원이 처음 돼서 아무리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가장 기본적으로 걱정이 돼요. 예산 문제예요. 이것 하려면 정말 예산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장관님 지난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질문드렸을 때, 예산 걱정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확보 노력하겠고 또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이 내년 2025년 정부안의 1.05%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1.06%였습니다. 오히려 678억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다고 이야기되는 2010년에 1.04%였는데 그리고 보면 내년도 1.05%는 2011년부터 2025년 까지 15년 동안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관련 업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고 걱정도 많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추진 또 항공 출국 납부금 경감, 그래서 영화계·관광업계가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 문체부는 재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더구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2번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사찰 보존 예산은 2024년 277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서 10%가 감액된 250억 원만 반영됨에 그쳤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비율 폐지 이 문제도 2025년 정부안에서 전년 10% 대비 20%로 오히려 부담 비율이 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학교예술강사들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장관님께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돼서 감액된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문체부에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믿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와중에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업은 예산을 또 대폭 늘리셨어요.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용산 이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용도로 거론되는 청와대 리모델링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게 24년 300억 원에서 정부안에 25년 420억 원으로 39%가 증액되었어요. 장관님은 물론 이것이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늘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국정홍보 예산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정부안까지 문체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1.9%에 그치는 동안 7.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정홍보 예산을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정부가 일을 잘하면 굳이 홍보 예산 안 늘려도 국민이 더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장관님, 이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올해 내년 예산 하면서 정말 많이 설득도 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지금 프로테이지까지 계산은 못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목표 정도로는 7조 5000억 정도는 올해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 실제 6조 9000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프로테이지상으로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상향된 수준으로 예산을 맞췄어요, 원하는 만큼은 다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추가 예산편성될 때 저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걸 또 빼고 새로운 게 들어가면 결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면서, 특히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저희들 생각보다 올해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게 출판 예산이라든지 그 외에 순수예술 쪽의 예산, 물론 종목 차이는 있지만 영화 쪽의 전체적인 예산 이런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증액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건, 사실 1.5% 정도를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긴축재정 관계로 그건 더 이상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지난 10월 2일 대한축구협회 감사 중간결과 보고를 보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맹탕 감사다 이렇게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 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국회 현안질의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하지만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면죄부성 발언을 했는데요. 국회와 대다수 국민들께서 과정 자체가 채용비리다라고 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현준 감사, 축협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눈높이는 신경도 안 씁니까? 어떻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계약 자체가 유효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축구협회, FIFA 공문을 공개했지요. 축협 측은 2026년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 답이 너무 뻔합니다. 너무 작위적이잖아요. 축협이 FIFA에 SOS 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우리 정부하고, 특히 장관께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요.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이 개입할 정도로 큰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재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FIFA 경고에 신속하게 정당성을 밝혔기 때문이고요. 긴장 해소되고 문제 해결될 수 있었습니

다.

FIFA는 국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부당 개입 또는 인사권 행사하는 일이 있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국회 현안질의와 정부의 감사는 정치가 축구협회장을 내정하거나 협회를 해체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축협이 국가예산을 쓰는 상황에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감독 선임하고 명백히 부정을 저지르는 것같이 보이니까 축구팬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은 FIFA의 규정 자체는 존중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축구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FIFA에도 본 위원 당부합니다. 지난 홈리스 월드컵 과정에서 FIFA PR 매니저가 방한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FIFA도 축구협회도 문제 해결 못 했고 결국 본 위원이 도움을 주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일에도 최선 다하고, 공문 한 장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FIFA의 발언이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양문석입니다. 열정 빼고 품격 있게 가 보겠습니다.

장관님, 축구협회 협회장하고 감독 문제를 우리 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김승수 위원도 신동욱 위원도 계속 걱정을 하시고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위원도 계속 걱정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 좀 하고 좀 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 때 ‘장관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자격 없는 총괄이사가 선임한 감독은 합법적인 감독입니까, 불법적인 감독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때 장관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볼 수 없지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서 라디오에 나가서 ‘감사를 통해 만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감독이 선임됐다고 하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소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변함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변함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최현준 감사관, 최현준 감사관이 감사 중간발표하면서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 과정에 하자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입장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축구팬들이 난리가 났지요? 문화부한테 뒤통수 맞았다 하고 난리가 났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 누구랑 토론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우리 감사관 내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양문석 위원** 감사관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예, 감사실 내에서 이야기……

○**양문석 위원** 감사실 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감사실 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 실무진들하고요.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열정 빼고 품격 있게 갑니다.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감사관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예.

○**양문석 위원** 장관은 그러면 핫바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보세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양문석 위원** 그러면 장관이 지난 현안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볼 수 없겠지요’라고 장관이 말씀하셨고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관의 영이 서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공개적으로 국회에 와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감사관이 내부 토론을 한 결과 감사관끼리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기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감사관이 이걸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러면 체육국장하고 체육부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국민소통관하고도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잘못 됐습니까? 열정 과잉입니까? 품격이 떨어집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저희는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서 감독이 선임된 절차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계약의 유지나 변경이나 취소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명보 감독은 계약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축구협회 절차의 하자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계약의 유지를 저희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그게 그 말이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업계 전문용어로 말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내용이, 그러면 지금 감사관께서는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예,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진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리고 해명을 하고 그리고 장관의 입장이 여전히 문화부의 입장이야라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후속 해명자료 나갔습니다.

○**양문석 위원** 문화부가 그동안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낙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나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양 위원님, 이게 제가 볼 때는 발표 때는 제대로 했는데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질의응답에서 아마 계속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뽑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문석 위원** 장관님, 그러면 장관님 입장을 받아들이면 그냥 감사관이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의는 기존의 장관 입장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진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해석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한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관, 다시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사과하세요, 국민들 앞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예, 하여튼 위원님께 오해를……

○**양문석 위원** 저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오해를 촉발했다고 한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최현준 감사관님, 양문석 개인이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감사 결과 발표하고 그다음에 백브리핑한 이후에 많은 축구팬들이 문화부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엄청난 댓글이 쏟아지고 각종 유튜브에서도 분노가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예, 저는 그 무효……

○**양문석 위원**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축구팬들에게 명확하게 감사 결과대로, 하자가 있으면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장관의 입장이 유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최현준** 저는 장관님 뜻하고 같고요. 다만 저는 무효와 취소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이 아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다혜 씨와 출판사의 계약 2억 5000만 원은 단순히 문다혜 씨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문다혜 씨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후 출판될, 대통령의 퇴임 후에 출판될 책에 대한, 그것이 세 권일지 네 권일지 다섯 권일지 모르지만 그 책에 대한 인

세가 그 한 반쯤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귀속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문다혜 씨의 비용 그리고 그 출판사 사장과 문다혜 씨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그 두 사람 간의 사적 채무관계가 포함되어서 2억 5000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 보도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윤석열 정부 지역문화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자료집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윤 정부 들어서 지역문화 예산이 급격히 감액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급격히 감액되기 시작했는데 202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며 2021년도 예산 대비 43.7%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485억 원에서 2024년 2676억 원으로 1809억 원, 40.3%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문화 예산이 감소하면 장애인 지역문화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기 어렵다 생각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정부 전체로 얘기하면 회의 때마다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우리 부처 지역문화정책국의 예산이 작년보다 좀 더 줄었고 또 특히 코로나 때와 그 이후에는, 그때는 워낙에 급할 때였으니까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줄었는데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부터 지역에 좀 더 확실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조계원 위원 믿어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뭐 어차피 상임위에서 계속 보고를 하게 될 테니까요. 조금 더 계획이 정교하게 정리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윤석열 정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지역균형 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라면서 지역문화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는데 이 말이 허언이 아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복권기금법을 개정해서 지역문화와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이런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책적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혹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지금 다른 행안부라든지 그 외에 해수부나 농수산부 같은 데에도 지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같이 해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해수부하고도 어촌 살리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산업부하고는 지금 산단 쪽 접근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문체부는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개 사업, 8814억 원을 지방에 이양을 했는데요. 지방에 이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한 번 이양하고 나서 사실 그걸 계속 사후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이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집행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안되면 사실상 사업이 소멸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실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지역문화 정책의 협력 체계를 위해서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다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방안은,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리 산하기관에 지역문화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흥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진흥원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단위고요. 이건 협의하는 단위지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그래서 이건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서 좀 실행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실제 지역의 실무자들은 제가 자주 만납니다. 때마다 우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별로 해서 실무의 과장들이나 국장들하고 회의는 그동안에 몇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시켜서 보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에 정책과 사업 협력을 함에 있어서는 단기적 사업보다는 3년 단위 이상의 중기 협력 체계로 끌고 가는 게 안정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이 지금 일몰사업이 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닙니다. 이번에 열세 군데 문화도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조계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바뀌었지요,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오히려 그 전의 문화도시사업에 비해서는 예산도 훨씬 더 늘어난 것 같

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 확실히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기존 문화도시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그냥 연도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계속 나갈 겁니다.

○조계원 위원 아, 그 사업은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중단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미 종결된 데도 있고요 1년 남은 데도 있고 2년 남은 데도 있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을 함께 있어서는 도시재생 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 이런 것들과 적극적으로 좀 연계해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지역문화 생태계, 지역주체와 시민 역량의 강화, 지역 협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요,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지요? 아닌가요?

○위원장 전재수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재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오경……

죄송합니다.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님,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상임위에서 장관님을 뵙다 보니까 두 번째 장관의 경험이 직무적 수월성이 아니라 대답 회피의 기술을 많이 높여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오해를 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제 대답에 대한 너무 소극적인 책임 회피 관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두 번이나 경험한 전문가의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안 보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유정 위원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모른다는 얘기는……

○강유정 위원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올해 몇 번이나 북으로 날려 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몰라도 됩니다, 숫자 문제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까지 제가 체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73회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생필품 이

런 건 뺄게요—드라마 ‘겨울연가’, 나훈아·임영웅 콘서트 동영상을 담은 USB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걸 우리가 오물풍선이라고 부르지요. 이게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북한에서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아요? 이것 다 저작권에 괜찮은 것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그런 문제의 저작권……

○강유정 위원 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아니요, 그런……

○강유정 위원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PPT 보여 드릴게요. 이제부터 공부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문체부와 입법조사처에 제가 물어봤더니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USB에 저장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가 발생하고 이를 다수의 공중에게 양도하는 것은 바로 무단 배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문체부에서 답을 했는데 또 장관님이 이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복사를 한 것인지 그게 문제지요.

○강유정 위원 그래서 그 대답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콘텐츠 취득했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권리자 허락 없이 불법 복제, 불법 배포한 이상은 여하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강유정 위원 그렇지요,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133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께서 불법 복제물 또는 관련 기기를 발견할 때에는 수거·폐기·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현장에서 못 가고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북한 가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문체부장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 133조에 의거해서 불법 복제물의 수거도 하셔야 되고요 폐기 및 삭제 조항에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USB를 확인해서 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적극행정하는 모습 보여 주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참 문화부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강유정 위원 예? 적극행정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가 참 큰일 났다고요.

일단 불법 복제는 확실하게 저작권 위반이고요.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전에 정말 많이 수거도 하고 폐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저작권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적극적 시정조치하신 적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많이 했지요.

○**강유정 위원** 어떤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 특사경도 있고요. 이렇게 불법물을 수거하고 폐기하는 것은 늘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강유정 위원** 그 부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무부처인데 한 것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제가 물어봤더니 저작권 당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임영웅 씨나 나훈아 씨가 직접 대처해야 된다라는식의 소극적 답을 하고 있어요, 관리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강 위원님, 제가 2008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고요.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에 가는 나훈아·임영웅 콘서트 동영상, 드라마 '겨울연가'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거 말고, 수거는 했다고 하시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게 불법 복제인지 또는 돈 주고 산 건지 그 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본인한테, 나훈아 씨, 임영웅 씨한테 혀락을 안 받았으면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이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복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저작권료가 지불된……

○**강유정 위원** 그런 것을 저한테 지금 여기서 불분명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위반이 없는지를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문체부장관께서 나서야 돼요. 게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라디오, TV 등을 통해 더 많이 깨닫고 가치에 눈을 띠야 된다라고 정보 접근권이라는 조금 독특한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물풍선 이걸 다 떠나서 적어도 문체부장관은 여기서 침해받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국무회의에 가셔도 이 부분의 저작권 해결하고 보내라, 당사자 만나서 저작권 문제는 확인했느냐라고 저 대신 물어봐 주셔야지요. 이것 오물풍선 보내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장관께서 적극적인 행정과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문체부 뜻의 목소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이것도 제가 종감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은 제가 장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하나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추가질의 하나 더 있는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퍼블리시티권이 결국은 저작권의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개인의 초상권 문제랑 관련되어 있고, 예술인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도 개정을 하셨어요. 큰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재산권이에요. 자기의 외모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권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지방관광 특화상품 11개 출시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자연, 식음 그리고 케이팝 등을 소재로 관광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 상품 살 수 있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살 수 있겠지요.

○강유정 위원 살 수 있게 돼 있고 꼭 가 봐야 하는 케이팝 전국일주 5일이라는 상품도 거기서 팔고 있어요. BTS 등 케이팝 관련한 주요 장소, 촬영지, 기념거리 이런 곳들을 찾아가는데 4박 5일 일정으로 13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PPT 봐 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얼마나 판매됐느냐고 했더니 판매가 잘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예술인에게 귀속이 되고 계약기간 중에는 소속사 등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BTS는 하이브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예술인들과, 하이브랑 혹은 BTS 멤버들과 협의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협의는 안 했고요. 아마 이게 하나투어에서……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가 확인했느냐고 묻는 거지 장관이 직접 협의했느냐고 묻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하지요. 그건 아마 벽화를 해 놓은 것을 여행사가 모객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 가면 그걸 구경할 수 있다고 상품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강유정 위원 내놨지만 BTS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이브하고는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어떻게 정리가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아마 그 상품을 판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하지만 앞의 BTS라는 이것 보세요. 이것 딱 PPT에 떠 있네요. 대구 뷔 벽화거리, 대구 슈가 벽화거리에서 ‘뷔’하고 ‘슈가’만 뺏어요. 똑같이 가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전혀 소속사와……

사실은 문체부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는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소속사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한국방문의해조직위원회에서 아마 선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열린 관광지의 의미가 원래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이런 일은 못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BTS 벽화가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비장애인들이 가는 곳이 열린 관광지인데……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고

령자, 영유아 가족이 모두 쉽게 접근하는 곳이 열린 관광지인데 이걸 애매하게 해석해서 이 불법행위를 ‘열린 관광지라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라는 개념을 만든 문체부인데 그 개념을 오해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를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에 굉장히 예민하신 장관님이시니까, 이것 이렇게 지적을 받은 곳만 삭제했어요. 나머지 부분도 삭제해서, 이것도 종감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동욱 위원 아닙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좀, 강유정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콘텐츠 복제물 유통 대응조치를 보면 2019년도부터 죽보니까 국내가 32만, 해외 19만이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 34만 건, 해외가 55만여 건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은데 조금 전에 질의를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저작권보호원에서 적발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적발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음반을 살 때는 이미 그런 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팬찮은데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미국에서 불법 복제물이 다니는 것을 임영웅 씨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적발을 못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질문에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외에서 불법 저작물, 침해되는 게 굉장히 심각해서 이게 피해가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굉장히 저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라든지 또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개 해외의 경우는 USB나 이런 게 아니고 불법 사이트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제공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폴에 수사 의뢰도 하고 현재 나라마다 지금 MOU를 맺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작권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 나라와 확대해서 저작권 관련 불법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MOU를 계속 맺어 갈 생각입니다.

○**신동욱 위원** 유튜브에 침해되는 저작물 이것은 지금 잘 단속을 못 하시는 거지요? 이를테면 드라마를 압축해서 보여 주는 콘텐츠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패스트무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예, 패스트무비 같은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부분도 합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자기 임의대로 막 편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북한에 보내는 USB도 염밀하게 따지면 제가 봐도 저작권에 침해될 소리는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명확하게, 이게 국가 외교·안보상에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는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없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오늘 강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로 또 민간단체에서 날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여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하여간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종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중가수들의 노래를 전파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작권 문제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합법적인, 그렇게 저작권이 다 지불된 그런 것들은 보내도 관계가 없겠지요.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짧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아까 제 말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탈북민단체의 USB 구입에 대한 확인 및 살포 중단을 요청한 적 있는지 문체부에 물었더니 권리자의 신고가 없어서 어떤 확인 및 중단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문체부가 탈북민단체에 저작권법을 근거로 살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는가라고 또 제가 물었는데 권리자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개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강유정 위원** 저작권법에 엄격하시면서요. 관대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저작권도 상업적인 게 아니고 비영리로 쓸 때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 순서로 재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한 명 잡기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괴물 집단이 되고 정치집단이 되고, 참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기홍 회장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세요. 왜 83개 가맹단체들까지 잡도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임오경 위원 없는 것 같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한 종목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가맹단체들은 자료제출로 인해서 과부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83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뭘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체육계는 그래요. 한 종목이 문제가 발생하면 잘하고 있는 종목에게는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합니다. 모든 종목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한 분을 잡고 싶으면 나머지 종목단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당근을 주십시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자료 요청으로 일이 과부하돼서 협회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종목단체들은 성적 못 내면 해체될까봐 걱정하고 내년도 예산 삭감될까봐 걱정하고 또 올림픽 출전 못 하는 종목은 또 예산 삭감될까봐…… 올림픽 출전 못 하는 종목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요.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 못 하면 죄인인 듯 고개 숙이고 빨리 귀국합니다. 조용히 없어집니다. 이 현실을 알고 계세요?

언론에 비쳐지는 것은 메달 획득한 사람 그리고 문제 종목, 하지만 그 뒤에서 같이 맹목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한 분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해결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보니까 생활체육 예산 416억 지자체 직교부를 통한 체육계 길들이기를 벌써 시작하셨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 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이것 문제 생기면 문체부가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 직접 감사하시겠어요,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제가 생기면 해야지요.

○임오경 위원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이것 제가 분명히 8월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한 적이 있지만 행정 비효율성이 초래되어서 사업 승인 지연, 정산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도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경우에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 직접 교부할 경우 지자체장은 배드민턴, 탁구 등등 표가 많은 데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아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이런 것도 문의해 보세요. 우리가 표 많은 곳으로 다 따라다녀요, 지자체장도.

그런데 생활체육 인기종목 위주로 이렇게 투자하고, 과연 그러면 비인기 종목 어떻게 살릴 겁니까?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이것? 결과적으로는 이것 표풀리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오경 위원** 예, 지금 생활체육교부금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도 한번 정도는 고려해라.

그리고 또 생활체육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이건 발생합니다. 체육시설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우리 생활체육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저렴한 문화시설 투자로 선호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봤더니…… 이정우 체육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3월에 문체부 주관으로 지자체 체육국장회의 또 5월에는 지자체 체육과장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고 거기서 지자체 국장들이나 과장들도 상당히 동의하셨습니다.

○**임오경 위원** 동의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임오경 위원** 어이구,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다 조사해 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결국 반대 여론에 문체부가 회의 자료까지 다 걷어서 갔습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과 문체부의 얘기가 너무나 상반되게 달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니, 일부 지자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지만 그 자체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시 한번,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지방체육회 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예산도 내년부터 대한체육회 폐성하고 문체부가 직접 교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학생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오경 위원** 예,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 장관님, 대한체육회 문체부가 다 그냥 관리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것 길들이기 아닙니까? 왜 조금 조금씩 가져와요? 한꺼번에 그냥 다 관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말 안 들으면 방법 딱 있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째끔째끔 예산 가지고 장난질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니, 저희는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국가대표 훈련지원비까지 문체부가 직접 교부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연구용역하고 있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연구용역은 지금 각 경기단체연맹에 주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주는 것이지, 사실 국가대표에 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미란 차관, 이것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국가대표 훈련지원비까지 훈련비 점검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지요, 8월부터? 8월부터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임오경 위원** 왜 답변들을 안 하십니까? 8월부터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가대표 훈련지원비 하계 종목 570억 원, 동계 종목 127억 원 등 연구용역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미란 차관에게 이번에는 물어볼게요.

장흥 체육인재센터 내년에 운영 예산 제로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28억 규모로 알려졌는데 내년 예산 0원입니다. 유령 인재센터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장흥까지 멀리 인재교육센터 해서…… 지금 이기홍 회장 하나 때문에 왜 체육단체들이 이렇게 좋은, 장흥에 이런 인재센터를 만들어 놓고, 좋은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혁신하고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이 0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로잔, 분명히 장관님도 그러셨고 4억 원 예산 승인해 줬다고 8월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영 안 됐더라고요. 이게 승인 전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로잔은 올해까지입니다, 예산이

○**임오경 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답변에 있어서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올해까지.

○**임오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이 업무 보고하는 데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콘진원 같은 경우 해외 비즈니스센터 확대를 해서, 2023년에 15개소였는데 2024년에 25개소 기업지원센터 신설했지요? 스포츠는 왜 배제시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해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예, 해외에서 왜 배제를 시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스포츠도 해외 센터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임오경 위원 센터가 아니라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있는데 왜 예산을 반영 안 시키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요 작년, 올해로 잔에서 뭘 했는지 한번 죽 검토해서 보고드릴게요.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관님, 저는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싶지 않아요. 스포츠도 외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필요하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반영하세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대한체육회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 회장님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기홍 회장님을 잡되 체육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홀드백 기간, 홀드백 이것 아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말씀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극장에서 영화 개봉한 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OTT에서 상영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홀드백 기간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그런데 영화 부과금 어떻게 했지요? 전액 폐지시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통과 안 됐지요.

○임오경 위원 그 후속대책 마련해 놓고 하신 것 아니지요?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한산' 같은 영화는 한 달 만에 OTT에 반영이 됐고 '범죄도시'는 두 달 만에 넷플릭스에 바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뒤면 OTT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2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년 3개월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냥 1년 3개월로 수정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절반을 줄이면서 대신 넷플릭스에다가 협상하면서 연 매출 4%를 프랑스 영화에 투자하는 조건을 넣었더라고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책, 후속조치도 없이 지금 홀드백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영화인들은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그냥 부과금만 폐지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후속대책이 있으면 장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부과금 폐지시킨 만큼 어쨌든 영화에 투자를 할 거고요.

○임오경 위원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홀드백은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고요. 홀드백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법으로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홀드백을 지켜 달라고 얘기해도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그 생각이 지금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OTT에 넘겨서 기본 제작비라도 뽑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흥행이 될 만한 영화는 홀드백을 지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여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무조건 최소한도 6개월 정도의 홀드백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현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저희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렇다면 후속대책을 마련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하셔야지 후속대책도 없이 법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아니, 지금 영화산업만 하고 문체부 일만 합니까?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할 일이 많아요. 놀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답변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법 해 줘라, 입법해 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것은 홀드백이 꼭……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제도적으로 홀드백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잘 안 되니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대책은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이번에 새로 최소한 10억~70억 사이의 중예산 영화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했고 그 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영화산업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좀 좋아질 겁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종감 때까지 홀드백 기간에 관련돼서 계획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전가 안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전가하지 마시고 문체부의 그 부과금 폐지한 것에 관련돼서 대책 마련하셔서 종감 때 세부적인 계획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고 재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몇몇 증인·참고인 모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전혀 증인·참고인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모셔 가지고 들을 분이 계셔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계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현안질의 오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증인·참고인 요청한 것을 야당 간사께서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참고인을 위원별로? 그래서 추가적인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문체위원회 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딱 숫자적으로도 형평성을 맞

춰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저는 사과를 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간사가 막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박정하 간사님하고 모든 증인·참고인 관련돼서 논의를 했고요. 저는 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증인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22일 날 여러 단체들을 불렀기 때문에 제가 정연욱 위원님에게 철회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 이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 요청을 받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22일 날로 연기한 건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제가 증인을 철회시키거나 이것을 방해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에게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없는 말이 지금 나왔기 때문이요.

○위원장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요.

○임오경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당 간사님하고 지금까지 논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 증인을 막았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전재수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당 간사님과 야당 간사하고 같이 논의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하물며 위원님들에게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날짜를 변경시킨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께서는 최지우 변호사, 김대중 주필 관련해서 증인 협상을 했던 임오경 간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증인 신청을 여럿 하셨는데 전적으로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 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임오경 간사가 막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석 위원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당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협상의 결과물로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박정하 간사님 또 임오경 간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서는 또 종합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박정하 간사님 그리고 임오경 간사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오경 간사께서 막은 바는 없다 그리고 박정하 간사께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다, 양당 간사 간의 협의의 산물

이다 이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장의 이러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이고 제가 추가질의 좀 드려야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질의하실 겁니까?

○ 김승수 위원 예.

○ 위원장 전재수 질의를요?

○ 김승수 위원 예, 오랫동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반박 겸 해서……

○ 위원장 전재수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추가질의 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추가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안 빠지고 다 하셨고 특히 제가 시간을, 원래는 3분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분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은 재추가질의를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승수 위원님 재추가질의를 끝으로 오늘 질의는 좀……

○ 임오경 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추가 반박 질의라고 하니까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박정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간사님.

○ 박정하 위원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 질문하실 때 크게 저희가 문제 삼지 않고 위원장님이 1분씩 추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준비해 오신 질의 충분히 하시라고 저희도 그만큼 양해해서 시간을 배려해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질의, 통상의 경우 7분, 5분, 3분 하는 것도 그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얘기를, 준비해 온 얘기를 다 하자는 취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많이, 충분히 말씀 주실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아무 문제 안 삼고 있었는데요.

임오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승수 위원님 추가질의에 이어서 보고 또 뭐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배려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거라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저 원래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 주셨길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마지막……

○ 임오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임오경 위원 예.

○ 위원장 전재수 예, 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박정하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현안질의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지금 준비하신 질의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는 정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또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질의를 더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우리 야당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지금 더 많은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톱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드립니다.

○**박정하 위원** 그냥 추가질의 받아서 다 할까요?

○**진종오 위원** 다 하시지요, 그러면. 안 한 사람들 다시 하지요, 뭐.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오늘 재추가질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님, 사실 우리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 옳은 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나라에 날아오고 있고 또 이게 화재라든지 재산적인 피해까지 끼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발전된 문화, 드라마, 가요 또 그리고 학성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 생겼던 것이고, 대북전단 금지법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못하게 손발을 끊어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에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다소나마 해소됐습니다마는……

물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옥죄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쓱쓸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또 종목별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한체육회조차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관리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4일 현안질의에서 법인화 기금하고 또 진흥기금하고 해서 경기력 향상 지원기금 이런 것들 종목별 단체별로 수십억씩 지원됐던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소프트볼협회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4년 동안 누락됐었고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누락됐었고 축구, 탁구, 펜싱 이런 데에서는 2020년 누락으로 한 104억 정도 누락 금액이 발생됐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 단체에 지원된 돈들이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는 통계자료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 단체의 자료들을 받았는데 대한체육회 자체 자료도 영터리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단체에 나간 돈과 종목별 단체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법인화 기금같이 이렇게 계속 원금

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을 서로 대조를 안 하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대한체육회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또 그리고 그런 5000억에 가까운 돈을 정부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언제든지 자료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뭐 하러 대한체육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종목별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회계 관리상의 혀점들, 수천억의 예산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낙 지금 문제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을 대한체육회뿐만 아니고 종목별 단체 중에 특히 문제가 있는 단체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 간에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조·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자료, 추가적으로 어려운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불투명하게 또 이런 부정비리가 난무하는 그런 상태로 체육회를 가져가겠다는 것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하여 문체부의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KTV의 무관중 국악공연에 영부인 등이 참석한 것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더불어 이와 관련한 자료의 미제출 및 허위제출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전 영부인 인도 순방 관련 문제, 가짜뉴스 및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치 필요성, 남산 자유센터 리모델링사업의 재검토 필요성,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관련 위약금 지출 및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안무저작권을 비롯해 창작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중국의 문화공정 시도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유통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소속 부서장 등은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김윤덕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

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0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위원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유산청 및 8개의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은 강원도 원주 등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촌 장관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6인)

장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융호성

제2차관 장미란

차관보 이진석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최보근

종무실장 정용욱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대변인 강수상

감사관 최현준

정책기획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국제문화정책관 김재현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김도형

소통지원관 이준호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체육협력관 송윤석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운영지원과장 남찬우

○출석 증인

양민석(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준원(위버스컴퍼니 대표)

○출석 참고인

박은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이민석(KOK 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진은자(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